2021년 상반기(1,2학기) 산학교 수업 평가서

차 례

- 1. 말과 글
- 2. 수학
- 3. 주제학습(프로젝트)
- 4. 하루열기/닫기
- 5. 몸활동
- 6. 성평등
- 7. 영어
- 8. 미술
- 9. 음악
- 10. 마음놀이
- 11. 노동인권
- 12. 나너우리
- 13. 선택활동
- 14. 통합교육
- 15. 작은산회의

1. 말과 글

1) 1,2학년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3월 2일 화요일 | 차시 | 1 |
| 수업 목표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 | 를 경험한다. 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 | <u> </u> 한다. |



그림책 <안녕>

1. 장면 보며 이야기 나누기 "여우와 늑대 표정이 어때?" "이때 여우와 늑대 마음은 어땠을까?"

수업 내용

2. "마음이 불편해" 장면 보고 이야기 나누기

"마음이 불편한 건 어떤 걸까?"

"보기 싫은데 자꾸 보게 돼요. 엄마랑 싸워서 혼자 방에 있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져요."

"아무것도 안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요."

"고구마를 100개를 먹고 물을 안 마시는 것 같아"

- "답답해"
- 3. 책 읽고 기억에 남는 장면 그림 그리기
- 공책이 그림 그리고 짝꿍이랑 이야기 나누기



1. 그림책 속 이야기 경험하기

그림책을 읽어줄 때, 아이들이 집중하며 이야기를 듣는다. 이야기를 읽다가 멈춰서 "여우와 늑대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고 물으면 "속상할 것 같아", "신경이 쓰일 것 같아." 하며 아이들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을 이야기 한다.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도 어려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이야기 해준다. 읽었을 때 7분 정도 되는 양의 그림책은 이야기도 쉽고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좋아 그림책을 통해 상황을 이해하고, 인물의 감정을 이해하기 좋다.

수업 평가

2. 자기 생각과 느낌 글과 그림으로 표현하기

그림책을 다 읽은 후 아이들에게 기억에 남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라고 했다. 아이들은 자기 공책에 그림책 장면을 그리기 시작했다. 같은 그림책을 읽었지만 아이들마다 더 중요하게 느끼는 장면이 다르다. 같은 장면을 그렸어도 그 장면을 그린 이유도 저마다 다르다. 그래서 책을 읽고 자기만의 생각과 느낌을 그림으로 기록하는 것을 꾸준히 이어서 해보면 좋겠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3월 11일 목요일 | 차시 | 2 |
| 수업 목표 | (1) 생태나들이에서 오감으로 | 경험한 것을 글과 그림으로 | 기록한다. |
| 수업 내용 | 생태나들이에서 보고 듣고 느낀 | 건 공책에 적기 민준 산희 승언 율 장망기를 목표를 전 말과 글 전 정말 기를 목표를 전 당 기를 목표를 전 당 기를 무용하는 전 기를 막혀 보는 기를 막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다고 되었 | 마하나 모르면 이 이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
| 소 어 펴가 | 지헌 시간에 종다리가 형 | 回記 (数) | 자연물을 함께 이야기 나눈 후 |
| 수업 평가 | | 자연물을 그림으로 그리는 걸 어 | |

| 1시간 | ᄉ엉гіӀ҅Ѵ҅ | |
|--|-----------------------------------|---|
| | 수업대상 | 1,2학년 |
| 5월 20일 목요일 | 차시 | 15 |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 | |
| 수업 내용 | | |
|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 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 < 꾸물꼬물 지렁이를 키워봐> 1. 책 읽기 2. 지렁이 키우는 방법 알아보기 3. 학교에서 키우려면 어떤 준비물 |

수업 평가

비가 오는 날 산학교와 텃밭에 지렁이가 나타났다. 아이들이 지렁이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했다. 잘 돌봐주고는 싶은데 어떻게 돌봐줘야 할지 모르겠다고 해서 아이들이랑 같이 <꾸물꼬물 지렁이를 키워봐>를 읽었다.

책 안에는 지렁이가 우리를 위해 해주는 일들도 나와 있고, 어떻게 지렁이를 키울 수 있는지 방법이 자세히 나와 있었다.

지렁이의 특성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방법을 아니까 아이들이 지렁이를 더 잘 챙겨주었다. 지렁이에 대해 궁금했던 것도 알 수 있고, 몰랐던 것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관심 있 어 하는 주제라 집중하며 잘 읽었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5월 26일 수요일 | 차시 | 16 |
| 수업 목표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 | |
| 수업 내용 | (강군이네 떡집>, 〈소원 떡집> | | |
| | | | |

수업 평가

들살이때 아이들에게 〈만복이네 떡집〉을 읽어줬더니 1시간 동안 집중하며 이야기를 들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큭큭 웃기도 하고, 자기도 비슷한 경험이 있는지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아이들이 만복이네 떡집 다음편도 궁금하다고 해서, 장군이네 떡집과 소원떡집을 읽어줬다. 한 권을 읽으면 한 시간 정도 읽는데, 아이들이 한 시간 동안 집중해서 이야기를 들었다. 만복이네 떡집 시리즈는 1학년 아이들이 읽어도 재밌게 읽는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5월 27일 목요일 | 차시 | 17 |
| 수업 목표 | (1) 생태나들이에서 오감으로 경험한 것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다. | | |
| 수업 내용 | | 1. 비오는날 나들이 2. 비 모으기 3. 생태나들이 하면서 분 - 애벌레집, 무당벌레 여 | 보 것 기록하기 개벌레, 에메랄드 돌, 계란곷 |

수업 평가

오늘은 비가 오지만 나들이를 나갔다. 아이들에게 미리 우비랑 우산을 준비하라고 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조금만 걸어도 아이들이 힘들어 했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6월 2일 수요일 | 차시 | 18 |
| 수업 목표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 | |

(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2학년과 이야기 나누기

- 1. 책읽기 숙제
- 그동안 책읽기 숙제 하면서 어땠는지 이야기 나눴다.
- 글자를 잘 읽게 됐고, 매일 하다 보니 책을 읽는게 쉬워지는데 하기는 싫다고 한다.
- 아이들이 일주일에 5번 있는 숙제를 4번으로 줄여달라고 했으나 그럴 수 없다고 했다. 매일 조금씩 꾸준히 하는게 책읽기 숙제를 하는 이유라고 설명해 주었다.
- 책을 왜 읽어야 하고, 왜 꾸준히 해야 하는지 알겠지만 힘이 든다고 한다.

2. 지낸 이야기

- 2학년 아이들에게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불편한 것은 없는지 물어봤다. 아무래도 1학년보다 나를 덜 찾게 되어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 아이들은 각각 그동안 불편했던 것을 이야기 해줬다. 몸깨우기 할 때 1학년 아이들이 늦게 와서 많이 못하는 이야기가 주로 많이 나와 같이 작은산회의 때 이야기 해보자고 했다. (작은 산회의 때 논의 한 결과 1학년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9시 10분에 하루 열기 하고, 몸깨우기 하기로 결정했다. 중간에 1학년 아이들이 오면 그때 몸깨우기에 끼기로 했다.)

- 불편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이사 간 이야기, 곧 이사 가는 이야기도 나눴다. 이사를 가서 자기 방이 생긴 아이는 자기 방이 생겨서 너무 좋다고 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혼자 방에서 쉬는게 편하고 좋다고 한다.

- 곧 이사를 가는 아이는 이사 가는 날짜를 손꼽아 세며 기다리고 있다. 이사를 가는 집이 2층 집이라 기대 되는 일이 많다고 했다.



(사진은 같이 간식 먹고 설거지 누가 할지 가위바위보 하기)

수업 평가

수업 내용

한 하기에 한두 번 학년 별로 이야기를 갖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아이들이 어떤 것을 어려워하고, 어떤 제안이 있는지 이야기 할 수 있어서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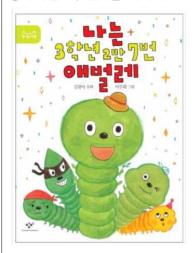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6월 3일 목요일 | 차시 | 19 |
| 스언 모표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 | |

(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1학년과 이야기 나누기

- 지내면서 어려운 점이 있는지, 노을에게 제안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 이야기를 나눴다. 1학기초 1학년 아이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때 1학년 아이들이 학교 다니면서 힘들었던 것과 어려웠던 것을 편안하게 이야기 할 수 있었다. 평소에 교사에게 자기 이야기를 편안하게 하는 줄 알았는데, 말 못하고 마음에 두고 있었던 일들이 있었다. 1학년 아이들은 대게 2학년 형, 누나, 오빠, 언니에게 서운했던 일을 이야기 했다. 작은 마당에서 놀고 있는데다른 곳에 가라고 했다거나, 그네를 타고 있는데 내리라고 했던 일들을 이야기 했다. 또 애벌레 이야기도 많이 했다. 키우고 싶은 곤충에 대해서도 이야기 하고, 지금 키우고 있는 곤충에대한 이야기도 나눴다. 점점 학교에 적응하면서 좋아하는 것도 생기고, 다양한 상황 속 사람들과 갈등도 만나게 되는 모습이다.

좋아하는 책 읽기_<바바파파>, <나는 3학년 2반 7번 애벌레>



- 교실에서 책을 읽어 줄 때 아이들이 자리를 박차고 앞으로 나와 가까이에서 책을 보고 싶어 했다. 그림이 없는 책을 읽을 때도 앞으로 나와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들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교실보다 아늑한 공간으로 가서 책을 읽어 주었다.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고, 책을 읽어 주었다. 1학년 아이들이 애벌레에 관심이 많아서 애벌레 책을 읽어주었다. 마침 교실에서도 애벌레를 키우고 있는데, 이 책도 교실에서 아이들이 키우는 애벌레 이야기를 담고 있다. 애벌레 입장이 아닌, 사람의입장에서만 애벌레를 대했는데, 이야기를 통해 애벌레 입장에서생각 해 볼 수 있었다.

전에 애벌레를 키우다가 뽕잎을 따는게 힘들어져서 며칠 애벌레를 굶긴 일이 있었다. 그때 아이들과 다같이 모여 이야기를 나

누었다.

"처음에는 궁금해서 애벌레를 데리고 왔는데, 키우다가 힘들어 지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질문에 아이들은 자기 생각을 이야기 했다. 말랑말랑 반에 갖다주자는 아이도 있고, 자연으로 보내주자는 아이도 있었다.

"그러면 키우다가 어려워지면 다른 곳으로 보내는건 괜찮아?"

아이들은 다시 생각에 잠겼다. 뽕잎을 따러 가는 길이 어렵긴 하지만 충분히 갈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었는지 당번을 정해 뽕잎을 따주기로 했다.



수업 내용 / 평가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6월 9일 목요일 | 차시 | 20 |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 | | |

- (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학교 가는 길을 개척할 거야>



개척이 뭐야?

책 제목을 읽어주고 '개척'이란 말은 무슨 말일까? 라고 물어보 니 아이들이 번쩍 손을 든다.

"개인척 하는거야"

이 말에 한동안 강아지에 대한 이야기가 곳곳에서 퍼졌다. 자기 들 끼리 말하면서 자기가 웃는다.

"힌트는 강아지에 관한 말이 아니야" 내 말에 건우가 손을 번쩍 든다.

"새로 만든다는 뜻이야!" 건우 말에 다른 친구들이 "오~ 맞아!" 한다.

헌 것과 새 것

이야기에서 '헌 길'이 나왔다. 아이들에게 헌 것이 뭐냐고 물어보니 오래 된 것, 낡은 것, 늙은 것이라고 했다. 헌 것은 늘 하던 것이고, 예전 것이라고도 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것 중에 늘 하던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말과 글, 하루 열기, 몸깨우기, 청소, 수학 등등등 아이들이 하 고 있는 것을 다 애기한다.

수업 내용 / 평가

- "그럼 오늘은 하루닫기를 우리가 늘 하고 있던 방법 말고 새롭게 해보면 어떨까?"
- "좋아! 오늘은 하루닫기를 데크에서 하자"
- "작은 마당도 좋고!"
- "간식을 새롭게 준비하면 어떨까?"
- "우리가 새롭게 간식을 준비하는거야!"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하루닫기'에 대해 상의를 했다. 쉬는 시간이 되자 어떤 아이는 작은 마 당으로 달려가 땅을 골고루 피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앵두를 따러 앵두나무에 가기도 했다. 어떤 아이는 자기 가방에 있는 간식을 꺼내 같이 먹자고도 했다.

오늘은 하루닫기를 작은 마당에서 했다. 점심시간에 작은마당에 가서 물을 뿌리며 땅을 식히는 아이들도 있었다. "오늘 하루닫기는 작은 마당에서 파티처럼 하자"는 아이 말에 매실차 한잔 시원하게 마시면서 파티처럼 하루닫기를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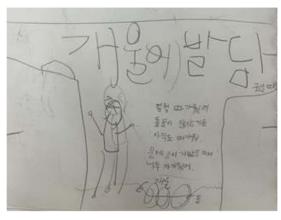
- 생태나들이를 가거나, 나들이를 갈 때 아이들은 "새롭게 길을 개척하자"는 말을 자주 했다.
- 새로운 길로 갈 때 전혀 다른 길이 아니고 조금만 옆길로 가도 아이들은 신이 난 듯 거침없 이 달려갔다.
- 책읽기를 할 때 낱말의 뜻을 많이 알려주기보다 하나씩 배우고 생활에서 적용해보면 아이들 이 쉽고 재밌게 배운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6월 10일 목요일 | 차시 | 21 |

(1) 생태나들이에서 오감으로 경험한 것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다.

1. 개울에 발 담갔을 때 느낌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기





"엄청 따가웠어. 돌들이 많았거든. 아직도 따가워. 물에 들어갔을 때 너무 차가웠어. -건우 "차가워" - 산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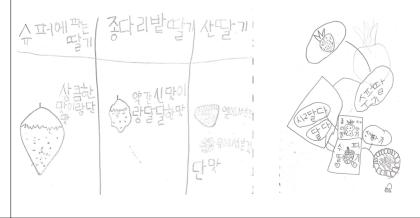
"시원한 맛" - 승언

"애들이 개울에 발을 담그며 놀 때 나는 종다리랑 밭에서 딸기를 땄어. 딸기를 딸 때 뽀득뽀득해" - 유하

수업 내용

- "엄청 더웠는데 갑자기 물에 들어가니까 차갑고 시원했어." 율
- "돌이 밟혔어. 시원했어." 은성
- "시원하면서 물을 만지는 느낌이야." 제이
- "개울에 갔을 때 나뭇잎 배를 띄웠어. 배가 돌에 걸릴까봐 아슬아슬 했어" 지헌
- "차갑고 시원했어." 하린

2. 슈퍼에서 파는 딸기 / 종다리 밭 딸기 / 산딸기 각각 모양과 특징 관찰해서 기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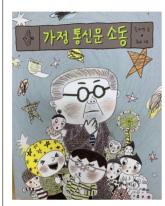


수업 평가

오늘은 슈퍼에서 파는 딸기, 종다리 밭에서 딴 딸기, 산딸기를 놓고 아이들과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다. 같은 딸기여도 각각 어떻게 다른지 눈으로 보고, 맛으로도 느껴봤다. 비교해서 관찰하기는 아이들과 처음 해보는 건데 아이들은 딸기를 관찰하고 맛보며 각각특징을 발견해서 기록하였다. 직접 맛보면서 하는 관찰은 역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한다. 햇볕이 쨍쨍 내리쬐는 더운 날이었지만, 정좌에 모여 앉아 딸기도 먹고 개울에 들어가 놀며 즐거운시간을 보냈다. 개울에 들어갈 때 처음 개울에 들어가 본다는 아이도 있어서 조금 놀랐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6월 16일 목요일 | 차시 | 22 |
| | | | |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 (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가정통신문 소동>

- 책읽기
- 책 속 이야기처럼 우리만의 숙제 만들기

수업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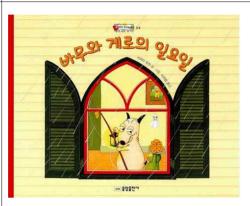
수업 평가

아이들이 수업을 하는데 너무 신나한다. 숙제를 얼른 하고 싶어서 하루닫기 때부터 가방을 매고 있었다. 갑작스러운 숙제라 부모님들은 조금 곤란하셨을 것 같지만, 아이들이 너무 기뻐하고 신나 해서 부모님들에게도 양해를 구하고 아이들이 정한대로 숙제를 하도록 했다. 아이들과 같이 지내면서,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직접 찾아보고, 주변에서 발견한 벌레들을 잘 알기 위해 책을 찾아보는 아이들을 보며, 아이들에게는 배움이 정말 실제적이라는 생각이 든다. 책 속 이야기가 이야기로만 남아 있지 않고, 아이들 삶으로 툭 튀어 나와 실제로 경험해 보니 아이들이 책 이야기를 잘 기억하고, 책에 대한 우리들만의 추억이 생긴 것 같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6월 17일 목요일 | 차시 | 23 |
| 수업 목표 | (1) 생태나들이에서 오감으로 경험한 것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다. | | |
| 수업 내용 | 1. 생태나들이 다녀온 이야기 그림일기로 쓰기 일기가 무엇인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아이들은 일기가 "그날 있었던 일을 그림이나 글 로 쓰는 것"이라고 했다. - 기억나는 일, 좋은 일, 나쁜 일, 겁이 났던 일, 속상했던 일, 아무에게도 해주고 싶지 않은 비 밀을 아이들에게 쓰는 것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리고 이번 생태나들이 시간에 있었던 일로 일기 쓰기를 연습해 보았다. | | |
| 수업 평가 | 아이들이 처음 일기를 써봤다. 어떤 아이는 자기가 쓴 일기를 보여준 아이도 있었고, 비밀이라고 보여주지 않는 아이도 있었다. 혼자 비밀로 간직하고 싶다는 아이는 일기를 쓰는 내내 싱글벙글했다. 이제 아이들에게도 비밀이 생긴 것 같다. | | |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6월 18일 금요일 | 차시 | 24 |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 (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바무와 게로의 일요일> 그림책 읽고 책 속 이야기처럼 해보기

청소하기



간식 만들기



수업 내용

간식 만들면서 만든 시

팝콘 권투 같아 발차기 하는 것 같아 화산 같아

지글지글 퍽퍽퍽 때려라 때려라

비 오는 소리 같아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 같아 굵은 빗방울 소리



콩이 하늘에서 떨어지네 푸드득 퍽퍽퍽 퍼드득 푹 북 푸부북 팝콘이 방구를 뀌고 있어

마지막 한 알이 퍽 또 마지막 한 알이 남았네 마지막 한 알이 퍽 또 마지막 한 알이 남았네



수업 평가

오늘은 금요일인데 비가 와 나들이에 나가지 못했다. 마침 지헌이가 같이 읽자고 가져온 그림 책도 비가 오는 날 이야기여서 아이들과 모여 앉아 함께 그림책을 읽었다. 요즘 모올반은 말과 글 시간에 함께 책을 읽고 책 내용을 실제로 해보고 있는데, 그림책에서도 비가 내려 아이들이 신기해하며 재미있게 책을 읽었다. 그림책에는 비 오는 날 바우와 게로가 청소도 하고 도넛도 만드는 이야기였다. 책을 읽고 아이들이 같이 간식을 만들어 먹자고 제안 했다. 마침 아이들이랑 같이 튀겨먹으려고 준비해 놓은 팝콘이 있었다. 계획에 없던 일이라 아이들과 어떻게 간식을 해 먹을 건지 같이 상의를 했다. 아이들과 교실을 청소한 후 책상을 다 벽으로 밀어 팝콘을튀길 공간을 만들었다. 비 오는 소리에 맞춰 지글지글 퍽퍽 소리를 내는 팝콘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하는 말들을 칠판에 옮겨 적었다. 팝콘이 튀겨질 때 아이들이 박수를 치며 좋아한다. 팝콘을 다 튀기고 맛을 보는데 역시 직접 해먹는 건 맛있다. 팝콘을 다 튀기고 아이들이 한 말로만든 시를 같이 읽어 보았다. 아이들이 한 손에 가득 팝콘을 쥐고 와구와구 먹으며 실실 웃는다.

가끔 이렇게 날씨가 안 좋아 나들이를 못할 때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고 간식을 해먹으면 좋을 것 같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6월 23일 수요일 6월 30일 수요일 | 차시 | 25 - 27 |

- (1) 그림책 속 다양한 이야기를 경험한다.
- (2) 그림책을 읽고 자기 생각과 느낌을 글과 그림으로 표현한다.

수업 내용



6월 23일 수요일 <공슬기의 슬기로운 플라스틱 생활>

- 1. 책 읽기
- 이야기1 "공짜는 없다"
- 2. 생각해 보기 "플라스틱이란 무엇일까?"
- 3. 이야기 나누기 "내 주변 플라스틱 찾아보기"
- 4. 공책에 내 주변 플라스틱 그림으로 그리기

6월 30일 수요일

2. 플라스틱은 우주 악당 읽기





산제로 상점이 생긴 후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플라스틱과 재활용에 대해 관심이 생겼다. 병뚜껑을 모아 분리수거를 하기도 하고, 물건을 만들어 산제로 상점에 팔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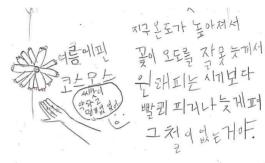
아이들과 〈공슬기의 슬기로운 플라스틱 생활〉 책을 읽었다. 아이들에겐 환경과 재활용 이야기가 익숙해 보였다. 알고 있는 이야기도 많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지도 심각한 표정을 하

며 이야기하기 때문이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플라스틱이 무엇인지 이야기 나누며 환경을 지키고 아끼는 일에 동참하기로 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제대로 알고 실천해보면 좋겠다. 환경과 재활용은 2학기에도 이어서 아이들과 같이 배우고 실천하며 좋겠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7월 1일 목요일 | 차시 | 28 |
| 수입될째 | /멸 I일 녹표일 | ^[^] | 28 |

- (1) 생태나들이에서 오감으로 경험한 것을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다.
- 1. 혼자 꽃 피운 등나무 이야기, 여름에 핀 코스모스를 통해 '철'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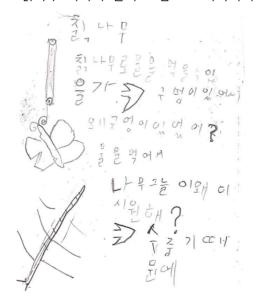




지구 온도가 높아져서 꽃이 온도를 잘 못 느껴서 원래 피는 시기보다 빨리 피거나 늦게 핀다. 철은 때라는 뜻인데, 때에 맞게 피지 못해서 '철이 없다'고 한다.

2. 칡나무 이야기 글과 그림으로 기록하기

수업 내용







칡나무 나뭇가지를 잘라 단면을 보면 구멍이 있는데, 나무가 뿌리에서부터 물을 빨아들여야 해서 물길이 있다. 이렇게 물을 빨아들여서 잎이 수중기를 내뿜는다. 그래서 산에 가면 시원하다.

수업 평가

종다리가 해준 이야기를 아이들이 잘 듣고 그림과 글로 자기 공책에 쓰는 게 이제는 제법 익숙해졌다. 오늘은 철이 없는 꽃 이야기를 말과 글 시간에 아이들과 나누었다. 때에 맞춰 피지 못한 꽃 이야기를 시작으로, 각자 자기가 철이 없었을 때 실수 했던 이야기를 했다.

날씨가 더워 나들이를 다니는 게 힘이 들지만 나들이 때 발견하는 곤충과 경험하는 놀이로 즐겁게 나들이를 마칠 수 있었다. 칡나무에 대해 배우고 놀이를 하면 아이들은 놀이를 했던 기억을 꺼내 공책에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날짜 | 7월 7일 수요일 | 차시 | 29 |
| | | | |

- (1) 1학기 동안 함께 정한 모올반 약속 알아보기
- (2) 약속 포스터 만들어서 생활하는 공간에 붙이기

모올반 약속

- 1. 다른 사람 물건이 궁금하면 만지지 말고 물어봐줘
- 2. 너무 시끄러워요 워워 (시끄러울 때)
- 3. 장난감은 같이 가지고 놀자
- 4. 장난으로도 때리는 건 안돼
- 5. 명령은 싫어 내가 선택할게
- 6. 숲속놀이터는 같이 쓰는 공간이야
- 7. 노을과 약속 시간을 정하면 텃밭 위에 갈 수 있어
- 8. 계단과 복도에서 걸어다니자
- 9. 내 물건은 내가 정리해요.
- 10. "하지마" 하면 멈춰줘
- 11. 욕으로 표현하지 말고 원하는 걸 얘기하자
- 12. 놀리지 말자
- 13. 내가 싫으면 억지로 시키지 말아줘

수업 내용

약속 포스터 만들고 붙이기









수업 평가

작은산회의 시간에 우리가 함께 정한 모올반 약속이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같이 이야기 하는 시간을 가졌다. 어떤 것은 잘 지켜지고 있고, 어떤 것은 아직도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들이 약속 포스터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말과 글 시간에 함께 포스터를 만들어 곳곳에 붙였다. 포스터를 붙이는 곳도 아이들이 정했는데, 장소마다 어떤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지 알고 필요한 포스터를 붙이는 모습이었다. 약속을 까먹어서 실수할 때도 있지만, 함께 정한 사인과 포스터로 서로서로 약속에 대해서 잘 알려주고, 아이들 모두 약속을 잘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었다.

| 교과명 | 말과 글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 수업시간 | 1시간 | 수업대상 | 1,2학년 | |
| 수업날짜 | 7월 8일 목요일 | 차시 | 30 | |
| 수업 목표 | (1) 1학기 말과 글 평가 | | | |
| 수업 내용 | - 그림책을 읽고 공책에 그림을 - 공책을 펴면 읽었던 그림책이 - 공책에 그림이 있으니까 다시 - 3월에 읽었던 〈안녕〉 책이 오 2. 생태나들이 때 본 것, 들은 경우 그 공책을 보면 종다리가 해준 이 하다 하다 그날 어떤 일이 그 점점 더 잘 관찰하게 돼. 더 하는 내가 발견을 잘하는 걸 몰랐다 잘한다는 걸 알았어. 3. 2학기 수업 제안 - 〈개척〉, 〈바무와 게로의 일요 어. 2학기 때도 하고 싶어 - 2학기 때는 요리책을 같이 읽 - 그림책을 만들면 좋겠어 그림책에 나오는 곤충과 동물 | 수업 제안 >, <바무와 게로의 일요일>, <가정통신문 소동>처럼 책 읽고 실제로 해보는 게 재밌었 때도 하고 싶어 때는 요리책을 같이 읽고 요리를 해보자! | | |
| 수업 평가 | 가 책 내용과 나들이 때 배운 관찰기록 하는 수업을 하면 좋겠 2. 글과 그림으로 기록할 때 장 기를 지어볼 수도 있겠다. 이렇? 3. 아이들의 제안대로 책 읽고 책을 가져와 함께 읽고 실제로 | 명가를 했다. 아이들의 의견을 들 것을 잘 기억할 수 있었다. 2학 겠다. 면을 더 그려 만화로 그려보거나 게 그린 그림과 이야기로 그림책- 실제로 해보기도 2학기 때 해보 해보거나, 아이들이 다양한 경험- 할용을 넣어 함께 배우고 실천하면 | 기 때도 생태나들이와 연계해서 , 뒷이야기를 더 상상해서 이야 을 만들면 좋겠다. 으면 좋겠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다. | |

2) 3,4학년

| 수업 목표 | 1. 책을 재미있게 읽고 내용을 이해한다. 2. 책을 읽고 질문을 만든다. 3. 나의 생각과 느낌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본다.(학기말 추가 목표) |
|------------------------|---|
| 주요 활동 | 1. 약속 매 시간 같이 확인하고 더 필요한 약속 다시 정하기/ 싱잉볼 듣기 2. 질문의 공책 만들기/ 책소개/ 나에게 책이란?(첫 수업과 끝 수업) 3. 집에서 읽어오기/ 학교에서 함께 읽기(같은 내용을 두 차례 읽음) 4. 소리 내어 함께 읽기/ 읽고 싶은 부분 읽기/ 역할 정해서 읽기/ 한 페이지 씩 읽기 5. 질문 만들기/ 질문의 종류 알기/ 내 질문에 내가 답하기/ 내 질문에 친구가 답하기/ 내 질문에 모두가 답하기 6. 독서 퀴즈/ 7. 숙제 검사/ 문제 읽고 자신이 쓴 답 친구들과 공유하기/ 내가 쓴 답 한 문장으로 고쳐 보기 8. 멸종동물 이야기(정우, 재원)/ 자폐아 오웬이야기(소금인형) 9. 책/ 숙제/ 수업에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숙제 요일 정하기, 숙제 양 조절하기, 질문의 답을 쓸 때 함께 이야기 나누기) |
| | 1. 우리 수업 약속은 잘 지켜졌니? 어려움은 없었니? 약속 중 밖에 나가 전환하기는 체벌로 느껴 지니? 싱잉볼 치면 수업 시작에 도움이 됐니? |
| 아이들 수업평가서와 교사 평가 | (아이들)5가지 수업 약속이 있었는데 대체로 약속은 잘 지키려고 노력했고 수업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가 많았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질문이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은 어려웠다는 평가가 많았다. 약속 중에 수업 참여가 어려우면 밖에 나가 전환하고 오기는 체벌로 느껴지는 아이가 2명 있었고 다른 아이들은 함께 만든 약속이라 괜찮다고 했다. 수업을 알리는 싱잉볼 소리는 마음을 진정시키고 수업의 시작을 알려서 좋다는 평가가 높았다. |
| | (교사)아이들과 약속을 함께 만드는 것,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매 번 상기하고 지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꾸준히 나누는 것, 싱잉볼등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적인 장치들이 필요했다. 수업에 방해가 되는 행동에 대해서는 밖에 나가 전환하기를 했는데 수업에서는 막상 나갔다 오라면 잘 참여하겠다고 해서 밖에 나간 경우는 한 두 번 밖에 없었다. |
| | 2. 책은 재밌게 읽었니? 그 이유는? |
| | (아이들)판타지 소설이라 재밌다는 평가가 많았고 대체로 책에 대한 만족도는 높았다. 과제도 충실 히 해오고 집에서 미리(과제가 아닌 부분도) 읽어오는 아이들도 많았고 책을 잘 읽지 않는데 재밌 어 혼자서도 읽게 된다고 평가도 있었다. |

(교사)예전 과림동에 살 때 아이들이 많이 추천해 준 책이다. 우선 판타지 소설이고 다양한 주제들과 이야기 거리들이 있어 누구나 관심 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한편으로는 그만큼 내용 다양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지루해질 수 있다는 염려가 있었다. 그래서 최대한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2번씩 책을 읽고 사건, 공간, 인물에 따라 내용을 함께 정리하고 독서퀴즈를 내 주었다. 그 활동을 반복해서 하다보니 아이들이 익숙해지고 내용 파악도 되니 뒤로 갈수록 책읽기를 좋아했다. (아이들이 책이 재미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용 이해를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고 판단)또한 멸종동물, 장애, 역사 등 각 자 궁금하거나 좋아하는 주제로 모둠을 나눠 공부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기도 했다. 한 권의 책으로 아이들의 흥미에 따라 다양한 접근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해보면 좋겠다. 또한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책이기도 한다.

3. 내용 이해를 위해 2번씩 읽었는데 어땠어?

(아이들)혼자 집에서 읽으면 집중하기 어려운데 학교에서 소리 내어 같이 읽으면 자세히 읽고 내용을 알게 되니 더 재미있어 2번씩 읽는 것은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다.

(교사)두 번씩 읽으면 자칫 지루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잘 참여하고 평가도 좋았다. 그만큼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많이 든다.

4. 함께 책 읽는 방법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좋았어?

(아이들)1)역할극 2)읽고 싶은 만큼 읽는 것 3) 한 페이지씩 순으로 좋았다는 평가가 많았고 겸이는 속으로 읽으면 좋겠고 앞의 내용이 궁금하기도 하고 속으로 읽는 것이 편한 방법이라고 했다.

(교사)소리내어 책읽기의 장점에 대해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고 대부분 아이들이 소리내어 읽기, 역할극 하기를 좋아했다. 자기 순서가 될 때 긴장하기도 하고 아직 소리 내어 읽는 게 서툰 아이들도 있었지만 학기말이 되면서 많이 노력하고 좋아지는 모습이었다. 특히 현우는 책읽기는 어려웠지만 내용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 (읽고 난 후 내용을 확인하는 개인 면담)또 두 번씩 읽는 것도 현우에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수업이 어려운 아이는 두 가지로 나눠보면 책 내용을 이해하는 게 어려운 아이, 소리 내어 책읽기가 어려운 아이가 있었다. 두 가지 어려움을 지원하려고 노력했다. 같은 활동을 반복해서 하고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수업에 많이 도움이 됐다.

5. 질문의 만드는 건 어땠어? 내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있었니? 다른 친구의 질문 중에 기억에 남는 것 있었니?

(아이들)질문에 대한 평가는 다양했다. 처음에는 어려웠는데 조금씩 하다보니 잘 하게되었다는 아이들이 많았고 내가 질문을 만들고 내가 궁금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좋다는 아이가 2명, 질문 만들기가 너무 어려웠다는 아이가 어렵거나 하기 싫었다는 아이(책만 읽으며 좋겠어)가 2명 있었다.

(교사)왜 스스로 질문을 해야 하는지, 질문의 방법, 좋은 질문은 무엇인지 교사 공부가 더 필요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교사가 좀 더 고민하고 공부해야 아이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아이들은 주로 책 내용을 확인하고 낱말뜻을 물어보는

질문이 많았고 한 두 개는 좋은 질문도 있었다. 질문에 스스로 답하고, 친구가 답하고 반 전체가 답하는 과정과 수업에서 함께 확인하고 이야기 나누는 과정을 좋았다.

6. 숙제로 내 준 독서퀴즈는 책의 내용을 이해하고, 나오는 고양이와 사람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됐니?

(아이들)대체로 내가 보지 못 한 것이나 내용을 알게 되고 퀴즈를 풀면서 다시 책을 찾아보게 되어 좋다는 평가가 많았고 질문 만들기보다 쉽다는 평가도 많았다.한 명은 책읽기와 어떤 연관이 있는 지 잘 모르겠고 한 명은 그냥 책읽기만 하면 좋겠다고 했다.

(교사)질문은 내용을 이해하는 질문과 주제를 다루는 질문하는 방식으로 했다. 교사가 책의 주제에 대해 나름 방향성을 갖고 질문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해 보였다. 예를 들어 나는 <고양이학교>는 홀로 감당해야하는 것(혼자 서는 것)과 함께 해야 하는 것(더불어 사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의 이기심이 만들어 낸 환경오염에 대한 주제가 확장된다는 것을 파악하고 질문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게 느껴졌고 그 주제를 엮는 질문을 해 보려고 노력했다. 아이들과 질문 만들기, 교사가 질문 만들기 둘 다 좀 더 공부가 필요한 부분이다.

7. 정우형과 재원이형의 멸종동물 이야기/ 소금인형의 자폐 오웬이야기 어땠어? 기억에 남는 건?

(아이들)2명은 지루하고 재미없었다는 평가와 6명은 새로운 것을 알아 좋았고 특히 자폐에 대해서는 책 이야기랑 달라서 좋았고 좀 더 궁금하다는 평가가 있었다.

(교사)7,8학년 개인프로젝트와 연결되어(우연히!) 좋았고 소금인형의 지원으로 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 좋았다. 교사가 미리 책을 자세히 읽고 수업 내용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하고 지원을 받으면 좋겠다.

8. 책읽기 수업을 하는데 앞으로 어떤 도움을 받고 싶니? 수업 중 특히 힘들었던 것 있음 이야기 해 줄래?

(아이들)특별한 필요한 도움은 없고 이번 학기에 책읽기 수업에 대한 자기 만족도는 높은 편이었고 수업에 잘 참여하고 과제도 성실히 하고 책을 재밌게 읽어 좋았다는 평가가 높았다.

(교사)수업 중간에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었다. 예를 들어 주안이는 질문을 만들거나 질문에 답을 쓸 때 친구들보다 늦어 짜증을 내거나 우는 모습이 있었는데 교사가 언어적인 지원을 해 주거나 두 세 문제를 줄여주는 방식으로 의논해서 지원을 했다. 현우는 수업에 잘 참여하기까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고(예를 들어 교사에게 책을 읽어달라고 하거나 질문의 답을 쓰는 것을 도와달라고 함) 겸이는 내용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을 없었지만 함께 읽을 때 어디 읽을 차례인지 매 번 물어봐서 자를 이용해서 읽기도 하고 약속을 정해지킬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6월부터 소금인형이 들어와 지원을 해줘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특히 주안이나 현우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고 도움을 주니 수업 참여도 많이 높아졌다. 다른 아이들은 수업 활동이 익숙해지고 안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요구하며 서로 도울 수 있도록 했다.

3) 5,6학년

- 교사 : 로다

| 언 제 | 2021년 3월 4일(목) | 회 차 | 첫 번째 시간 |
|----------|--|---|---|
| 수업 내용 | - 책 읽기 시작 | 준비물 | 책「어느 날 그 애가」 |
| 돌아 보기 | - 수업계획을 안내했다 아이들 중 4명이 책을 빨리 구입해서 오늘 가지고 왔다. 한 로고 싶은 부분까지 읽고 다음 팀에게 넘기는 식으로 책을 일단다가 아이들에게 지금 누구가 나왔는지, 어떤 관계인 것 같은 생각해보기 등등 책을 그냥 입으로만 허투루 읽지 않게끔 지도지만 아이들은 로다가 말한 질문에 대답을 잘 해냈고 이야기수업과 하루열기 시간으로 아침 시간을 많이 써버려서 많이 읽으라고 숙제를 내주었다. 한 주 더 써서 일단은 책을 한 번 차고자 한다. | 위기 시작 지, 왜 주인 했다. 그 덕(흐름을 잘 이 지 못했다. (| 했다. 중간중간 멈춰세우며 로 공이 저런 감정을 내보이는지 이었는지 원래 그런지 모르겠 해하며 읽었다. 아침 글쓰기 아이들에게 나머지를 더 읽어 |

| | | | 1 |
|----------|---|--|---|
| 언 제 | 2021년 3월 11일(목) | 회 차 | 두 번째 시간 |
| 수업 내용 | - 책 읽기 마무리 | 준비물 | 책「어느 날 그 애가」, 수 업활동지, 필기도구 |
| 돌아 보기 | - 각자 나머지 책을 읽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다 읽은 친구들은 이 나오는데 인물 1명당 진행된 사건 정리 후 각자가 상황을 바는지 나열하는 것보다 이런 활동지가 아이들이 책 내용을 기억하용히 집중해서 쓰기도 하고, 로다한테 투덜거리면서도 엄청 꼼은 친구들은 숙제로 해오기로 했다. 아이들 대화를 들어보니 재미있 | 꿔보는 활동 [;] 나는데 도움이 몸히 쓰기도 | 지다. 단순히 어떤 일이 있었 될 것 같았다. 아이들은 조 한다. 책을 아직 다 못 읽은 |

| 언 제 | 2021년 3월 18일(목) | 회 차 | 세 번째 시간 |
|----------|--|--|---|
| 수업 내용 | - 인물 관계+감정도 그려보기 | 준비물 | 책 「어느 날 그 애가」, 감 정카드, 종이, 펜 혹은 색연 필 |
| 돌아 보기 | - 오늘은 인물 관계+감정도를 그려보았다. 장원이는 아직 다 읽처음 인물을 맡도록 안내했다. 이야기마다 나오는 아이들이 있이 누가 나오는지 찾아 여러 감정선으로 연결해 표현해보고 아 쓰도록 알려주었다. 아이들이 맡은 인물들이 이야기 속에 좋겠는 마음으로 아이들을 기다렸다. 작업이 끝나고 팀원 두 명 모두 나와 발표를 하게 했다. 단두 사람 다 말하도록 했다. 그 이유는 늘 말을 하는 사람만 말안 됐던 내용을 두 번째로 들었을 때 이해할 수 있으면 좋을 발표를 했고 로다는 한 팀의 발표가 끝날 때마다 다른 팀원들은 음 팀의 인간 관계+감정도에는 아이들이 질문을 안 했는데 2억의 질문들이 빗발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5번째 팀까지 발표를 스 앵커와 기자처럼 발표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인물을 얼만큼 이해하는지에 따라 문맥, 내용을 이해할 수 일필수였다. 그림을 그린 것을 살펴보니 아이들은 대부분 잘 이해하이 느낀 감정들을 찾아주었는데 일방적으로 느낀 감정, 단편적으로 막게 감정들을 찾아주었는데 일방적으로 느낀 감정, 단편적으로 모다와 발표를 듣는 아이들이 그 지점을 지적해 수정을 요청하기로 보다와 발표를 듣는 아이들이 그 지점을 지적해 수정을 요청하기로 하는 말표를 듣는 아이들이 그 지점을 지적해 수정을 요청하기로 되었다. | 있는데 그 아이어떤 감정들이서 얼마나 입 발표 내용은 하는 것을 무 것 같다고 생 에게 발표에 번째 팀의 활 무사히 마쳤다 있기 때문에 하고 있었다. 인 감정들만 |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 인물들이 오가는지 감정카드에서 찾체적으로 나오는지 알았으면 똑같은 말을 또 해도 좋으니라고, 한 번 들었을 때 이해가 각했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은 대한 질문을 하라고 했다. 처동지를 본 후 부터는 아이들다. 한 팀은 발표를 할 때 뉴인물들을 파악해보는 활동은 감정카드를 이용하여 인물들 |

| | | | 1 |
|----------|---|--|---|
| 언 제 | 2021년 3월 25일(목) | 회 차 | 네 번째 시간 |
| 수업 내용 | - 비유해보기 | 준비물 | 책「어느 날 그 애가」, 말 과글 공책, 필기도구 |
| 돌아 보기 | - 이번 수업 때는 인물들의 가족관계를 살펴본 후 내가 그 인 '비유'하는 글을 써보는 활동을 했다. 아이들이 이해를 못 하는 이들에겐 많이 어려웠던 것 같다. 처음에 대부분 비유보다는 '설 해주고 되돌려 보내기를 많이 반복했었다.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설명을 듣고 감을 잡아보게 했다. - 비유글쓰기 활동에 시간을 너무 할애해서 숙제로 내주었던 7 만 하고 마쳤다. 가족인터뷰 글도 조금 더 양식을 줘서 이번 수 | 건 아닌데 한 명'에 가까운 몇 명의 아 [©] }족인터뷰 글 | · 단어로 비유하는 규칙이 아 · 비유글을 써와서 다시 설명 이들은 먼저 통과한 아이들의 ·('나에게 가족이란?')은 발표 |
| | 놓쳤다. 다음에는 숙제를 내줄 때도 조금 더 신경써야겠다. | | |

| 언 제 | 2021년 4월 1일(목) | 회 차 | 다섯 번째 시간 |
|----------|---|---|---|
| 수업 내용 | - 수필 써보기(주제: 친구)(1) | 준비물 | 말과글 공책, 감정카드, 필 기도구 |
| 돌아 보기 | - 오늘은 '친구'에 대한 내용을 주제로 수업을 해봤다. 책에서는 게 많이 나오는 관계, 중요하게 여기는 관계가 바로 '친구관계' 게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돌아보고, 책 속 친구관계가 현실 나보는 시간을 갖고자 이런 주제를 준비했다. 책으로만 계속 수업하기에는 한계도 있으니 일단 먼저 이해역 필사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아이들은 보고 쓰는데도 틀리는 경역시나 틀려서 다시 고쳐 쓰는 아이들이 많았다. 시를 읽을 때 | '이다. 아이들 가 자신의 친- 민 수녀님의 경우가 있어서 | 는에게도 친구라는 존재가 내 구관계를 비교해보고 생각해 시인 <친구야 너는 아니>를 너 필사도 검사하러 다녔다. |

- 다. 필사를 다 마친 순서대로 아이들은 필사하며 시에서 느낀 감정을 감정카드에서 찾고 이유를 쓴 후발표까지 했다. 아이들은 내 예상 밖으로 외로움, 막막한 등의 약간은 어두운 카드들을 많이 뽑아갔다. 시가 어둡게 느껴졌던 모양이다. 시의 해석은 그래도 자유로운 편이니 아이들의 의견은 다 존중하며들었다. 시에서 궁금한 게 있거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지 물어보니 처음 부분과 끝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는 아이들이 있었다. 내가 다 설명해야 하나 싶은 불안감이 밀려왔지만 역시나 다행히 다른아이들이 나 대신 멋지게 해석해주었다. 아이들의 해석이 얼렁뚱땅한 경우가 있기도 했지만 점점 해석이 별드업되며 어른인 나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해석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아이들의 노력이 합쳐져서 시 하나를 해석할 수 있었다.
- 그리고 각자 생각하는 친구란 무엇인지, 어떤 관계를 친구라고 생각하는지 정의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처음에는 쭈뼛거리더니 어느새 한 마디씩 하고 있는 아이들이었다. 많은 기준들이 쏟아져 나왔고 결국 그 모든 것들은 '믿음, 친밀, 애정, 감사, 배려'가치로 묶어볼 수 있었다. 이후 아이들에게 숙제를 내줬 다. '우정'이라는 주제로 본인이 생각나는 우정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수필로 15줄 이상 쓰는 것이었 다.(제목포함) 아이들이 전혀 감을 못 잡길래 내가 아예 나의 경험을 칠판에 수필처럼 써서 보여줬다. 그 때서야 아이들은 감을 잡고 공책에 쓰기 시작했다.

| 언 제 | 2021년 4월 8일(목) | 회 차 | 다섯 번째 시간 |
|----------|---|---|--|
| 수업 내용 | - 수필 써보기(주제: 친구)(2) | 준비물 | 말과글 공책, 필기도구 |
| | - 아이들이 숙제를 다 못해올 것 같아서 사실 오늘 시간에는 숙제 시간을 주는 식으로 가져가려고 했다. 역시나 많은 아이들에 제에 대해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들이 혼자 힘으로 글을 써 그래도 '친구'라는 주제는 아이들에게 굉장히 적합한 주제였다면 한한 친구관계에 대한 욕구가 많이 느껴졌고, 아이들이 혼자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야기를 나누다보니 쓸 거리들이 생각 많았다. 또한 오히려 너무 쓸 거리들이 많아 무엇부터 써야 할 | 이 숙제를 다 서볼 수 있도- 지난 주 수 사서 이야기로 나 곧바로 글 | · 못 해서 아이들과 내가 주록 지원했다업 때 느꼈지만 아이들에게 - 풀어내기 가능한 주제였다 |
| 돌아 보기 | [수업 마무리 교사평가] - 책 하나를 가지고 다양한 방식의 수업을 해보려고 노력했다. 아이들도 책 한 권으로 수업을 한다고 했을 때는 이 수업이 어떻게 흘러갈지 감을 못 잡는 상태였으나, 수업을 하면서 책을 다양한 방식으로 읽어볼 수 있다는 것을 새삼 느꼈던 것 같다. 분명 책과는 연관이 되는 주제지만 계속 책만 가지고 수업하지 않아 아이들이 지루하다고 느끼지는 않았다 맞춤법, 문장부호 쓰기를 정말 많이 신경써서 숙제글을 검사했었는데 마지막 수업으로 갈수록 스스로 점검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고, 틀리는 횟수도 점점 적어졌다. 다음 수업 때도 이 부분을 신경써서 검사해야겠다 원래 수업이 하루 더 남았으나 그날은 다른 활동(장애인의 날 기념 비대면 걷기 행사 참여)에 할애하 | | |

활동까지 꼭 수업해보고 싶다.

- 교사 : 말랑

| 교과 | 말과글(책읽기) | 담당교사 | 말랑 |
|------|--|------|-------|
| 목요일 | 1,2교시 | 대상 | 4,5학년 |
| 수업목표 | 책임기에 재미를 느낄 수 있다. 책을 읽고 내용을 이해하고 줄거리를 파악 할 수 있다. 등장 인물들의 다양한 생각을 이해하고 토론을 할 수 있다. | | |
| 수업내용 |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 읽기, -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내어 읽기 - 독서 퀴즈 풀면서 책 내용 파악하기 - 독서 토론하기 -<마당을 나온 암탉> 읽기 - 다양한 방법으로 소리내어 읽기 - 동물복지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 |
| 수업평가 | 5·6학년 July 책읽기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목표는 책읽기에 재미를 느끼는 것이다. 책을 재미있게 읽으면 글 속의 의미를 찾아가고 이해하는데 큰 호기심이 생긴다. 주제학습 연관하여 알, 새의 생태를 알 수 있는 책을 선정했다. 첫 번째 책은 〈갈매기에게 나는 법을 가르쳐준 고양이〉〈마당을 나온 암탉〉을 읽었다. 병아리와 메추라기를 키우면서 책을 읽으니 더 감정이입이 잘 되고 책 속의 글이 실감나게 다가왔다. 책을 꼼꼼히 읽고 내용을이해와 의미 파악을 위해 독서퀴즈를 꾸준히 풀었다. 책을 읽은 다음 줄거리 파악하기, 주제 찾기, 상상하기와 자신의 의견을 덧붙여 보았다. 더 나아가 책을 읽고 느낀 생각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내 의견과 다른 상대의 의견을 들으며 미처 보지 못했던 글 속의 의미를 찾아가는 수업을 진행하였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글에 숨어 있는 내용 들을 이해하고 나와 내 가족, 이웃들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 까지 확장해 보았다. 독서토론과정을 경험하면서 서로 다른 의견에 대해 듣고 내 생각을 다시 정리해보고 반론도 펼쳐보았다. 책 속에서 토론주제를 찾고 토론을 해가면서 다양한 생각을 만날 수 있었다. 3,4학기 때는 토론 과정을 더 많이 가지려고 한다. 자연스레 읽기능력과 사고력의 성장이 기대되었다. 책읽기를 통해 호기심이 충족되고 지식이 쌓이고, 간접 경험으로 세상을 더 실 | | |

4) 7~9학년

담당 교사

권선영 hjk301400@naver.com

수업 대상

• 7,8학년 10명

수업 시간

금요일 3,4교시 (격주로 수업을 진행함)

수업 목표

- 토론과 글쓰기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하며 자기 언어를 구축한다.
- 사회 이슈를 담은 책을 함께 읽고 비판적 시선을 키운다.
- 읽기, 쓰기, 말하기 등 공동체 구성원의 의사소통을 익힌다.

수업 기록

4월 30일 금요일

내용

- 그림책 〈돌 씹어 먹는 아이〉(송미경 글, 세르주 블로크 그림, 문학동네)
- 문학 속 비유와 상징 읽어내기
- 비경쟁 독서토론 워밍업
- 별점과 읽은 소감, 인상 깊게 본 장면 나누기
- 자유논제: 주인공에게 돌의 의미, 가족의 소통 단절
- 돌의 상징을 내 이야기로 연결하여 말하기
- 글쓰기: 토론 후기 쓰기

평가

- 수업 개괄: 그림책 별점 3.5~5점. 첫 시간이라서 가벼운 그림책을 읽고 아이들의 독해력과 표현력을 살펴봄. 책의 보여지는 이야기 그대로 받아들이다 보니 단편적인 소감에 그쳐 문학 장치와 상징을 읽어내는 방법을 설명함. 비경쟁 독서토론 진행 방식을 다시 한 번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함. 수업 마무리에는 토론 후기나 그림책에 관련된 자유 글쓰기 시간을 배치해서 각자의 글쓰기 숙련도를 파악함.
- 좋았던 점 : 다소 딱딱한 책 읽기 방법을 설명하는데도 집중해서 들음. 강사의 즉흥적인 질문에도 주저 없이 손을 들고 대답하는 적극성이 인상적임. 책 속 다양한 키워드를 중심의 질문을 받고 자기검열 없이 자기 이야기를 함. 첫 시간인데도 솔직하게 생각을 표현해주어 아이들의 성향을 파악

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됨. 학생들의 특이사항을 미리 알고 들어간 덕분에 돌발 상황에도 잘 대처할 수 있었음.

- 어려웠던 점 : 책 내용 중심으로 발제했던 수업자료를 활용하지 못해서 아쉬움. 책 읽기 경험과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책을 통해 자기 이야기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발제가 필요함. 아이들의 컨디션격차가 크게 나서 토론 분위기를 조율하는 데 있어 어려움을 느낌.
- 수업 목표 달성 : 아이들의 독서, 글쓰기, 발표 능력을 확인. 아이들 저마다의 개성을 숙지함. 향후 수업 방향 잡는 데 여러 기준을 정리함.

5월 14일 금요일

내용

- 문학 <페인트>(이희영 글, 창비)
- 별점과 읽은 소감, 인상 깊게 본 장면 나누기
- 자유논제: 출생률 증진을 위한 NC센터, 내가 원하는 부모의 모습,
- 선택논제: 주인공 입장에서 생각해보기((친부모를 따라갈 것인가/부모 면접권 거부할 것인가)
- 글쓰기: 자유 독후감 쓰기

평가

- 수업 개괄: 별점 4~5점. 묵직한 주제와 이야기를 담고 있음에도 흥미진진한 스토리텔링 덕분에 별점이 높은 편. 미래 사회를 배경으로 소개되는 과학 기술 용어를 어렵게 느끼긴 했지만, 각 인물에 집중해서 자기 생각을 풀어냄. 다듬어지지 않았어도 자기 언어로 미성년자의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눔. 특히 자신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부모, 어른에 대한 모델을 언급하며 &자기선택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생들이 있어 의미 있는 시간이었음.
- 좋았던 점 : 분량이 꽤 되는 책인데도 완독률이 높고 문학에 대한 높은 호감을 나타냄. 각 논제에 대한 생각을 자신 있게 표현함. 자기 주관이 없을 때 줄거리 요약에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나라 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유도하여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리드함. 완독을 못한 학생도 토론 후 흥미를 느껴 뒷이야기를 궁금해 하기도 함.
- 어려웠던 점 : 각자 생각을 정리하는 속도가 달라서 골고루 발언권이 주어지도록 분배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낌. 발언을 계속 하려는 학생과 생각 정리에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 사이에서 누구도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서로 배려하고 기다려주는 태도를 숙지시켜야겠음.
- 수업 목표 달성 : 문학으로 토론의 즐거움을 알고, 글쓰기 시간을 충분히 배치해서 자유롭게 독후 감을 쓸 수 있도록 함.

5월 28일 금요일

내용

- 사회 <선생님, 동물 권리가 뭐예요?>(이유미 글, 철수와영희)
- 별점과 읽은 소감, 인상 깊게 본 장면 나누기
- 자유논제: 동물 권리에 대해 새로 알게된 점, 동물을 대하는 태도로 들여다보는 대한민국의 위대함 과 도덕성, 개물림 사고와 번식장
- 선택논제: 동물원의 기능과 필요성
- 글쓰기: 책을 읽고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써보기

평가

- 수업 개괄: 평소 접해보지 않은 동물권에 대한 책이라서 초등 중학년 정도의 책을 선정함. 다양하면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춘 질의응답 구성 덕분에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었다고 함. 동물권에 대한 기본을 다룬 책이라서 개념을 잡는 데 목표를 둠.
- 좋았던 점: 개, 고양이에게 친근함을 느끼는 학생들이 많아 낯선 주제임에도 토론에 열심히 참여함. 반려동물과 함께 살거나 동물권 관련 책을 두루 읽어본 학생들이 있어 다양한 이야기가 나옴. 이 책을 읽고 토론한 후에 스스로 어떤 실천을 할 수 있을지 각자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짐. 토론에 소극적으로 임하던 학생도 각자 실천할 것들을 찾는 모습을 보며 자기 나름대로 이 시간을 의미있게 보내고 있음을 알게 됨. 교사 눈에는 만족스럽지 않은 태도여도, 출발선과 상황, 입장이 다르니 개인별 맞춤식 리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어려웠던 점 : 생소한 주제인데다 주변에서 쉽게 만나는 동물에 대한 생각을 해본 경험이 부족해서 동물권 기본을 다룬 책 내용에서 깊게 나아가질 못함. 쉬운 책이라 아이들 호응은 좋았지만, 토론에 필요한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설명을 보충하여 우리나라 동물이 처한 현실을 알려줌. 반려견 전문 프로그램이 인기리에 방송 중인데도, 펫티켓에 대한 정리가 되어있지 않아서 토론과 강의를 병행해서 진행함.
- 수업 목표 달성: 동물권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고 책과 나를 연결하여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찾는 독후활동을 진행. 육식의 불편한 진실을 알려주고 윤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함.

6월 11일 금요일

내용

- 문학 <수상한 진흙>(루이스 쌔커 지음, 창비)
- 별점과 읽은 소감, 인상 깊게 본 장면 나누기
- 자유논제: 도덕적 기준, 모범생을 대하는 시선, 나를 지키는 힘, 전염병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책과 코로나 시국의 연결
- 글쓰기: 줄거리 요약법 설명

평가

- 수업 개괄: 코로나19로 제한적 일상을 경험하는 요즘 비슷한 주제의 책을 읽고 이야기 나눔. 학교 내 관계에 대한 고민, 갈등을 해결하려는 용기, 전염병을 대하는 태도 등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함. 자유로운 독후감 쓰기에 대해 설명하고 책과 연결한 자기 스토리를 쓰라고 조언. 학교나 기관에서 요구하는 양식이 있음을 설명하고 쉽게 줄거리를 요약할 수 있는 방법을 지도함.
- 좋았던 점 : 문학에 대한 반응이 좋아서 이번 책도 재미있게 읽었다는 소감이 많았음. 또래들 사이에서 경험하는 관계 속 갈등에 대한 자기 생각을 편안하게 나눔. 자기검열 없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보아 교우관계에서 큰 고민이 없는 것으로 보임. 생각 정리에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은 기다려주 었다가 정리 후 발표하게 함. 완독하지 못한 학생도 설명을 차분히 들으며 토론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4강부터 본격적인 글쓰기 수업을 진행했는데 독후감의 정의부터 줄거리 요약법까지 설명함. 평소보다 글 쓰는 분량이 늘아니고 수업이 끝난 후에도 자신의 글을 봐달라면서 가져온 학생들이 다수 있었음. 무턱대고 쓰라고 하기 보다 먼저 쓰는 법을 알려주고 간단히 칭찬 코멘트 해주는 것이주효함.
- 어려웠던 점: 줄거리 요약 방법을 &틀&로 인식한 재원이의 돌발 행동 때문에 분위기가 다소 긴장되었음. 상황을 몰라 허둥대던 와중에 다른 아이들의 설명을 듣고 이해함. 앞으로 글쓰기 수업이계속 진행되는데,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필요함.
- 수업 목표 달성 : 소설과 현재 코로나19를 연결해서 일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 싶었으나 방향이 잘 잡히지 않음. 아직까진 책과 일상을 접목한 독해가 어려운 것 같음. 이야기를 기반으로 하는 소설이라서 그랬을 거라 판단. 비문학 토론 시 다시 시도할 예정.

6월 25일 금요일

내용

- 사회 <십 대를 위한 동화 속 젠더 이야기>(정수임 지음, 팜파스)
- 별점과 읽은 소감, 인상 깊게 본 장면 나누기
- 자유논제: 인간의 아름다움을 향한 욕망, 남자에게 주입된 가부장적 성역할, 혐오
- 선택논제: 잔혹한 동화를 어린이에게 읽혀도 되는가
- 글쓰기: 토론 후 알게 된 것들을 담아 편지 쓰기

평가

- 수업 개괄 : 친근한 동화 속에 숨은 성차별과 고정관념에 갇혀있는 성역할을 구체적으로 짚어봄. 선악으로 구분된 전형적인 인물상을 젠더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아이들의 젠더 감수성을 키움.
- 좋았던 점 : 중학생이 읽기에 텍스트가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 재미있게 읽었다는 소감이 많았음.

딱딱한 비문학도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거나 고정관념을 깨뜨리는 책이라면 호기심을 갖고 읽는 것으로 보임.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존의 성역할과 동화 속 차별과 편견에 대해 다양한 생각을 공유 함. 편집된 동화 말고 원전 그대로 읽어보고 싶다는 의견도 있었음.

- 어려웠던 점 : 사회 이슈인 &혐오&에 대한 토론을 하지 못해 아쉬움이 남음.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고 혐오 관련 내용이 책 후반에 나오는데, 미완독자들이 있어서 충분히 다루지 못함. 매 시간 완독자/미완독자 비율이 비슷한데 책 한 권 완독하는 집중력을 유지하는 연습이 필요해보임. 페미니즘에 대한 오해와 왜곡된 시선을 잡아주는 시간이 필요함.
- 수업 목표 달성 : 동화에 숨은 고정관념을 풀어냄으로써 다양한 각도에서 소설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됨. 무의식적으로 지나쳤던 차별이나 편견, 선과 악이라는 이분법적 논리를 짚어가며 일 상을 구성하는 다양한 가치들에 대해 이야기 나눔.

7월 9일 금요일

내용

- 고전 <동물농장>(조지 오웰 지음, 푸른숲주니어)
- 별점과 읽은 소감, 인상 깊게 본 장면 나누기
- 자유논제: 절대 권력을 위한 정치 수단, 벤저민의 거리두기 행동, 소설의 열린 결말 상상하기
- 선택논제: 사회 지도자와 구성원의 역할
- 글쓰기: 독후감 공개 합평 (3편)

평가

- 수업 개괄: 우화의 개념을 배우고 소설의 상징과 비유를 읽어내는 연습을 함. 절대 권력의 폐해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개인들의 노력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눔. 2교시엔 미리 써낸 독후감 중 3편을 선정해 공개 합평 진행함. 글의 좋았던 점을 학생들에게 찾게 하고 아쉬운 점을 눈높이에 맞게 교 사가 짚어주고 대안을 제시함.
- 좋았던 점 : 우화와 풍자의 개념을 인지하여 소설에 숨은 사회 비판을 찾아냄. 소설 속 동물에 감정이입 하여 공감과 연민을 드러내는 한편, 적당히 거리를 두고 아쉬운 점이나 비판할 지점을 찾기도 함. 미리 독후감을 쓴 후 자기 입장을 가볍게 정리한 상황에서 토론을 진행하니 평소보다 정돈된 발언이 많았음. 학생마다 편차는 있지만 대체로 성장하는 모습을 확인해서 보람을 느낀 수업이었음.
- 어려웠던 점 : 글쓰기 편차가 심해서 과제를 내지 않거나 겨우 문장을 만들어서 낸 학생의 경우 합평의 효과가 떨어져 아쉬움이 남음. 수업 때는 함께 보면 좋을 글을 선정해 진행했지만(그러다보 니 내용적으로 충실하거나 서툴게나마 자기 생각을 풀어낸 글을 실을 수밖에 없었음), 자칫 위화감을 조성할 수도 있어서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함. 그 외의 글은 이번주 중으로 피드백 달아서 메일로 회신할 예정.
- 수업 목표 달성 : 독후감을 먼저 쓰게 한 후 토론에 참여하도록해서 생각을 보다 분명하게 말하는

경험을 하게 함. 자기 글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무엇을 잘하고 어떤 점이 부족한지 파악하여 글쓰 기에 대한 부담을 내려놓는 데 목표.

2. 수학

1) 1학년

| 교과명 | | 수학 | 담당교사 | 소금인형(강은영) | | |
|---|---|-------------------------------|---------------------|------------------------------|-----|--|
| 수업시간 | 월11:00~12 | :00/화14:00~15:00 | 수업대상 | 1학년 | | |
| | (1) 다양한 놀이를 통해 수학의 재미를 느낀다. | | | | | |
| 수업 목표 | (2) 숫자를 순서에 맞게 쓰고 읽을 수 있다. | | | | | |
| | | <u>뺄셈의 기본 원리를</u> | | | | |
| | 월 | 7 | ^즉 제 및 내용 | 함께 할 놀이 | | |
| | 3월 | 1. 수이야기 나누기 | | 주사위 놀이 | | |
| | | 2. 1~9까지 알기(쓰고, 읽고, 양으로 확인하기) | | 비즈놀이 사방치기 | | |
| 수업 내용 | | 1. 1~9까지 지점토 | 만들기 | | | |
| TH 110 | 4,5월 | 2. 1~9까지 가르기 | | 빙고 놀이 클레이로 공기돌 만들기 | | |
| | | 3. 1~9까지 모으기 | | 글데이도 증기를 만들기 | | |
| | (70) | 1. 1~9까지 알기/ | | 산가지 놀이 | | |
| | 6,7월 | | 은 덧셈/ 가르기, 모으기 | 부루마블 제가 | | |
| | | | | | | |
| | | | | 전달되도록 지원이 필요할 것 | | |
| | 보임. | | | | | |
| | | | | 을 알 수 있도록 수업안에서 7 | 지원을 | |
| | 하였고 그것을 통해 수행력이 향상된 것으로 보임. | | | | | |
| | -수학교사(산들) 저학년의 수개념을 충분히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피드백을 듣고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 충분히 할 수 있도록 하였음. 그래서 당초 년 계획과는 다르게 수업진도가 달성되 | | | | | |
| | 조염을 찾혀 중군이 할 수 있도록 이었음. 그네지 중조 한 계획과는 나트게 구립한도가 들었되 지 않는 부분이 있음. | | | | | |
| | -방학숙제로 공기돌 10개를 통해 10이하 숫자에 대한 가르기와 모으기를 자유자재로 할 수 있 | | | | | |
| | 도록 숙제를 내주었음. | | | | | |
| | *Лна ш ль | | | | | |
| | *개별평가 -건우: 1~9까지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음. 하지만 거꾸로 쓰거나 읽는 것에는 간헐적 지원이 | | | | | |
| 수업 평가 | 필요함. 가르기와 모으기에 대한 개념이 아직 잡히지 않아 설명이 필요하고 1:1지원으로 수행 | | | | | |
| | 이 가능함. | | | | | |
| | -지헌: 1~9까지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음. 10을 쓰는 것은 방향이나 위치를 헷갈려 어떤 | | | | | |
| 함. 5이하의 숫자의 가르기와 모으기에 대한 개념이 있으며 방학동안 그 이상 가르기와 모으기를 할 수 있을 것라고 기대함. | | | | | 내인 | |
| | -제이: 1~9까지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음. 10이상의 숫자에 대한 개념도 있으며 자유자재로 쓰 | | | | | |
| | 고 읽기가 가능한 것으로 보면 선행학습이 이뤄진 것으로 보임. 9이하의 가르기와 모으기에 대 | | | | | |
| | 한 개념이 있으나 독립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방학숙제를 통해 기대함. | | | | | |
| | -하린: 1~9까지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음. 5이하의 숫자의 가르기와 모으기에 대한 개념이 있 | | | | | |
| | 으며 방학동안 그 이상의 숫자에 대한 가르기와 모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함. 놀이를 할 때 소유욕이 높아 친구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였지만 설명을 하면 수용하며 조정이 가능 | | | | | |
| | 함. | | | | | |
| | -승언: 1~9까지 쓸 수 있고 읽을 수 있으며 거꾸로 읽거나 쓰는 것이 가능함. 9이하의 가르기 | | | 가르기 | | |
| | 와 모으기에 대한 개념이 있으나 독립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방학숙제를 통해 기대함. | | | | | |

2) 2학년

| 교과명 | 수학 | 담당교사 | 소금인형(강은영) | | |
|-------|---|--|---------------------|--|--|
| 수업시간 | 월11:00~12:00/화14:00~15:0 | 0 수업대상 | 2학년 | | |
| 수업 목표 | (1) 수의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감각을 익힌다. (2) 덧셈, 뺄셈을 할 수 있다. | | | | |
| | 월 | 내용 | 함께 할 놀이 | | |
| 수업 내용 | 1. 1학년때 배운 2. 100까지 수 3. 몇 백 알아보 -세 자리 수 -세 자리 수 | 익히기 기 알아보기 개념 익히기 | 자연물을 이용한 10묶음 놀이 | | |
| | 3. 받아 올림/내 | 할아보기 개념 익히기 크기 비교 세로셈의 이해하기 님 없는 수의 덧셈과 뺄셈 | 모두의 마블 | | |
| | 6,7월 2. 받아 올림/내 | 님이 있는 두 자리수 덧셈과 뺄셈 님이 있는 세 자리수 덧셈과 뺄셈 법을 활용하여 계산하고 익히기 | 숫자 짝궁찾기 놀이 | | |
| 수업 평가 | -3,4월에는 1학년들과 수업을 같이 진행하면서 놀이도 같이 하였음. 놀이를 하는 것은 인원수가 적당하여 서로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4월 이후에는 배우는 내용도 달라지고 그룹 안에서도 수행정도의 차이가 있어 분반을 하였음. 이후 배우는 내용들이 달라지기에 분반이 필수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단기적인 집중력이 좋아 설명을 전체적으로 해주고 각자의 개별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였으며 수학교사(산들)의 피드백으로 묶음 수에 대한 개념을 충분히 익히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여 교구를 활용하여 3자리, 4자리 묶음수에 대해 충분히 수행하였음. 숫자보다 양으로 수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가정내에서도 협조가 필요함. *개별평가 -유하: 3자리 숫자를 읽고 쓰기는 가능하나 4자리수를 읽는 것은 간헐적 지원이 필요하며 받아올림에 있어 암산으로 진행하여 오류가 생기는 경우가 있음. 급하면 손가락으로 계산을 하는 모습도 보이나 이 부분도 수용하여 잘 하고 있다고 피드백을 주고 있음율: 3자리 수나 4자리 수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며 억단위까지 알 수 있음. 받아 올림과 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함. 문장을 해석하여 식을 세우고 답을 찾을 수도 있음안히: 자리 수나 4자리 수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며 5자리수는 헷갈려해서 지원이 필요함. 받아 올림과 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함. 문장을 해석하여 식을 세우고 답을 찾을 수도 있음산회: 자리 수나 4자리 수를 읽고 쓰는 것이 가능하며 5자리수는 헷갈려해서 지원이 필요함. 받아 올림과 내림이 있는 덧셈과 뺄셈이 가능하나 본인이 귀찮다며 하지 않으려고 하거나 주변 친구들 것을 보고 하려고 하여 스스로 천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함민준: 3자리수 읽기는 가능하나 4자리수는 지원이 필요할 때 수행이 가능함. 십의 자리 올림과 내림을 손가락을 이용하여 수행이 가능함. 두자리수 더하기 한자리 수는 가능하나 그 외는 1:1 지원이 필요하며 집중력이 높지 않아 단기간에 자주 문제를 푸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임. | | | | |

3) 3,4학년

| 교과명 | 수학 | 담당교사 | 기린 | | |
|-------|---|------|-------|--|--|
| 수업시간 | 목요일 10:00-14:00 | 수업대상 | 3 4학년 | | |
| 수업 목표 | (1) 구구단 외워보기 (2) 곱셈 문제 쉽게 풀어보기 (2) 나눗셈을 이해해보고 공부해보기 | | | | |
| 수업내용 | 3학년 아이들과는 구구단을 쉽게 외워보기 위해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구구단을 외자 게임을 지속적으로 하기도 했다. 칠판을 이용해 구구단 릴레이 등을 하기도 했다. 바둑판과 알약과 같은 도구를 사용해 곱셈에 대한 개념을 알아보기도 했다. 두자리수 곱하기 한자리수를 계속 풀어보다가 학기 말 즈음에는 세자리 곱하기 한자리수를 풀기도 했다. 아이들에게 문제를 내주고 아이들이 풀면 한사람씩 체점하며 체크해주기도 했다. 지윤이와 다인이는 세자리수 곱하기 세자리수, 그리고 혼합곱셈 등의 문제를 풀기도 했고, 나눗셈의 몫과 나머지 등의 공부를 진행했다. | | | | |
| 수업 평가 | 아이들은 전반적으로 수학을 따분하고 지루하게 생각한다. 그렇지만 막상 문제를 내주면 그것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풀어내는 과정을 거친다. 그것이 수학을 하는 이유인 것 같다. 특히 친구들과 함께 고민하며 풀어내는 시간이 약간의 경쟁심을 유발하기도 하는 순기능도 있다. 서로에게 물어보며 풀어내기도 하고 옆에 친구의 속도에 맞춰 나도 그만큼 따라가려고 하기도 한다. 아이들에게 처음에 난이도 설정을 잘 못했다. 두자리수 곱하기 두자리수를 쉽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런데 두자리수 곱하기 두자리수의 개념은 오름의 개념이 있어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다. 그래서 다시 난이도 조정을 했다. 그럼에도 실력이 단번에 늘진 않았다. 꾸준하게 하고 집에서도 병행해야 한다. 학기 중 수학이 대안교육스러운 것이 어떤 것인지 생각을 해봤지만 뚜렷한 답이나오지는 않았지만, 기존에 있는 자료들과 다른 곳에서 하는 것들을 도입해서 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그리고 지윤이와 다인이는 이미 나눗셈도 거의 이해하고 넘어서는수준이고 많은 3학년 아이들은 아직 구구단도 익숙하지 않은 상황이다. 처음부터 34학년 같이 수학을 한다는 것이 가능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래서 2학기 때는 두명이 통합반에서 수업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다. 둘에게도 의사를 물어봤는데 괜찮다고 답했다. 현우가 수학을 그렇게 하기 싫어했는데 집에서도 꾸준히 하고 본인이 풀 수 있다고 느꼈을 때 그나마 흥미를 가졌었다. 아이들이 수학을 지루해하지 않으려면 일단 수월하게 풀 수 있어야 하고 성취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할 것 같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을아이들에게 다양하게 제시해야 하고, 진도를 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일단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할 것 같다. | | | | |

다인: 지윤이가 모르는 것을 도와주면서 해서 뿌듯했다. 몸놀이보다는 재미없지만 할 만하다. 곱하기는 쉽고 나누기도 어렵지 않다.

주안: 다 조용히 해서 편했다. 평면도형을 배우고 싶다. 재밌었다.

겸: 재밌었다. 세자리수 곱하기 한자리수 재밌었다. 새로운 방법으로 해서 재밌었다. 두자리수 곱하기 두자리수는 어렵다.

현우: 언제는 재미있고 언제는 재미없다. 문제를 풀고 놀이로 할땐 재밌다. 구구단을 외우는 것을 좀 어렵다.

지윤: 힘들었다. 다인이가 도와줘서 좋았고, 수학 한편으로 재밌었다.

하엘: 힘들다. 두자리수 곱하기 두자리수 어렵다. 구구단이 안 외워진다. 고정관념이 잘 안바뀐다.

예서: 힘들다. 그래도 쉬운 게 많다. 머리로 해야하니 복잡하다. 수학은 왜 해야되는걸까.

초아: 수학에 대한 내 실력은 그저 그렇다. 못하는 것도 아니고 잘하는 것도 아니다.

4) 5학년

- 1박

| 교과 | 5학년 수학 | 담당교사 | 말랑 | | |
|------|--|------|-----|--|--|
| 시간 | 수요일 1,2교시 | 대상 | 5학년 | | |
| 수업목표 | •실생활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수학적 사고를 도입하여 수학의 유용성과 필요성을 느낄 수 있다. •수학 공부에 대한 흥미를 가질 수 있다. | | | | |
| 수업내용 | - 대응과 규칙 - 약수와 배수 - 분수의 개념과 연산 | | | | |
| 수업평가 | 5학년을 두 반으로 나누어 수업을 했다. 아이들 수가 7명으로 줄어드니까 훨씬 수학 시간이 여유있고 안정스러웠다. 실생활 관련된, 대응과 규칙에서 규칙성 찾기, 약수, 배수, 통분, 분수의 덧뺄셈에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을 통해 수학의 유용성을 느끼고 수학에 흥미를 가지길 기대했다. 약수 배수 관계, 분수의 덧뺄셈을 배우면서 분수의 개념을다시 짚어보았다. 공평하게 나누는데 필요한 분수, 분모와 분자의 의미, 등분의 뜻과 양감 | | | | |

을 느끼기 위해 조작 활동을 더 많이 하려고 노력했다.

수학은 수식을 그래프나 도식으로 변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분수 연산에서도 도식으로 변환하여 표현하도록 했다. 분수의 수학표기의 의미를 알고 이해한다면 수학의 언어를 한가지 아는 것이다. 분수라는 수학 언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기도 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의 수학 개념,원리 이해와 수학 감각, 연산 실력이 차이가 크게 생기는 것 같다. 또한 나눗셈에서 수학을 좋아하고 싫어 하고가 나뉘 어진다고 했는데 5학년 아이들을 보니 실감이 났다. 연산 부분에서 곱셈, 나눗셈에 대한 긴장감을 줄이도록 꾸준히 연산 문제를 과제를 내주었다. 특히 장원이는 나눗셈을 시작하려고 하지 않고 싫고 두려운 마음이 컸다. 그래서 두자리수 나눗셈부터 할 수 있도록 쉬운 문제를 내주었다. 수학 개념과 원리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감각 조작 활동으로 수업을 시작하니 수업 분위기가 훨씬 밝고 아이들도 부담 없이 도전했다. 수학 문제를 풀어 갈 때 답이 맞는지 틀린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하도록 했다.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기가 훨씬 밝고 아이들도 부담 없이 도전했다. 수학 문제를 풀어 갈 때 답이 맞는지 틀린지에만 집중하지 않고 문제풀이 과정을 설명하도록 했다. 그래서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식을 도형화하거나 비주얼화하는 과정을 가졌다. 처음에는 도형화하는 것을 귀찮아했는데 그림을 그리니 결과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되어서 재미나다고했다. 아이들마다 수학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는지 알 수 있었다. 수학 문제 상황을 다시 한 번 확인해보고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와 어떤 방법을 이용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설명하는 시간을 사전에 가지면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도움이 되었다.

- 2반

| 교과명 | 수학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수 10:00 ~ 12:00 | 수업대상 | 5학년 (참여학생: 민성, 해니, 해솔, 하람, 호윤, 원준, 정윤) |
| 수업 목표 | 1. 수학에 대해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수학의 필요성과 유용성의 가치를 인식할 수 있다. 2. 학습을 통해 수학적 사고력의 힘을 길러 일상생활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통찰력을 기른다. | | |
| 수업 내용 | 1. 자연수의 혼합계산 1) 덧셈과 뺄셈이 섞여 있는 수 2)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이 3) 괄호가 섞여 있는 식 계산하 2. 약수와 배수 1) 개념 익히기 2) 약수와 배수 구하는 방법 일 3) 공약수와 최대공약수, 공배수 3. 약분과 통분 1) 크기가 같은 분수 알아보기 2) 분수를 간단하게 나타내어 3 | 섞여 있는 식 계산하기 하기 발기 수와 최대공배수 구하기 보기 | |

| | 4. 분수의 덧셈과 뺄셈 |
|-------|---|
| | 1)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 |
| | 2) 분모가 다른 분수의 뺄셈 |
| | |
| 수업 평가 | 5학년 수학 수업을 두 개의 반으로 나눠 진행한 건 수업 진행에 탁월한 선택이었다. 수업을 진행하며 아이들의 수업 이해도를 확인하기 편했다. 다음 학기에도 그대로 진행하면 좋겠다. 인원 구성 변화는 없어도 될 것 같다. 아이들과 수업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점은 배웠던 내용이 계속해서 다른 형태로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이전에 배운 내용이 다음 진도에서 또 나오는 걸 아이들이 직접 보니 결국 수학에서 배우는 내용들이 다 연결되어 있음을 같이 확인할 수 있었다. '약분과 통분'부분 진도가 가장 많이 늦어져서 뒷부분인 분모가 다른 분수의 덧셈과 뺄셈을 하긴 했는데 제대로 다루지 못해서 아쉽다. 그래도 그만큼 분수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여러 활동들을 시도할 수 있어서 이 부분의 평가는 양날의 검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수학익힘책을 숙제용 교재로 정한 건 잘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아이들의 수준과 크게 동떨어지지 않고 적당한 양의 문제들이 있어 숙제로 내주기 적합했다. 수업을 준비할 때도 수학의 함책 내용과 순서를 고려하며 수업을 준비하고 진행했다. 숙제를 안 해오는 학생들이 많아서 진도 확인에 어려움을 겪은 일이 많았다. 숙제를 끝까지 안 해오는 학생도 있었다. 결국 끝까지 학교에서 남아서 다 하고 가게끔 했는데 이건 교사를 너무 피로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집에서 꾸준히 숙제를 해올 수 있게끔 가정과의 소통도 필요하겠다. |

5) 6학년

| 교과명 | 수학 | 담당교사 | 산들 | | |
|-------|---|---|-----|--|--|
| 수업시간 | 수요일 1~2교시 | 수업대상 | 6학년 | | |
| 수업 목표 | - 수업 내용을 생활과 연결시키 - 토의와 모둠활동을 통해 생기 | 를 통해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스스로 발견해 본다 생활과 연결시켜 수학 공부의 이유를 느끼고 배움을 확장한다 활동을 통해 생각하고 얘기를 나누면서 논리적인 사고력을 기른다. 통해 성취감을 느끼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을 기른다. | | | |
| 수업 내용 | ●분수의 이해 -분수가 생겨난 이유와 진분·-통분과 약분 -분수의 연산(덧셈, 뺄셈, 곱·●소수 -소수와 분수의 관계 -소수의 연산 -소수와 분수의 혼합계산 ●비례식 -비와 비율, 백분율과 할푼리 | 의 의미 | ·보기 | | |

| | ◉평면도형 |
|-------|---|
| | -다각형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 특징별로 구분 |
| | ●입체도형, 회전체 |
| | -입체도형의 종류와 특징 구별 |
| | - 올해 6학년 친구들은 한명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수업내용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 내는 속도가 비슷해서 전체가 함께 속도를 맞춰 나가는 수업이 어렵지 않았다.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활동수학으로 도입하기도 하고 때론 수학적 기호와 논리를 이용한 형식적 도입도 시도해보면서 다양한 방식으로 개념을 잡아보는 시도를 해보았다. 개념을 익히고 난 후 수준을 다양하게 나누어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했으나 기본적인 문제부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까지 흥미 있게 잘 해나가는 모습이었다. |
| 수업 평가 | -한 학생은 5학년 때 배운 내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분수와 소수에 대한 개념은 잡혀있지 않은 채 셈하는 방식만 도구적으로 알고 있었으며 '반'을 숫자로 표현 하면 얼마일까 하는 질문에 5라고 대답하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다른 친구들과 함께 수업에 참여하는 것은 어려웠고 개인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하여 담임선생님과 부모님과 함께 상의한 후 분수와 소수의 개념을 처음부터 다시 배울 수 있는 5학년 수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결정 과정에서 아이는 여러 번울기도 하는 등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현재 아이에게 적합하고 필요한 과정을 배울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학기의 남은 시간은 5학년들과 함께 수업 할 수 있었다. |
| 수업 평가 | -이런 상황이 6학년에만 있는 것은 아니리라 생각한다. 같은 학년 안에서 수학개념을 이해하고 문제를 풀어내는 속도와 방식에서 차이가 나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서 같은 수업상황을 경험한다는 것이 아이들이나 수업을 하는 선생님 입장에서나 모두 어려움 이 있을 것이다. 반복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식의 수학수업 을 도입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

6) 7~9학년

| 교과명 | 수학 | 담당교사 | 산들 |
|-------|---|------|------------------------------------|
| 수업시간 | 목요일 1-2교시(7학년) 목요일 3-4교시(8학년) | 수업대상 | 7~8학년 |
| 수업 목표 | 목요일 3-4교시(8학년) (1) 수학적 개념이 만들어진 역사적 과정을 따라 고찰해보는 시간을 통해 수학이 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다. (2) 각 단원의 학습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의 힘을 길러 일상생활에 요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사고력과 통찰력을 기른다. (3) 자기주도적 학습방식을 이용하여 각자 자신의 수학학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함으로써 학습에 대한 자발성을 기를 수 있도록 한다. | | 의 힘을 길러 일상생활에 필 학습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 |
| 수업 내용 | 각자 아이들마다 모두 다른 내용을 하고 있다. | | |

-올해는 처음 수학수업을 진행하기 전 수업을 선택한 학생들과 1:1 상담을 통해 왜 수학수업을 선택했는지 이야기를 들어보고 수학학습에 대한 개인적인 어려움과 필요한도움이 무엇인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일년동안 자신이 끝내고 싶은 수학학습 범위를 설정하고 그것을 실천해내기 위해 수업시간 이외 자신의 일주일간 학습량도 스스로 결정하는 계획을 잡았다. 이 면담과정이 아이들에게 좋은 출발이되었던 것 같다. 아직까지 아이들이 수학 수업을 '하기는 싫지만 꼭 해야만 할 것 같아서' 선택하긴 했지만 그 선택한 것을 계획에 맞게 실행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학기내내 가질 수 있도록 한 것이 처음 면담의 시간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

수업 평가

-상담을 통해 각자에게 맞는 수학 문제집을 선택하고 각자 서로 다른 내용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철저히 개별화된 수업이기에 아이들은 서로의 학습 속도를 비교하지 않고 자신의 속도에 집중할 수 있었으며 수업시간 이후 개인의 과제양도 스스로 결정하여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신의 계획대로 학습을 진행해 나갈 수 있었다. 이전에는 아이들이 수업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하고 연습하는 과제를 잘 해오지 않아서 그 다음 주 수업시간에 전의 배운 것을 복기하느라 제대로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는 것이 어려웠는데 올해에는 아이들이 자신이 정한 과제를 성실히 해오는 덕분에 학기 초에 계획한 대로 수학 학습이 잘 진행되어 나갈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업자료가 아이들마다 모두 다르고 각자의 문제에 집중하는 방식이다 보니 수학수업 시간에 서로의 의견을 나누고 협력하는 역동적인 모습을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은 채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함께 협력해서 어렵고도 재미 있는 여러 수학 문제를 풀어보는 시간을 학기 중에 마련해보아야 겠다는 생각이 든다.

3. 주제학습

1) 1,2학년 생태나들이

| 교과명 | 생태나들이 | | 담당교사 | 남정화(종다리) |
|-------|---------------|--|--|----------|
| 수업시간 | 목요일 10:00~12: | 00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 목표 | 2. 마을산의 자연과 관 | 를 따라 자연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며 '자연스럽게' 사는 법을 배운다. 계 맺으며 순환과 생명 사랑을 배운다. 체력을 기르고 자연놀이를 통해 함께하는 즐거움을 찾는다. | | |
| | 얼 | | 수업내용 | |
| | 3월 | -몸과 마음 열기 -안전을 위한 약속 정하기 -〈코를 킁킁〉읽고, 목련꽃차 마시며 봄 만나기 -목련겨울는 껍질로 마녀손톱, 콧수염, 토끼 표현하기 -냉이, 쑥 등 봄나물 찾아 캐고 관찰(민들레가 나물 해주심) -솜털 숭숭 앵두나무 겨울는 관찰 -개구리알 도롱뇽알 찾고 관찰 -개구리 관찰 -새싹이 나오기 시작한 앵두나무 관찰 -봄꽃으로 디자인한 꽃과자 만들어 먹기 -새 둥지 관찰 및 생태동화 듣기 -우리들의 아지트 만들기 -힘없는 가재 만나 구출해주기 -개구리, 개구리알, 도롱뇽알 관찰 -꽃이 진 자리에 열린 초록 앵두 열매 관찰 -아까시나무꽃 관찰, 맛보기, 파마하기 -찔레순 맛보기 -배추나비 알, 애벌레, 나비 관찰 -맨발로 하늘거울 보며 걸어보기 -비오는 나들이 및 빗물 모으며 놀기 -뒷다리 나온 올챙이 및 개구리와 도롱뇽 올챙이 차이점 관찰(**) | | 토끼 표현하기 |
| | 4월 | | | |
| 수업 내용 | 5월 | | | |
| | 6월 | -햇빛이 -보리수 -동네 · -자연이 -개울어 -개울 · | -뒷다리 나온 올챙이 및 개구리와 도롱뇽 올챙이 차이점 관칠 -숲에서 읽는 생태동화 <나뭇잎 손님과 애벌레 미용사> -햇빛이 익힌 앵두 따먹기 -보리수나무 열매 먹고 씨앗 멀리 보내기 -동네 농장에서 얻은 살구 맛보기 -자연이 익히는 딸기 따먹기 -개울에서 놀기, 배 띄우기 -개울 수영장 및 뱀딸기 케이크 만들기 -아름다운 빛깔의 광대노린재 관찰 -아가미가 없어지며 산으로 가는 도롱뇽 관찰 | |

| 7월 | -커다란 대벌레 만남 -칡줄기로 물이 지나는 길 물관 실험 및 비눗물 놀이 -숨쉬는 나뭇잎 증산작용 실험 -때늦은 등나무꽃 한줄기 보고 생각 나누기 -산으로 가기 직전의 도롱뇽 관찰 |
|----|---|
|----|---|

자연을 만나며 철 따라 자연스럽게 사는 법을 아이들과 배우고 싶었다. 먹거리가 자연에서 나오는 것이며 햇빛과 작은 생명들이 있어야 건강한 생태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리고 우리도 그 구성원 중 하나라는 것을 몸으로 익히고 싶었다.

역시나 아이들에게 자연은 교과서가 되어주어서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잘 받아들이고 스스로 깨우쳤다.

생태나들이 시간이 처음일 1학년들은 학기 초에 모든 게 신기하고 재미있고 자연에 대한 사랑이 넘쳤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것들을 가져가고 싶어하고 데려가고 싶어했다. 초반엔 수첩과 펜을 가져와 차분히 앉아서 그림을 그리고 메모를 하는 놀라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으나 시간이지나며 온몸으로 자연을 만났다. 또한 2학년들이 이야기할 때 무조건 수긍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점차 자신의 의견을 내는 모습도 보였다. 2학년들은 작년과 비교해 여러 면에서 안정적인모습이었고 동생들에게 언니, 형으로써의 여유로운 모습을 보이고 놀이도 열심이었다.

우리 주변, 우리 학교의 관찰부터 하였는데 일찍 꽃이 피는 앵두나무는 처음에 앙상한 가지에 작은 겨울눈으로 만났는데 이른 봄에 꽃이 피고 솜털 보송한 잎이 나고, 그 곳에 깃들어 사는 벌레를 만나고 꽃이 진 자리에 작은 열매가 열려 빨갛게 익고 지는 모습까지 관찰 할 수 있었다. 매일 학교에서 만나는 앵두나무이지만 언제나 적극적으로 새롭고 변화된 모습을 찾아냈다. 텃밭에서 애벌레가 배춧잎을 먹는 모습을 보고 왜 배추흰나비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알게 되었다.

놀이의 확장이 잘되어 다음 그 다음 시간까지 이어지는 활동들이 많았으며 그런 놀이에 모두 각자 역할을 찾아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는 모습이 예뻤다.

냉이, 쑥, 진달래, 아까시꽃, 찔레순, 앵두, 보리수 등을 먹었는데 아무래도 익숙치 않은 맛이었지만 먹거리가 자연에서 나온다는 걸 몸으로 알게 되었다. 민들레가 아이들이 캔 냉이로 나물을 해주셔서 감사했다. 자연은 계획대로 되는 게 아니어서 수업 계획안은 있지만 언제나 아이들이 찾아내는 수업 꺼리들로 채워졌다. 지나고 보면 신기하게 계획안과 맞아떨어졌다. 그것이제 철이 아닌가 싶다. 나들이가 익숙치 않은 아이들도 있어서 조금씩 범위를 넓혀 이동을 하였는데 그래도 비가 오거나 더운 날은 지치고 힘들어하기도 했다. 3월에 비하면 활동 범위나 체력이 좋아졌음은 당연하다. 하지만 체력이 좋고 익숙한 아이들에겐 조금 심심한 나들이였을 수도 있었겠다. 2학기엔 조금 먼 곳까지 가보며 체력도 기르고 새로운 것들도 만나봐야겠다.

생태나들이 이후 오후에 노을이랑 하는 말과글 시간에 오전에 만난 것들에 대한 수업이 이어졌는데 나들이 때 있었던 것들을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고 있고 여러 방식으로 표현해내는 모습들이 놀라웠다. 나들이와 연계한 수업의 장점이라 할 수 있겠다.

2학기엔 아이들의 바람을 담아 조금 먼 나들이와 자연에 숨어 있는 수학, 과학을 좀 더 탐구해 봐야겠다.

수업 평가

2) 3,4학년 마을 어르신 소통

| 교과명 | 주제학습(어르신과 소통하는 행복한 송내동) | | 담당교사 | 소금인형(강은영), 기린 |
|-------|---|------------------------------|--|-------------------------------|
| 수업시간 | 목요일14:00~16:00 | | 수업대상 | 3,4학년 9명ㄹ |
| 수업 목표 | (1) 마을 내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해를 하는 시간 마련 (2) 어르신들과 학생이 만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소통의 장을 가짐 (3) 요리나 생활용품을 함께 배우고 만들면서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가짐 | | | |
| | | | | |
| | 월 | 주제 활동 없음 | - 코로나로 경로당이나 주간. | 보호센터 방문이 제한적 |
| | 3,4월 | | 이라 활동이 어려웠음. | 고 스토으 자 하기 이하 |
| 수업 내용 | 5,6월 | 어르신들과 소통 생활용품배우기 음식배우기 | - 어드선들의 특성을 이해하는 방법들을 배우는 수업 참여 - 생활용품 배우기(손 소독제, - 어르신들에게 전해 주고 싶 만들기, 감자샐러드 만들기) | 천연비누, 모기기피제) 싶은 음식 배우기(과일청 |
| | 7월 | 생활용품 어르신들게 나눠 드리기 | - 어르신들이 많이 모여 계신 의도로 만들었는지 설명하고 | _ |
| 수업 평가 | -만들기에 관심이 많았고 아이들이 전체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였으나 인원수가 많고 외부 활동이 많다 보니 어수선한 분위기도 있었음저학년이고 인원수가 많다보니 개별적인 활동보다 소그룹으로 할 수 있는 활동을 유도하였고 이를 통해 역할수행을 잘 진행이 되었음마을 안의 어르신들을 만나기 위해 경로당과 주간보호센터를 방문하고자 하였으나 코로나로 방문이 제한적이라 나눔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음. 하반기에 음식보다 생활용품을 만들어 나눔을 해야 하는 새로운 방향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배우는 즐거움이 크고 아직은 저학년이다 보니 수업의 의도가 잘 전달되지 않아 나눔보다는만들 것을 본인들이 가지거나 집에 계신 할머니, 할아버지를 가져다 주는 것에 욕구가 더 많았음나눔에 대한 설명과 이 수업의 취지를 설명하여 1회 공원으로 나가서 본인들이 만든 생활용품 중심으로 나눔을 실시하였을때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도 보였음2학기에는 어르신들에게 배우는 수업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코로나로 한계가 있어 구체적인 방향전환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3) 5,6학년 영상만들기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 수업시간 | 13:30 ~ 15:2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 수업날짜 | 2021년 5월 6일 | 차시 | 1 | |
| 수업 목표 | 1. 주제학습(영상 만들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 2. 주제학습 시 지켜야 하는 약속을 정하여 적극적이고 활발한 수업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 | | | |
| 수업 내용 | | | | |
| 수업 평가 | - 아이들이 약속을 정하는 전 교 - 교사로서 약속을 잊지 않고 질 |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 | 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0:00 ~ 12:00 | 수업 | 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5월 11일 | 차 | 시 | 2 |
| 수업 목표 | 1. 주제학습에 필요한 팀을 구성 2. 만들어 볼 영상의 주제 혹은 | | 치한다. | |
| | - 팀 구성을 완료했다. 연기자팀은 손쉽게 꾸려졌는데 촬영팀과 작가팀이 꾸려지지 않았다. 전부 편집을 하고 싶어했다. 정말로 아이들이 한 치의 양보도 없어서 무서울 정도였다. 어떻게든 연결이 되는 지점을 모으고 모아서 결국 촬영팀과 대본+편집팀으로 나누는 것으로 결정이 됐고, 아이들이 원하는 팀에 들어갔다. 아이들 모두 만족해해서 다행이었다. | | | |
| | 역할 연기자팀 촬영팀 대본+편집팀 | 이름 준오, 은강, 찬솔, 은준 상필, 지인 팀 민성, 희주, 예령, 주희 | | ., 은강, 찬솔, 은준 상필, 지인 |
| 수업 내용 | 는 대주제 안에서 어떤 이야? 하고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 ? 는데 시켜보길 잘했다. 아이들다. 그것은 바로 '일상 VS 연간이 끝난 후 투표를 해보니기를 다루고 싶은지 들어보니던 <비밀의 방>이야기를 로디고 대답했다. 아이들은 그것도 바빴다. 특히 살인사건물로 ? | 헤맬 것 같아서 기를 다루고 싶어 정리를 어려워 할 들의 의견을 종합 기'였다. 쉬는 시 만장일치로 연기 추리물이 인기기 다가 꺼내면서 아 도 추리물이었다리 자꾸 몰아가는 기 | 대주제는 '학교' 하는지 굉장히 · 것 같아서 마인 해서 받아보니 간을 주고 생각 쪽을 다루고 싶 많았다. 몇 년 이들보고 그 연 나는 것을 알아차 | 는 상태로 주제를 정하라고 던지임을 밝혔다. 아이들이 '학교'라 궁금했다. 오래 걸릴 것 같기도 1드맵으로 한 번 정리를 시켜봤 크게 두 가지의 의견으로 갈렸 좀 더 해보라고 했다. 쉬는 시원이했다. 연기 중에서도 어떤 연전에 789학년에서 연극을 올렸극이 생각나냐고 묻자 생각난다리고 나서 이야기를 지어내기에 교사 입장에서는 살인사건을 이라는 주제로 다수히 재미있는 |

주제로 영상을 만들어내는게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았다. 살인이라는 주제로 단순히 재미있는 영상을 만들기도 어렵고, 연기하는 아이들이 감정선을 끝까지 잡아 연기를 펼칠 수 있을지 의문이 들기도 했다. 아이들에게는 "살인사건 보다는 이런게 어떨까?"라고 물어보며 당장 드 는 내 생각들을 빠르게 얘기해주었다. 다행히 호응이 꽤 좋았다. 다음 시간인 목요일에 확정 짓기로 했다. 그 날에는 주제와 형식이 모두 정한 다음 팀별 시간을 주려고 한다.

수업 평가

- 팀별 구성이 처음에는 생각보다 조율이 힘들었지만 아이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수렴하고 교사 가 원래 정한 틀을 수정하며 다행히 팀을 구성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이런 순간들이 많을 것 같으니 그 때마다 유연한 사고를 잃으면 안 되겠다.
- 주제를 한정지어 준 것은 효과적이었다. 그리고 그 한정된 주제가 아이들과 연관이 깊으니 오히려 여러 아이디어들이 도출될 수 있었다.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3:30 ~ 15:2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5월 13일 | 차시 | 3 |
| 수업 목표 | 1. 영상 줄거리를 확정한다. | | |
| 수업 내용 | ('왜', '무엇을', '어떻게' 라는 를 활용했다. 아이들에게 로즈에 정한 추리물 장르를 어떤 가 사라진 학교'에 대해서 이는 먼저 〈어떻게〉라는 질문을 기트리를 만들어보았다. 그 결교 이야기 내용: 주인공 4명은 학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이 사라져 있다. 그리고 그렇아무도 기억하지 않는다. 그렇은 4명의 교사가 사라지면서 발견하고 만다!그리고 꿈그 날 교사가 모두 사라진 학 - 편집+대본팀에게 숙제를 줬다대사들은 꼭 완벽하게 완성하 | 나지고 시작했다. 그리고 <왜>, < 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엄청 혼나고 며 잠을 잔다. 다음날 아침 아이 게 하루가 지날 때마다 하나씩 서 렇게 4명의 교사가 사라지고 이수 남긴 암호를 찾아내고야 만다. 임 에서 깬다. 꿈에서 깬 아이들은 교를 만나게 된다 나. 처음부터 끝까지 대본 틀을 찌 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실제 들을 간단하게 설명해주었다. 대 | 등 의견을 정리할 수 있는 방법)'에 맞춰서 진행했다. 지난 시간을 나눠본 후 최종적으로 '교사무엇을〉이라는 질문으로도 로직 집으로 돌아간다. 그리고 교사들이 학교를 갔는데 교사 한 명사라지고, 심지어 사라진 교사를 상한 낌새를 느낀 4명의 아이들 방호를 맞춰본 후 사라진 교사를 찜찜한 기분으로 학교를 가고, 사오는 것이었다, 안에 들어가는 대본처럼 쓸 수 있도록 장면 나 |
| 수업 평가 | 식은 중, 고등학교에서 쓰면 | 설명하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웠고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이야기를 · 2히려 마인드맵이 더 나았을 수도 | 구성할 때도 이 방식이 크게 적 |

| | I |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수업시간 | 10:00 ~ 12:0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5월 18일 | 차시 | 4 |
| 수업 목표 | 1. 영상 줄거리와 캐릭터에 대한 2. 각 팀별로 영상촬영에 필요한 | t 반 학생 전체의 의견을 정리하 ⁽ t 것들을 준비한다. | 여 하나로 모은다. |
| 수업 내용 | 팀과 촬영팀이 듣고 나서 질역 - 오늘은 팀별로 활동했다. 대한은 장면을 그림으로 만들어보 팀은 2017년도 대안학교연극 발성에 필요한 복식호흡을 연 | 이용하여 대본의 대략적인 틀고 리응답 시간을 가졌다. 근+편집팀은 컴퓨터 한글파일로 을 고 필요한 준비물이나 계획들을 제에 산학교가 출품했던 작품인 [습해봤다. 또박또박 대사를 읽어]고 일부 구간 대사를 외워보는 ³ | 유겨쓰기와 대사를 썼다. 촬영팀 정리하는 작업을 했다. 연기자 <진실게임> 일부를 연기해보고, 보며 자기 목소리가 어떤지 녹 |
| 수업 평가 | | 재밌어 하기도 하지만 실제 작약을 마련하는 것도 교사의 몫이겠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3:30 ~ 15:2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5월 20일 | 차시 | 5 |
| 수업 목표 | 1. 각 팀별로 영상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 | |
| 수업 내용 | - 주제학습 2시간 중 1시간을 말과글 마무리 단계에 써서 이번 주제학습은 한 시간만 썼다 편집+대본팀이 대본을 거의 완성해나가고 있는 단계다 연기자팀과 촬영팀이 포스터 촬영을 위해 어떤 포스터를 참고하면 좋을지 영화 포스터를 인 터넷에서 검색해보았다. | | |
| 수업 평가 | - 앞으로 말과글 수업도 시간 배분을 잘 해야할 것 같다. 목요일에 말과글과 주제학습이 붙어 있어서 오늘과 같은 일이 비슷하게라도 또 생길 것 같다. 최대한 영상 촬영에는 지장이 가지 않게 해야겠다.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0:00 ~ 12:0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5월 25일 | 차시 | 6 |
| 수업 목표 | 1. 각 팀별로 영상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 | |
| 수업 내용 | - 대본+편집팀이 대본을 거의 완성했다. 지금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 암호를 어떻게 만들고 해석할 지 논의중이다 연기자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참고할만한 영화 포스터를 찾아보았다. 4명이서 합의된 3장의 포스터를 로다에게 보여주었고 로다가 인쇄해서 촬영팀에게 넘겼다. 그 포스터를 바탕으로 포스터 촬영을 해야 한다 촬영팀은 이제 사람과 장소를 섭외해야 한다. 리스트를 작성해보고 초상권이용동의서를 만들어보았다. 오늘은 지인이가 파도에게 초상권이용동의서를 받았다. 촬영팀에게 금요일까지 섭외해야 하는 사람들의 초상권이용동의서를 다 받아오라고 했다. | | |
| 수업 평가 | - 아이들에겐 초상권이용동의서를 만들고 사인을 받아오는 작업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든다. 하지만 그래도 해야 하는 필수 작업 중 하나였기 때문에 나는 최소한의 도움만 주고 촬영팀 아이들에게 맡길 수밖에 없었다. 대본 공유가 안 되는 상태에서 출연을 요구하고 초상권이용동의서를 받는 부분에 대한 파도의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나 또한 그 문제에 공감하는바다, 다음에는 꼭 시정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3:30 ~ 15:2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5월 28일 | 차시 | 7 |
| 수업 목표 | 1. 각 팀별로 영상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 | |
| 수업 내용 | - 원래 목요일에 주제학습을 해야 하는데 아이들과 하는 오전 수업인 말과글 토론이 길어져서 주제학습 시간을 금요일로 넘겼다 대본+편집팀은 여전히 대본 작업 중이다. 암호 부분을 거의 완성하고 있는 단계다 촬영팀과 연기자팀은 오늘 포스터 촬영을 했다. 오늘 찬솔이가 안 와서 찬솔이는 다음 수업 때 촬영해야 한다. 은준이랑 은강이가 싸웠다. 이유는 은강이가 포스터촬영 때 쓸 소품이 없는 사람인데 소품을 쓰는 다른 멤버들이 부러워서 은준이의 돋보기 소품을 가져가버렸기 때문이었다. 은강이의 마음은 알아주되 잘못된 행동임을 알려주었고 촬영팀에게 한 번 더 은강이가 소품을 쓸 수 있도록 포스터 촬영계획을 바꿀 수 있는지 물어보았다. 촬영팀은 대본+편집팀에게 가서 어떤 소품이 은강이의 역할과 잘 어울릴지 논의한 결과 암호 쪽지를 들고 촬영하기로 합의를 봤다. 옥신각신 하느라 또 시간을 많이 썼다. 그래도 촬영은 대략 했고 은 강이를 많이 못 찍은 것 같아서 일단 다음 시간에 연기자 3명 사진을 먼저 보고 나서 다음 | | |
| 수업 평가 | - 아이들에게 공평함이 중요하다한 부분까지 잘 챙겨야겠다. | 나는 사실을 여기서 또 한 번 알 | 수 있었다. 다음에는 이런 세심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0:00 ~ 12:0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6월 1일 | 차시 | 8 |
| 수업 목표 | 1. 각 팀별로 영상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 | |
| 수업 내용 | 편집+대본팀이 드디어 1차 원고를 만들어냈다. 아이들이 엄청 신나하고 뿌듯해했다. 이어서 수정 작업을 같이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지시문을 많이 안 써놓은 점, 실제 있어야 하는 부분이 사라져 있는 점, 대사 수정 등 생각보다 건드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었다. 교사가 아이들과 다 보지는 못했지만 팀원들이 끝까지 작업을 다시 했다. 촬영팀과 연기자팀은 오늘도 포스터 촬영을 했다. 이전 사진들을 다시 보니 쓸 만한 사진을 많이 못 발견했기 때문이다. 찬솔이는 특히 지난 주 금요일에 없었어서 아예 새로 촬영을 해야 했다. 아이들이 다시 찍어왔고, 그 중에서 몇 가지 괜찮아 보이는 사진들로 골라놨다. | | |
| 수업 평가 | - 아이들의 실력을 끌어낼 수 있는 지도가 필요하겠다. 아이들이 대충하는 건 아닌데 조금 더 상황에 아이들이 잘 적응하고 보이는 시야가 넓어지면 결과물을 잘 뽑을 수 있을 것 같다. 그 과정에서 나와 아이들의 마음이 다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 촬영계획을 잡아야 한다. 아이들 일정과 내 일정을 고려해서 최소 6월 마지막 주 전에는 끝 내는 일정으로 계획을 만들어놔야겠다 드라마 비하인드 컷 영상을 만들 수도 있을 것 같다. 내가 부지런히 사진을 찍어두어야겠다.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3:30 ~ 15:2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6월 3일 | 차시 | 9 |
| 수업 목표 | 1. 각 팀별로 영상촬영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한다. | | |
| 수업 내용 | - 촬영 계획을 세웠다. 일단 촬영할 수 있는 날들을 정했다. 다들 학교 방과후 일정이나 주말일정들이 좀 있어서 정하기가 어렵긴 했지만 어찌어찌 확보를 했다. 6월 20일까지는 촬영을마칠 수 있으면 좋겠다 편집+대본팀과 촬영팀에게 촬영날짜에 누가 나올 지, 그 촬영하는 날에 어떤 장면을 찍을지정하라고 했다. 아이들이 꽤나 머리를 쓰면서 계획을 세웠다. 연기자팀은 스태프 목걸이를만들고, 책 하나를 선정해서 실감나게 읽어보는 활동을 해봤다. 연기자팀에게 책을 가지고오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알라딘>으로 가져와서 역할을 나누고 같이 읽어봤다. | | |
| 수업 평가 | - 촬영할 수 있는 날짜를 정한 다음 이 날짜들을 부모님들과 공유했어야 했는데 못 해서 가정 과의 소통이 어려웠던 때가 있었다. 내가 놓친 부분이다.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 아야겠다.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 수업시간 | 10:00 ~ 12:0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 수업날짜 | 2021년 6월 8일 | 차시 | 10 | |
| 수업 목표 | 1. 대본에 맞는 영상을 촬영한다. | | | |
| 수업 내용 | - 6월 7일: 드디어 월요일에 대본이 나왔다. 완성본이다. 아이들이 엄청 기뻐했다. 나도 기쁘다. 그리고 대본 완성이 너무 늦어진 것 같아 걱정도 된다. 아침에 리딩을 마쳤다. 진짜 대본을 손에 쥔 연기자 팀이 의욕이 넘쳤다 화요일 첫 촬영자로 상필이가 스타트를 끊었다. 찬솔이가 나에게 혼나는 장면을 찍는 부분으로 시작했는데 생각해보니 내가 연기 지도도 해야 하고, 구도도 잡아줘야 하고, 내가 출연을하게 돼서 연기도 해야 했다. 사실 대본+편집팀이 더 대본 이해도가 높아서 훨씬 이것저것 촬영팀과 연기자팀에게 지시하거나 부탁하거나 해야 하는데 그 부분 진행이 아이들도 처음이라 잘 안되었다. 결국 교사인 내가 다하고 말았다. 내가 제일 피하고 싶은 수업유형이 내가 결국 다하는 유형인데 이번에 첫 스타트가 그렇게 되어버려서 아쉽긴 했다. 방과후에 준오가 말랑에게 혼나는 장면은 지인이가 찍었는데 그 때도 마찬가지였다. 결국 대본을 약간 수정하는 방향으로까지 가면서 결국 내가 원하는 구도대로 찍어버렸다. 대본+편집팀과 촬영팀 아이들에게는 수업 이후에 이렇게 내가 많이 움직이는 날은 오늘이 마지막이 될 거라고 말했다. | | | |
| 수업 평가 | - 촬영을 굳이 장면 1부터가 아니라 5부터 찍어야 하나 싶은 의문이 드는데 아이들이 정한 거라 토 달지는 않았다. 그런데 찍어보니 장면 2부터 하나씩 찍자고 제안할 걸 그랬나 싶기도했다.(장면1은 인서트컷 중 몇 개를 쓰면 되기 때문에 상관없음) - 죽이되건 밥이되건 다음 목요일 촬영부터는 아이들에게 많이 맡길 예정이다. 잔소리를 참는 것이 이제부터 나의 미션이다 아이들이 정말 대본에 있는 것만 찍으면 되는 줄 알아서 장면마다 교사의 설명이 필요하긴할 것 같다. 인서트컷의 중요성을 계속 얘기를 해줘야겠다. 내가 조바심을 내지 않는 것 또한 나의 미션이다 오늘 7시쯤에 촬영이 끝났는데 앞으로는 마치는 시간을 6시로 조정을 해야할 것 같다. 아이들 저녁 식사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신경써야겠다. |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3:30 ~ 15:2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6월 10일 | 차시 | 11 |
| 수업 목표 | 1. 대본에 맞는 영상을 촬영한다 | ł. | |
| 수업 내용 | 야 하는 말들이 많다. 아이들 나오는 장면들이 많았다. 협조 - 하나하나 완성하는 맛을 아이 어하면서 동시에 엄청 뿌듯해 - 오늘은 고구마가 간식으로 헛 해주시니까 저희가 열심히 촬 - 6월 11일: 오늘 방과후까지 게 교실로 들어왔다. 심지어 먹고 있었다. 그런데 은강이의 하는 날까지 은강이가 전부 경 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했었 늘 촬영분인 방과후 때 찍은 은강이가 나왔던 모든 장면들 까지 했다가 아이들이 실제 함 | 들이 느끼고 있다. 장면 촬영이 | 했다. 오늘은 다른 교사가 같이다 끝나면 아이들이 엄청 힘들으가 "부모님들이 이렇게 응원하다. 나오는 부분을 촬영하고 기분좋 카프리썬을 사다주셔서 맛있게 캐릭터가 다른 날로 보여져야알게 되었다. 어쩐지 은강이 옷그랬다. 정말 엄밀히 말하면 오는 맞긴 맞는데 실제로 그러면생기는 상황이었다. 재촬영 얘기폭같은 옷을 입고 올 수도 있는 |
| 수업 평가 | 훌쩍 간다. 아이들에게 수업 ⁶ - 은강이 옷 사건을 통해서 언제 | 고 연기자 아이들을 제자리에 다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줘야겠다. 네든지 예상치 못한 실수가 일어! 조금 더 섬세하게 준비를 해야겠 | 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나랑 |

| | | | Г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수업시간 | 10:00 ~ 12:0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6월 15일 | 차시 | 12 |
| 수업 목표 | 1. 대본에 맞는 영상을 촬영한다 | ţ. | |
| 수업 내용 | - 어제도 촬영, 오늘도 촬영. 요새 아이들이 전부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오늘은 바쁘게 찍던 와충 일이 생겼다. 상필이가 카메라 담당이었는데 카메라를 잡고 있지 않고 삼각대에 고정한 채로 사물함 위에 울려놓았다가 사물함에 앉으려고 하는 아이들 때문에 카메라가 결국 바닥으로 떨어졌다. 새빨리 카메라 상태를 확인해보니 렌즈가 제대로 원래 위치에 들어가지 않았다. 카메라의 상태를 처음 확인하자마자 나는 상필이에게 짧고 굵게 화를 냈다. 늘 카메라놓지 말고 카메라와 떨어지면 안 된다고 누누이 얘기했던 탓이었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서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화가 났다. 급한 마음에 내가 직접 용산까지 가서 수리를 맡기고 돌아왔다.(수리비는 학교에 청구했다.) 한참 내 주변을 서성이던 상필이는 하루닫기 시간 직전에 내게 사과를 하려 왔다. 상필이랑 다시 얘기하고 상황을 정리했다. 잠깐 혼돈에 빠졌던 반 전체 아이들과는 방과후에 카메라를 찾을 수 있다고 안심시킨 후 용산에서 사 온 찰보리 빵을 나눠먹었다 내가 교사들과 회의가 있어서 아이들이 방과후에 나 없이 자기들끼리 촬영해야 했었는데 대본+편집팀 아이들이 회의 중인 나를 찾을 정도로 정말 거의 진행이 안 되었다(사전에 교사가 없는 자리에서도 집중해서 촬영하고 마쳐야 한다고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특히 은강이가 촬영에 집중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운동장에서 공만 차고 있어서 아이들의 원성을 샀다. 회의를 부랴부랴 끝내고 운동장으로 내려가 상황을 들어보니 사실 다른 아이들도 그닥 크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 연기자팀 전체를 상대로 잘 집중하라고 얘기했다 이날 방과후에 찍은 것은 연기자의 웃음이 들어간 영상이 오케이컷으로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목요일에 다시 찍기로 했다. | | |
| 수업 평가 | 이들이 전부 카메라를 전보다 아이들과 같이 주의를 기울여 - 본인이 선택한 수업에 준비가 | 하게 된 오늘의 일은 참으로 유 어 조심스럽게 다루고 있다. 키 야겠다. 어 되어 있는 점이 의아스럽고 어 싶기도 하다. 결국에는 소통만에 | h메라 사용에 대해서도 나 또한 이해가 안 된다. 한편으로는 현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3:30 ~ 15:2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6월 17일 | 차시 | 13 |
| 수업 목표 | 1. 대본에 맞는 영상을 촬영한다 | ł. | |
| 수업 내용 | - 오늘은 오전과 오후 시간표 순서를 바꿔서 오전에 주제학습을 하고 오후에는 말과글을 했다. 지난 화요일에 다시 찍기로 판명난 29번 장면을 찍고 나머지 몇 장면을 이어서 더 찍었다. 그리고 방과후에 내가 외부회의를 다녀오는 동안 몇 장면을 더 찍기로 하고 나는 외부회의를 갔다. 돌아오는 길에 스태프 애들로부터 전화가 왔다. 연기자 아이들이 정말 스태프들의말을 안 듣고 연기 준비도 제대로 안 하고 있어서 촬영 속도가 엄청 밀렸다는 소식이었다. 도착했더니 아이들은 일단 찍고 있었고, 나는 쉬고 있는 스태프들로부터 아까 어떤 상황이었는지 정확한 제보를 받았다. 촬영을 잠깐 중지시키고 연기자팀 아이들에게 남의 시간 함부로뺏지 말고 잘 하자고 얘기했다. 희주가 학급 회의 때 이 문제를 안건으로 다루고 싶어했다. 월요일 학급 회의 때 약속을 다시 얘기해보면 좋겠다 오늘은 저녁 8시까지 촬영이 이어지는 바람에 봄이 저녁으로 중국음식을 시켜주셨다. 감사히잘 먹었다. 아이들도 배고팠는지 잘 먹었다. 뒷정리까지 다 하고 하루닫기 하고 헤어졌다. | | |
| 수업 평가 | - 은강이가 촬영에 집중하지 않고 자꾸 딴 짓을 하는 모습에 아이들이 점점 힘들어하고 있다. 은강이에게도 이런 지적을 받는 상황이 스트레스일텐데 행동이 고쳐지지 않아 꾸준하게 얘기 해주고 은강이 스스로도 노력해서 집중하면 좋겠다. 그리고 연기자팀 아이들이 대본을 외워 오지 않아서 촬영 진행이 더 느린 것 같다. 아이들에게 일정표의 존재를 상기시키며 촬영날 어떤 장면을 찍는지 확인하며 대사를 외워오라고 했다. 오늘도 가방에 대본 안 넣고 가는 아 이들이 있어서 확인하고 가방 안에 넣어서 집에 가서 대사를 외워오라고 했다. 연기자팀 아 이들은 촬영, 편집+대본팀 아이들이 아니라 교사인 내가 챙겨서 반 분위기가 더 처지지 않도 록 노력해야겠다.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0:00 ~ 12:0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6월 22일 | 차시 | 14 |
| 수업 목표 | 1. 대본에 맞는 영상을 촬영한다 | ł. | |
| 수업 내용 | 들 포스터만 지우려고 했는데 워진 것이었다. 진짜 미안해서 법을 찾아 유료사이트를 발견 단축키 실수는 내 인생에서 : 에 아이들이 또 찍어야 하는 - 6월 21일: 아이들과 학급회의 한 '같이하자, 소통하자, 즐기 지지 않고 경고가 3번 누적되 - 오늘은 아침에 예상치못하게 | 내가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다. 는 아이들이 찍은 파일이 전부 다 너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인터넷이 하여 여러 시도 끝에 결국 80퍼처음 있는 일이라 너무 놀랬다. 장면들이 많아서 너무 미안했다. 시간에 영상촬영 때 지켜야 하는 자'약속보다 조금 더 실질적인 역 면 즉시 촬영을 중단하기로 했다 약간 어영부영 시간을 쓴 것 같 는데 시간표도 고려했어야 했는데 문했다. | 담긴 파일까지 선택이 되어 지세서 삭제된 파일을 복구하는 방센트 정도 복구에 성공했다. 이아이들도 엄청 놀랬다. 나 때문은 약속을 정했다. 학기 초에 정약속들을 정했고, 이것들이 지켜 다. 학교 공간에서 촬영하는 것 |
| 수업 평가 | - 약속을 정한 이후로 조금 더 연기자팀 아이들이 촬영에 집중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인다. 그래도 여전히 아이들이 촬영 준비를 제대로 안 해와서(대사 외우기, 장소 확인하기, 의상 챙 겨입기) 교사인 내가 사전에 확인해야 하는 것들이 많고 촬영도 늦어진다. - 지금까지 확보한 영상 확인과 정리(빼먹은 장면이나 대사가 있는지, 원활한 편집환경을 위한) 가 필요하다. 목요일 수업 때는 촬영에 참여하지 않는 아이들에게 역할을 맡길 예정이다.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3:30 ~ 15:2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6월 24일 | 차시 | 15 |
| 수업 목표 | 1. 대본에 맞는 영상을 촬영한다. | | |
| 수업 내용 | - 오늘도 방과후까지 영상촬영을 했다. 영상삭제사건 이후 계속 빠진 부분들이 파일정리하며 발견되고 있어서 아이들이 촬영했던 부분을 또 촬영하느라 약간 진이 빠진 모습이 보인다. 미 안한 마음이 정말 크다. 그래도 촬영을 해야 하는 부분이 얼마 안 남아서 아이들이 힘을 내며 촬영하고 있다. - 촬영은 6/25일 금요일에 완료하였다. 방과후까지 촬영했는데 중요한 장면임과 동시에 가장 NG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장면을 촬영해야 했어서(주인공 2명이 갈등 고조되는 장면) 다 들 긴장을 많이 했다. 저녁 식사용 김밥을 도마뱀이 준비해주셔서 아이들이 촬영을 끝내고 먹 겠다는 일념으로 힘들지만 끝까지 촬영을 이어 했다. | | |
| 수업 평가 | - 촬영을 마쳤다. 아이들이 엄청 기뻐했다. 편집을 들어가는데 더 필요한 장면이 있으면 추가로 더 촬영을 해야 하긴 한다. 인서트컷이 모자라보여서 촬영팀에게 더 맡길 예정이다.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10:00 ~ 12:0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수업날짜 | 2021년 6월 29일 | 차시 | 16 |
| 수업 목표 | 영상 편집을 할 수 있다. 영상 편집 프로그램(모바비, 프리미어)의 기능을 익힌다. 영상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요소들을 찾아 구성한다. 드라마 홍보를 위한 준비를 한다. | | |
| 수업 내용 | 용하고 있다. 아이들은 나뉘어하니 처음에는 나도 아이들도 내가 안 알려 준 것도 아이들 - 오늘은 완성된 포스터를 같아 준비 때문에 정신없을 것 같아 봤다. 아이들의 반응이 괜찮아데 포스터 문구에 있는 '202'고 갔다. 당장 내일 뿌리기로 다. 프린트를 해오면 어디에 이기로 했다. 그리고 드라마 | 을 시작했다. 모바비와 프리미어 어져서 그 프로그램들을 쓰고 있는 전신이 없었지만 역시 아이들 이 이것저것 눌러가며 편집을 하 이 봤다. 포스터는 내가 만들었다 아서 포스터는 인스타그램 스토리 나서 이대로 가기로 했다. 이 포스 1.7 최초공개 때문에 얼른 뿌려야 합고 컬러프린트가 있는 집의 여 불일지도 얘기해봤는데 학교랑 설 홍보와 포스터 눈으로만 봐달라는 야 하는 아이들은 대본을 쓰고 없을 했다. | 는데 알려주느라 내가 왔다갔다 은 습득 속도가 빨라서 심지어 기 시작했다. 나. 아이들이 편집과 제작보고회 니 기능을 써서 간편하게 만들어 는터를 언제 뿌릴지 회의를 했는 야 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오 아이들이 프린트를 해오기로 했 산제로랑 소란과 어울마당에 붙 는 주의사항 발표도 각자 나눠서 |
| 수업 평가 | 도 정신 챙겨가며 진행해야겄 | 시 분업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 IJ다. 분업을 할 때 어떤 팀은 일 도가 다르지 않게 분업을 맡기는 | 찍 끝나고 어떤 팀은 늦게까지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
| 수업시간 | 13:30 ~ 15:2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
| 수업날짜 | 2021년 7월 1일 | 차시 | 17 | | |
| 수업 목표 | 1. 영상을 편집한다. 2. 드라마 홍보와 제작보고회를 | 를 위한 준비를 한다. | | | |
| 수업 내용 | - 6월 30일: 수요일에 포스터를 부착했다. 아이들이 대충 포스터 가운데만 테이프로 찍 붙여놨 길래 네 군데 귀퉁이 뒤에 다 테이프 붙이라고 안내해서 다시 붙이게 했다. - 오늘은 편집팀은 하던대로 편집을 했고 나머지 촬영팀과 연기자팀은 '슬기로운 의사생활2 제 작보고회'영상을 보며 제작보고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어떤 질문들과 대답들이 오고 가는 지, 우리가 제작보고회를 하면 어떤 게 필요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 7월 2일: 금요일에는 편집팀은 편집을 이어서 했고, 촬영팀과 연기자팀은 로다와 함께 제작 보고회 회의를 했다. 제작보고회 때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어떤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지, 공간을 어떻게 꾸며볼지 논의했다. 논의한 내용은 편집팀과 공유해야 한다. / 산회의 때 학생 들에게 드라마 홍보와 포스터 관리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 7월 4일: 일요일에 드라마 1부를 완성했다. 티저 영상은 1부 앞 부분으로 결정했다. 활동사 진모음영상도 완성했는데 그건 내가 만들었다. | | | | |
| 수업 평가 | - 예상했었지만 편집하면서 옥의 티가 많이 보였고 필요한 장면들이 없거나 조금 더 찍었으면 하는 인서트컷들이 필요하기도 했다. 최대한 티가 안 나도록 편집에 끝까지 신경써야겠다. 편집을 너무 오래 하면 편집자들은 오히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잘 몰라서 나는 최대한 안보고 있다가 확인할 때만 자세히 봐야겠다 제작보고회 준비와 실제 진행 모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환경을 잘 조성해야겠다. 다행히 아이들 모두 빼는 아이들 없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 |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 수업시간 | 10:00 ~ 12:0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 수업날짜 | 2021년 7월 6일 | 차시 | 18 | |
| 수업 목표 | 1. 드라마 홍보와 제작보고회를 위한 준비를 한다. | | | |
| 수업 내용 | - 완성된 드라마 티저와 활동사진모음영상과 1부를 다 같이 보았다. 아이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완성하고 나니 보이는 옥의 티가 꽤 많이 보여서 아쉽긴 했지만 나도 아이들도 전부 '완성'했다는 기쁨이 더 컸다. - 교내수업발표회와 제작보고회를 동시에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그래서 상황 설명과 행 사 플랜카드를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사회, 세팅 등 각자 역할을 나누는 데에 시간을 많이 썼다. | | | |
| 수업 평가 | - 역할 배분, 수업 시간 내 시간 배분 모두 신경 써야 한다 맡은 역할들이 아이들마다 다 다르고 일이 많아서 아이들이 까먹고 자기가 해야 하는 역할을 놓칠 수도 있을 것 같다. 나도 잘 기억해야겠다. | | | |

| 교과명 | 주제학습(영상만들기) | 담당교사 | 로다 | |
|-------|---|------|-------------|--|
| 수업시간 | 13:30 ~ 15:20 | 수업대상 | 5, 6학년 SBS반 | |
| 수업날짜 | 2021년 7월 8일 | 차시 | 19 | |
| 수업 목표 | 1. 영상을 편집한다. 2. 드라마 홍보와 제작보고회를 위한 준비를 한다. | | | |
| 수업 내용 | - 교내수업발표회와 제작보고회를 준비하는 시간으로 보냈다. 드라마 2부를 편집하고, 플랜카드를 만들고, 제작보고회 참석자분들에게 드릴 선물용 카드를 만들었다. 제작보고회 하우스음악을 준비하고 제작보고회 때 발표할 ppt 내용도 만들었다 7월 11일: 일요일에 드라마 2부를 완성했다 7월 12일: 코로나19 확진자 수 상황이 심각해져서 월요일부터 정부 방침이 달라짐에 따라원래 계획한 모든 것들의 진행이 불가능해졌다. 오프라인 형태로 수업발표회와 제작보고회를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면 취소하고 영상을 유튜브에 올리는 것으로만 마무리를 했다. 월요일엔 티저, 화요일엔 1부, 수요일엔 2부, 금요일엔 활동사진모음영상을 유튜브에 업로드했다. 학교 홈페이지에는 금요일에 최종 대본과 ppt를 올렸다. | | | |
| 수업 평가 | - 열심히 준비하던 마지막 활동들이 아쉽게도 진행할 수 없게 됐다. 줌처럼 비대면 방식으로 어떻게든 진행해볼까 싶었지만 아이들이 반반 나뉘어 학교를 나오는 상황이었기에 준비 마무 리와 실제 진행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았을 때 어려울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도 드라 마 완성과 대중에게 선보이는 작업은 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 드라마 반응이 아주 좋았다. 조회수도 높고 다들 재밌게 시청해준 것 같다. | | | |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느라 수고한 10명의 아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비록 중간에 갈등도 해결하고 수업 이외의 시간까지 투자하느라 고생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그 고비를 넘기니 다들 뿌듯해하는 모습이었다. 아이들이 쓴 평가서를 보니 아이들에게 주제학습 시간이 강렬한 기억으로 남은 것 같다. 이유를 생각해보면 가장 오랜 시간을 투자하기도 했고, 단순히 시간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각자의 전부를 쏟아부은 수업이어서인 것 같기도 하다. 수업목표로 영상을 '완성'하는 것과 '소통'을 잡았는데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다고 생각한다. 일단 2부작 추리물 드라마를 완성했고, 드라마를 촬영하며 일상적인 회의와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한 회의와 대화를 많이 나눴기 때문이다. 목표를 달성하는 기준이 각자 다르겠지만 나

는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본다. 갈등이 수업 마지막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은 점, 아이들이

내게 먼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회의를 제안한 점이 그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수업 총평

- 위에도 썼지만 사실 첫 촬영 들어갔을 때 내 생각보다 촬영이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었다. 내가 수업 계획 단계에서 처음 예상했던 영상의 주제나 내용보다 훨씬 더 재밌고, 길었기 때문이었다. 또한 아이들과 계획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영상과 연기에 대한 교육을 더 했어야 했다는 생각도 동시에 들어서 너무 걱정이 되었다. 그렇지만 내가 이수업을 연 건 내가 아이들을 데리고 제일 잘 운영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컨텐츠였기 때문에 물러설 수 없었고 물러터져 있을 수도 없었다. 열심히 했고, 그런 나의 태도가 아이들에게도 잘 느껴졌는지 아이들도 대부분 집중해서 참여해주었고 교사보다 먼저 나서서 일을 처리하는 자발적인 모습들도 보였다. 다 끝나고 생각해보면 내가 너무 융통성 없이 진행했나 싶은 순간들도 있지만 오히려 깐깐한 나의 태도가 계획대로 수업을 진행시키는 데에는 분명 한 몫했다고 생각한다.
- 자꾸 시즌2는 없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다. 심지어 우리 반 애들도 나한테 이거 수업 또할 거냐고 많이 물어본다. 단순히 드라마가 재밌어서 물어보는 것도 있겠지만 이 수업에 매력을 느낀 사람들이 많은 것 같다. 생각해보면 나는 이 수업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어떤 학년을 만나느냐에 따라 수업을 다르게 운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4) 5,6학년 달걀로 보는 세상

| 교과 | 주제학습 - 달걀로 보는 세상 | 담당교사 | 말랑 |
|------|---|--|------|
| 시간 | 화요일 1~2교시 목요일 3~4교시 | 대상 | 56학년 |
| 수업목표 | •배운 내용을 정리하고 생활 | 로 확장하여 입체적으로 의미를 속에서 활용할 수 있다. 기회를 갖고 서로 협력할 수 9 | |
| 수업내용 | - 알과 관련된 경험과 배경지식으로 활동 주제망 짜기 (과학실험, 생명부화, 요리, 책읽기) - 다양한 알을 상상하고 생명과 연결하기 - 알과 관련된 경험을 통해 새로운 것 발견하기 - 재미난 과학실험으로 자연현상 발견하기(달걀 낙하실험-공기저항, 노란달걀-원심력, 달걀 탱탱볼 만들기-난각막은 반투과성막, 헬륨풍선으로 메추리알 띄우기-부력과 중력 균형) - 생명부화 (달걀, 메추리알 부화, 육추실 만들기, 키우기, 조류의 특성) - 요리 (달걀의 영양, 프라이, 머랭쿠키) - 과학체험전으로 나에게 의미 있는 활동 정리하여 소개하기 | | |
| 수업평가 | 달걀을 주제로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고 의미를 입체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다. 활동 내용들이 아이들에겐 관심이 높았고 참여를 적극적으로 하는 모습이었다. 달걀은 요리로 자주접하는 것이기에 달걀이란 주제는 동기부여가 잘 되었고 확장도 낯설지 않았다. 교육활동을 시작하기 전 사전지식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를 주고 읽어오도록 했다. 그래서 수업하기 전 아이들의 배경지식의 편차가 심하지 않도록 유도하였다. 활동 한 뒤 경험 과정과 새롭게 알게 된 것을 글로 써서 생각을 정리하는 과정을 가졌다. 글로 표현하면서 단어 뜻과 개념에 대한 이해도를 파악하고 부족한 아이들을 지원할 수 있었다. 산학교에선 주제학습이라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이란 말로 통용되고있다. '주제중심통합교육과정은 주제를 선정한 뒤에 학생들과의 협의를 통해 학생들이 관심 있어 하는 소제를 중심으로 재구성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학생 흥미와 시사 문제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재배열하여 수업을 진행하여 학교에서 배움이 학생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교육방법이다. 교과 과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 내가 좋아하는 것, 관심 있어 하는 것을 배우는 것으로 배움 과정에 대한 흥미를 일깨워줄수 있다. 그리고 학생들이 흥미 있어 하는 주제에 대해 스스로 찾아보고, 학교에서 공부할 내용을 찾아가며 공부하면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다. 아이들의 삶과학교 교육을 관련시켜주는 의미 있는 교육활동이 될 수 있다.' 소개되어 있다. 이런 과정을 기본 줄기로 하여 수업이 진행되었다. | | |

5) 7~8학년 마을미디어 프로젝트

담당 교사

자연 nature1212@naver.com

수업 대상

• 7,8학년 7명

수업 목표

- 학교와 송내동 마을을 둘러보며 공동체에 관심을 갖는다.
- 사람들을 연결할 수 있는 미디어 컨텐츠를 기획하고 제작한다.
- 협력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프로젝트 과정을 경험하며 성취감을 얻는다.
- 부천시민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미디어 컨텐츠 제작 능력을 기른다.

수업 기록

5월 11일 화요일

목표 : 소개하기, 미디어 과정에 대한 이해

내용

- 텍스트 드로잉을 통해 자기 소개하고 미디어가 가진 특성을 이해하기
- 〈봉준호를 찾아서〉를 보고 영상제작과정을 알아본다.

평가

- 2학기에는 부천시민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프로젝트를 위한 역량을 키우는 미디어 기초 수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첫 시간이라 미디어 쌤 세 분이 학교를 방문하셔서 수업을 진행해주셨다.
- 서로 알아가고 미디어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자기 얼굴을 묘사하는 활동을 했는데, 낯설어서인지, 청소년기 특성인지 많은 아이들이 활동을 어려워해서 시간이 오래 걸렸다. 선생님들께서 계획을 일부 수정하여 아이들속도에 맞게 충분히 시간을 주고 진행해주셨다.
- 〈봉준호를 찾아서>라는 영화를 모두 인상깊게 보았다. 영화를 만든 청소년들의 열정이 참 대단해서, 미디어를 제작하기 전 동기부여를 하는 데 좋은 영화인 듯 하다.

5월 18일 화요일

목표: 미디어 언어 익히기

- 지난 시간에 그려준 서로의 그림 보며 소개 활동 이어서 진행하기
- 다양한 영상(광고, 영화)을 보며 미디어 언어의 필요성과 뜻(컷, 프레임, 샷, 앵글, 노출) 익히기
- 다양한 샷과 앵글, 노출을 촬영해보기
- 촬영본 모니터링하며 배운 내용 점검하기

- 영상 언어가 영어이다 보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었다. 실제 촬영을 할 때 다시 복습을 하며 익숙해지도록 해야겠다.
- 샷과 앵글, 노출에 따라 장면에서 전달되는 감정과 분위기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 영상 예시를 통해 알 수 있었다.
- 각자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보는 실습을 진행했는데, 누구를 촬영해야 할지 몰라 서성이는 학생도 있었고, 대 충 숙제처럼 찍어버리는 끝내는 학생들도 있었다. 영상 작업이 기본적으로 무언가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진행되어야 하는 것인데 약간 걱정이 된다.
- 필기가 필요한 활동에서 준비가 안되어 종이를 빌려서 필기하고 아무데다 두는 모습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업시간에 기록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해야겠다.

5월 25일 화요일

주제 : 촬영의 기초와 실습

내용

- 모둠별 카메라 사용법 익히기
- 모둠별 주제를 정하고 인터뷰 촬영 계획 세우기
- 인터뷰 촬영실습 진행하기
- 찍어온 결과물을 함께 모니터링 하면서 촬영의 유의점을 알아간다.

평가

- 미디어 센터에서 카메라를 대여해주셔서 카메라를 직접 조작해보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실제 영상 제작을 할 때 카메라를 대여할 수 있을지는 논의가 필요하다.
- 촬영 실습을 위해 놀이, 여행, 음악을 주제로 모둠을 나누어 인터뷰 촬영을 진행했다. 인터뷰 질문을 정하고 서로를 인터뷰하여 촬영을 진행했다. 선생님들이 한분씩 모둠에 들어가 촬영 실습을 지도해주셨다. 인서트컷도 직접 촬영했다. 모둠에 따라 대화가 잘 되지 않거나 인터뷰가 원활하지 않은 모습이 있다. 촬영은 나름 재미있어 했는데, 서로 아직 어색한가 싶다.
- 촬영본을 보며 안정적인 구도, 소리, 노출에 대해 알 수 있었다.

6월 1일 화요일

목표 : 편집 기술 익히기

- 지난 촬영 결과물로 목록화 작업하기
- 편집이란? 편집으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편집툴(프리미어 프로)을 다루는 법을 배운다. (영상 불러오기, 첫 편집, 배경음악, 자막 작업, 영상 내보내기)

- 미디어 센터에서 수업을 진행했는데, 편집실 환경이 잘 갖추어져 있어 학생들이 빠져들어 작업할 수 있었다.
- 컴퓨터를 다루는 데 익숙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어 기초적인 연습이 필요했다.
- 편집 연습을 욕심을 내며 흥미있게 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시키는 것만 하는 아이들도 있었다. 각자 작업에 대한 흥미도가 다르다. 본격적인 영상 창작 작업을 진행할 때에는 각자 원하는 역할을 나누어 맡아도 좋겠다.

6월 8일 화요일

목표 : 편집툴 복습, 기획안 작성하기

내용

- 청소년 단편 영화 보기
- 영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이야기를 찾아보고 서로 이야기 나눈다.
- 기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직접 기획안을 작성해본다.
- 편집툴 복습하기
- 과제 : 기획안 완성하기, 영상 실습본으로 컷편집 해오기

평가

- 외모 컴플렉스에 대한 단편영화를 보고 자기 고민을 어떻게 영상으로 담아낼 수 있는지 상상해볼 수 있었다.
- 뇌구조 그리기를 통해 요즘 자기 관심사나 고민을 나누고, 기획안을 작성했다. 그렇지만 학생들이 충분히 관심사와 고민을 탐색하고, 이를 영상 기획안으로 연결하기까지는 보다 섬세한 작업과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 것 같은데, 바로 진행하다보니 내용적인 아쉬움이 있었다. 생활교사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후속작업을 더 진행해보기로 했다.
-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모둠으로 할 친구들과 개별작업을 할 친구들을 정했다. 영상 작업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경험해보는 것이 목적이기에 팀작업/개별작업 어느 하나를 정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해보기로 했다. 영상 기획안에 대한 감을 잡기 어려워하여 각각 면담을 진행했다. 기획안의 방향을 정하고 세부적인 내용을 논의해 기획안을 완성해오라는 과제를 내주었다. 본격 작업을 하려니 시간이 부족하다.
- 지난 시간에 배운 편집툴 복습을 했는데, 지난 시간과 같은 단순한 컷편집이라 아쉬워하는 아이들이 있었다.
 우리가 찍은 영상으로 컷편집을 해보는 것을 제안해 과제로 내주었다.

6월 15일 화요일

목표 : 영상실습-기획안 검토, 촬영 계획 세우기

- 컷편집 과제를 확인하며 편집과 촬영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을 확인하기
- 기획안을 검토하고 이에 맞게 촬영 계획서를 작성한다.

- 촬영계획서에 맞게 촬영 준비를 한다.
- 과제 : 촬영하고 촬영본 가져오기

- 컷편집 과제를 다들 열심히 해왔는데, 내보내기를 해오지 않아 다 공유하지 못했다. 과감하게 장면을 날리는 연습이 필요하다.
- 기획안을 검토했는데 이 영상을 왜 만들어야 하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지가 여전히 명확하지 않은 아이들이 있었다. 그러다 보니 촬영 계획서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쓸 수밖에 없었다. 영상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기획안과 계획서의 중요성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야겠다. 주제는 거대하고, 영상은 아주 구체적이라, 앞으로의 수업에서 이 간극을 좁혀나가는 연습이 필요하겠다.
- 촬영 작업을 학교 일과중에 진행해야 하는데, 몇몇 아이들은 교사의 지원이 필요해보인다. 삼각대, 핀마이크 가 필요해 구비했다.

6월 22일 화요일

목표 : 영상실습-촬영본 모니터링, 보충촬영 계획 세우기

내용

- 촬영본 확인하기, 목록화 작업
- 보충촬영 계획 세우기
- 편집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필요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고 준비한다.
- 편집 구성 고민해보기
- 과제 : 보충촬영 해오기

평가

- 촬영본을 정리해오지 않아서 옮기고 정리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과제를 줄 때 어디까지 해오라고 분명히 내주어야겠다. 이후 영상을 확인하며 목록화 작업을 했는데, 촬영본을 보니 아쉬운 점들이 많아 스스로 재 촬영을 계획하기도 했다. 작업을 시작하니 열의를 보이는 모습이다.
- 팀작업을 하는 아이들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함께 논의해야 할지, 어떻게 역할을 분담해야 할지 갈피를 잡기 어려워해 도움이 필요해보인다. 소통을 하느라 에너지를 소진하는 느낌이다.
- 개별 작업을 하는 아이들은 작업 속도는 빠르나 아무래도 작업에 대한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지는 않는 모습이다. 프로젝트 수업의 중요 목표가 협업이라면, 어렵더라도 모두가 소그룹으로 팀 작업을 해보면 어땠을까하는 아쉬움이 뒤늦게 든다.

6월 29일 화요일

목표 : 영상 실습 - 편집하기

- 편집구성 논의하기, 컷편집 진행
- 나레이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나레이션을 작성하고 녹음한다.
- 필요한 자막 내용들을 정리한다

• 과제 : 컷편집 해오기

평가

- 학생들이 한주동안 나름 열심히 촬영을 해왔다. 학기말이라 학생들 각자가 바쁜 와중이라 영상 작업에만 집 중하기 어렵다는 게 아쉽다. 완성도 있는 영상을 만들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실습에 의미를 두고 할 수 있 는 만큼 해보도록 해야겠다.
- 각자 작업을 해야 하는 과정이라 교사들이 개입할 게 많지 않다. 선생님들도 아이들의 작업에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개입해서 지도해야 할지 어려우신 것 같다.
- 학생들마다 작업 속도가 다르다. 개인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컷편집을 시작했다. 팀 작업을 하는 친구들은 아직 편집 구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 특히 학생회를 주제로 하는 팀이 촬영본을 어떻게 구성하고 정리해야 할지 어려워해서 교사 도움이 많이 필요했다. 그렇지만 잘 만들면 좋은 영상 결과물이 나올 것 같다.

7월 6일 화요일

목표 : 영상 실습-편집 마무리 작업 진행하기

내용

- 후반 편집 작업하기
- 컷편집본 확인하고 피드백 나누기
- 과제: 제목, 기획의도, 시놉시스, 스틸컷 정하기

평가

- 각자 작업을 진행하고 선생님들이 돌아다니며 편집 작업 지도를 해주셨다. 촬영본을 불필요한 장면들을 삭제하고 10분 내외의 영상으로 만드는 게 쉽지 않은 모양이다.
- 미완성이긴 하지만 편집 영상을 함께 검토했다. 나름 애써서 촬영한 흔적들이 보여 기특했다. 함께 화면으로 보니 편집에서 보완할 점들이 보이기도 했다. 피드백을 좀 더 깊이있게 나누지 못한 게 아쉽다. 다음주까지 얼마나 완성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7월 12일 월요일

목표 : 상영회, 감독과의 대화

내용

- 완성된 작품을 함께 본다.
- 대화의 시간을 통해 작품제작과정에서 느낀 것들, 관객의 질문을 나눈다.
- 수업 소감을 나누며 2학기 수업을 마무리한다.

평가

- 부천 시민 미디어센터에서 장소 대관을 해주셔서 새로운 공간에서 큰 화면으로 상영회를 진행하였다. 수업이 마무리된 주여서 다른 프로젝트 수업을 선택한 혜주, 채원, 재원이도 관객으로 참여했다.
- 개인 작업을 했던 동윤, 미주는 영상을 완성하여 상영을 했지만 나머지 팀작업을 했던 학생들은 영상을 완성하지 못한 상태로 상영회를 했다. 영상 편집이 쉬운 일이 아님을 뼈저리게 느낀 듯 하다. 본인들이 아쉬워했

다. 영상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편집 구성을 함께 논의하고, 편집을 해서 피드백을 하는 시간이 훨씬 충분하게 확보되었어야 했던 것 같다.

- Color 뮤직비디오를 만든 미주는 비교적 단순한 작업이고, 편집 경험도 있어서 완성도 있게 영상을 만들었다. 사람들을 담아내는 작업을 권했으나 본인이 풍경을 찍고 싶어했다. &사소하지만 사소하지 않은 문제&를 다루고자 했던 동윤이는 자기 얘기를 찍은 영상을 완성했다. 동윤이와 미주의 작업 모두 개인적인 작업에서 다른 사람과 연결되는 작업으로 나아가지 못한 부분이 아쉽다. 그렇지만 스스로 기획부터 편집까지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 하원, 호건, 정우는 학생회와 산회의를 주제로 영상을 만들었다. 어려운 주제를 선택하여 회의를 엄청 많이 하고, 영상도 가장 많이 찍었는데, 컷편집도 완성하지 못한 채로 상영회를 하게 되었다. 신우, 한울이는 산학 교의 놀이문화를 주제로 영상을 학년별 놀이를 찍은 영상을 만들었다. 컷편집은 어느 정도 완성했으나 자막 등이 미완인 상태로 상영회를 했다. 팀 작업을 하다 보니 역할분담부터 쉽지 않고 갈등이 많았다. 그렇지만 이런 소통의 과정을 겪어내며 작업을 진행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었다.
- 상영회를 해보니 영상에 대한 아쉬움들이 많았다. 그래서인지 감독과의 대화 분위기가 어수선했다. 그간 수업을 이끌어주신 선생님과 미디어센터장님이 의미있는 피드백을 해주셨다. 방학 동안 영상을 완성해보고 산학교 식구들과도 공유하면 좋겠다.

총평

- 마을 미디어 프로젝트 사업에 지원했다가 교육 지원을 받게 되었다. 그래서 상반기는 부천 시민미디어센터 수업을 진행하며 영상 작업에 대한 이해와 실습을 해보고, 하반기에 직접 영상 컨텐츠를 기획해서 만들어보는 과정으로 수업을 계획했다. 2-3 선생님들이 아이들 각각을 세심하게 지도해주시고, 학생들의 속도에 맞게 수업을 천천히 진행해주시고, 전문적인 강사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영상 자료와 활동을 준비해주시고, 센터의 공간과 장비를 대여해주셔서 좋았다. 생활교사는 수업에 참여하여 아이들과 함께 활동을 하기도 하고, 수업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관찰하고 개별 지원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수업 후에 강사분과 소통하여 다음 수업 진행을 위한 과제를 확인하고 일상에서 학생들의 활동을 지도하였다.
- 다만 외부기관 수업으로만 진행되다 보니 어려움과 한계도 있었다. 우선 영상작업은 자기 이야기를 해야 하는 수업인데 아이들과 관계를 만들어가는 데 시간이 걸려 수업이 더디게 진행되었다. 무엇을 만들고 싶은지에 대한 이야기를 충분히, 심도있게 나누지 못한 점도 아쉽다. 학생들의 수업 참여 태도도 아무래도 외부 강사 수업에서 좀 더 소극적인 모습이 있다. 그래서 초기에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 설명하고 면담을 거쳐 수업을 시작했는데도, 수업이 진행되면서 단순히 &영상 편집 연습 수업&으로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았다. 강사분들과 수업을 하는 시간 외에도 생활교사와의 수업시간이 확보되었다면 훨씬 밀도있는 수업이 진행되었겠다.
- 2학기 수업이 미디어 컨텐츠 제작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보니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의논하고 작업을 하여 성취하는 협업 과정은 부족했다. 다음 학기에는 각자 역할을 나누어 하더라도 우리 주변을 둘러보고 함께 작업을 완성해나가는 데 초점을 두고 프로젝트를 진행해야겠다. 개인 작업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 이과정에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동 프로젝트의 고단함과 기쁨을 느낄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산학교는 지금까지 알음 알음 미디어 컨텐츠를 제작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방식의 교육활동과 홍보 활동이 계속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부천시민미디어센터와 연계하여 교육활동을 지원 받고 마을 미디어 제작 활동을 지속해나가면 좋겠다.

6) 7~8학년 마을 어르신 소통 프로젝트

| 교과명 | 그룹프로젝트 수업(어르신과 소통하는 행복한 송내동) | | 담당교사 소금인형(강은영) | | <u>-</u> 영) | | |
|-------|--|--------------------------|---|---------|-----------------|-----|--|
| 수업시간 | 화요일10:00~12:00 | | 수업대상 | 장채원, | 김재원, | 곽혜주 | |
| | (1) 마을 내 어르신들과의 만남을 통해 이해를 하는 시간 마련 | | | | | | |
| 수업 목표 | (2) 어르신들과 학생이 만남으로써 서로 이해하고 소통의 장을 가짐 (3) 요리나 생활용품을 함께 배우고 만들면서 어르신들은 학생들의 문화를 이해 학생들은 어르신들의 지혜를 배우는 기회를 가짐 | | | | 이해하고 | | |
| | 차시 | 주제 | 내용 | | | | |
| | 1 | 주제학습 오리엔테이 | - 일정공유 션 - 주제학습 설명 - 하고 싶은 요리나 생활용: | 품 이야기 나 | ·누기 | | |
| | 2 | 할머니, 할아버지외 소통교육 및 친해지 | - 소통교육 하기 친해지기 | | | | |
| | 3 | 어르신에게 요리배우기 I | - 고추장 만들기 배움 | | | | |
| 수업 내용 | 4 | 어르신에게 요리배우기 I | - 깍두기 만들기 배움 | | 70151 | | |
| | 5 | 배운 요리에 대한 평 | 가 이야기 나누기 | 남는 것과 | 좋았넌 | 것 | |
| | 6 | 생활용품 배우기 I | - 주방 비누 배우기 | | | | |
| | 7 | 생활용품 배우기Ⅱ | | | | | |
| | 8 | 생활용품 배우기표 생화요프 어린시께 | · · | 하고아 어르시 | | -LI | |
| | 어르신까 이 생활용품 어르신까 이 생활용품 어르신까 이 바퀴드리기 이 바퀴드리기 | | 드리기 | i | :2/N Y | T7 | |
| 수업 평가 | -수업에 대한 이해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하지만 계획표가 정해져 본인들의 주도적으로 활동을 하는데는 아쉬움이 있음각자의 할머니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어르신들과 소통을 해야하는 어려움이나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을 잘 제시하기도 하였음어르신들에게 요리를 배우면서 평소에 집에서 하지 못한 음식들을 만들고 옛날에는 어떤 풍경으로 음식을 만들어 나눠 먹었는지 이야기를 들으며 간접 경험을 하기도 하였음주방비누, 모기기피제, 손소독제를 만들면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만든 것을 나눠 주는데 있어서도 본인들이 기여를 한 것 같은 뿌듯함이 들었다고 함코로나로 음식을 만들어 나눠 주는 것이 한계가 있어 무엇을 만들어 나눠 줄 수 있을지 어르신들과 소통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 | |
| | *개별평가 -장채원: 활동의 의도를 잘 파악하고 어르신에게 음식을 배울 때는 궁금한 것들을 적절히 물어 보고 이야기를 나누며 소통을 원활히 하였음. 하지만 계획이 짜져 있어 주도성이나 자발적인 부분을 더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지 않아서 4학기때 보완해서 수업을 진행할 예정임. -김재원: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궁금한 것이 많아 질문이 많았으나 상황에 맞지 않는 음 식이야기를 너무 많이 한다든지 사적인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안전한 경계를 지킬 수 있도 록 지원을 하였음. 생활용품을 만드는 것보다 음식을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가 높았음. -곽혜주: 본인의 역할이 주어질 때 활동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나 주도하거나 자발적인 모습에는 지원이 필요하였음. 의사표현이 많지 않고 단답형으로만 답을 해서 혜주의 구체적인 생각을 알 기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활동에 만족도가 높았음. | | | | | | |

7) 7~8학년 개인프로젝트

담당 교사

자연 nature1212@naver.com

수업 대상

• 7-8학년 10명

수업 시간

• 화요일 3,4교시

수업 목표

- 자기 관심사와 필요에 따른 프로젝트 주제를 탐색할 수 있다.
- 프로젝트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평가한다.
- 아주 사소한 과제라도 자발적인 의지와 주변 자원을 활용하여 실천해본다.
- 수업 일지를 꾸준히 작성하고 계획과 평가, 마무리를 함께 나눈다.

수업 내용

3월 : 계획하기

- 나의 삶 돌아보기, 나의 관심과 자원 파악하기
- 프로젝트 주제 고민하기

4-6월 : 실행하기

- 개별 면담을 통해 프로젝트 주제 정하기
- 프로젝트 계획서 작성하기, 공유하고 피드백 받기
- 멘토 정하기, 멘토와의 만남
- 학습, 조사 및 탐구 활동, 일지 작성하기
- 중간 점검하기
- 결과물 만들기

7월 : 평가하기

- 수업 평가서 작성하기
- 결과물, 평가서 발표하고 피드백 받기

<프로젝트 활동 내용>

| 이름 | 주제 | 멘토 | 목표 | 결과물 |
|-----|------------|----|--|----------------------|
| 고미주 | 쿠키 만들기 | 김군 | 쿠키 레시피를 따라해보고 성공하여 사람 들과 공유한다. | 쿠키의 유래와 버터 쿠키 레시피 |
| 곽혜주 | 친구들에게 전화하기 | 자연 | 매일 친구들과 약속을 정해 전화 인터뷰 를 하며 친구들과 친해진다. | 전화 인터뷰 내용 |

| 김재원 | 멸종위기 동물 알리기 | 종다리 | 멸종위기 동물과 원인을 조사하고 사람들 에게 알린다. | 멸종위기 동물 카드 뉴스 |
|-----|----------------------|------|---------------------------------------|----------------------|
| 김호건 | 디저트 메뉴 개발 | 민들레 | 나만의 디저트 메뉴를 개발하여 레시피를 공유한다. | 호박쨈 떡 레세피, 나 누어먹기 |
| 나하원 | 기타 연주하기 | 기린 | 기타 연주곡 2-3개를 정해 공연한다. | 기타 연주 공연 영상 |
| 장채원 | 책 읽고 이야기 나누기 | 징검다리 | 추천 도서를 읽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눈 다. | 읽은 책 소개, 독후감 |
| 정동윤 |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태도 연구 | 곰식이 | 타인을 함부로 대하는 사례와 원인을 조 사하여 글로 정리한다. | 글(미완) |
| 유한울 | 역사 공부하고 알리기 | 이동진쌤 | 역사를 공부하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은 내용을 정해 알린다. | 독립운동가 카드뉴스 |
| 이신우 | 친구들과 놀기 | 잠자리 |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놀이를 준비해서 진행한다. | 놀이 평가서 |
| 한정우 | 멸종위기 동물 알리기 | 종다리 | 멸종위기 동물과 원인을 조사하고 사람들 에게 알린다. | 멸종위기 동물 카드 뉴스 |

- 아주 작은 활동이라도 계획부터 실행, 마무리까지 스스로, 자발적인 의지를 가지고 해보는 것이 개별 프로젝트의 목표였다. 주제를 탐색하고 정하고 계획을 세우는 데 공을 많이 들였다. 프로젝트가 무엇인지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아 교사가 많은 제안을 해야 했다. 계획에는 개별 프로젝트를 긍정적으로 경험하고 실천했던 선배(웅재, 고은)들과의 만남을 통해 프로젝트 과정과 의미를 이해하는 활동이 있었는데, 시기를 놓쳐 진행하지 못한 게 아쉽다.
- 열명의 아이들이 각각 의지를 가지고 해볼만한 주제를 정하고 계획을 세운 것만으로도 사실 박수를 쳐주고 싶다. 각자의 계획을 나누고 피드백을 해주고, 필요한 도움을 요청하는 과정을 통해 서로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다. 처음에는 모두 의욕적인 모습이었다. 필요한 자료를 찾아보고 스스로 준비하고 고민하며 활동 자체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이거 어떻게 해요?&하며 계속 교사를 찾기도 했다. 스스로 무언가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많은 지원이 필요했다. 그리고 각자의 활동이 어느 정도 안정화 될 무렵에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느 정도 시들해졌다. 정말 본인이 원해서 하는 게 맞나 싶게 마지못해 하는 모습도 있고, 도전이나 성취를 하려 하기 보다는 편하고 쉬운 것만 하려는 모습도 있고, 무얼 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떼우려는 모습도 있었다.
- 멘토와의 만남, 중간평가, 마무리발표회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장치였다. 멘토를 정하지 못해 공란으로 둔 학생들에게, 담임교사나 부모를 멘토로 정한 학생들에게 기어코 다른 사람을 제안해서 연결해주려고 했다. 이 과정에서 간담회 때 부모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멘토 추천을 받았던 게 도움이 많이 되었다. 새로운 사람과 관심 분야에 대해 소통하며 확장하는 경험을 하게 하고 싶었다. 끝까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학생도 있었지만, 대부분 멘토를 정해 1번 이상 만남을 가졌다. 꾸준히 멘토와 소통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한학생들도 있었다. 학생들의 모습에서 프로젝트의 방향성을 잃지 않고 실천하기 위해서는 좋은 멘토를 연결시켜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간평가를 나누고 마무리 발표 계획을 세우면서 학생들은 시들해졌던 의지를 다시금 회복하기도 하고, 억지로 짜내기도 했다. 마무리 발표회는 내부적으로 하게 되었지만, 소소하게 서로의 성취를 축하해주는 시간이 되어 좋았다.
- 이번 학기에는 개별 프로젝트 과정을 함께 경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 관심사가 분명하고 주도적인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토대로 벌써 다음 학기 프로젝트를 계획하기도 했다. 반면 소극적이고 스스로 하는 활 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은 개별 프로젝트 시간이 괴로울 것이다. 실패하든 성공하든 모두에게 이런 경험이

8) 9학년 이동학습

| 교과명 | 이동학습 | 담당교사 | 아미 | |
|-------|---|--|--------------------|--|
| 수업시간 | 1. 3~4월 - 월요일 3,4교시 - 금요일 3,4교시 - 주말 1박 2일 답사 2회 2. 5월 2일 ~ 7월 2일(9주) - 이동학습 | 수업대상 | 9학년, 곽 찬 | |
| 수업 목표 | - 스스로, 함께 생활하며 자립기술과 협력하는 방법을 배운다 마을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며 생태적 삶을 배운다 일과 공부를 스스로 계획하여 실천한다. | | | |
| 수업 내용 | I. 이동학습 준비(3~4월) i. 서클 - 들어가기 활동 - 서로 이해하기/알아가기 - 영학년 공동체 약속 만들기 ii. 이동학습 이야기 - 이동학습 준비 일정 및 계획 - 지난 이동학습 생활 돌아보는 - 이동학습에서 걱정되는 점, - 개인 이동학습 목표 및 배원 - 이동학습 생활약속 및 역할 iii. 답사 - 아산학사 공간 정리 및 둘러 - 밭 만들기 - 농작물(잎채소, 감자, 완두콩 II. 이동학습(5월 2일 ~ 7월 2) 1. 하루 일과 및 생활 - 오전 : 몸 깨우기(산책, 몸살림) : 오전 수업 및 활동 - 오현 : 청소, 오후 수업 및 활동 - 양구나눔(안건 논의, 하루 요) 2. 외부 연계 수업 및 활동 - 농사 | 기(이동학습 문집과 영상) 기대되는 점, 서로 도와줄수 있는 경계획 세우기 정하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보기 (| 는 것, 스스로 노력할 점 나누기 | |

- : 주 4회(월~목) 오전 3시간 진행
- : 밭 만들기, 잡초 뽑기, 작물 수확
- 마을 협동조합 고랑이랑
- : 주 2회(화요일 전일 & 목요일 오전) 진행
- : 협동조합에 대해 알기, 반찬&농작물 꾸러미 배송
- 숲 to you
- : 월요일 오전, 오후 진행
- : 등산, 숲길 걷기, 목공수업, 암벽등반
- 3. 내부 수업 및 활동
- 제철음식과 문화
- : 수요일 오후 진행
- : 제철 음식 만들어 먹기, 들나물로 반찬 만들기, 기후위기 공부(신문기사 읽기, 강의 듣기), 영화 <씨스피라시> 시청
- 성평등
- : 목요일 오후 진행
- : 도서『페미니즘의 도전』읽고 나누기, 영화 <써프러제트>, <히든 피겨스> 시청
- 진로
- : 금요일 오후 진행
- : 진로 고민 글로 정리하기, 정리된 내용 친구들과 나누고 서로 피드백 하기, 나에게 맞는 교육과정에 대해 고민하고 정리하기, 졸업 선배들과의 만남(고민되는 점, 궁금한 점 인터 부와 줌으로 나누기)
- 개인 프로젝트
- : 화요일 오후 진행
- : 각자 하고 싶은 주제와 내용 정해서 진행

<u>I. 이동학습 준비</u>

- 수업을 시작하기 전, 아이들과 간단한 놀이를 진행하거나 그 날의 기분 등을 나누는 활동을 써클로 진행했다. 너무 딱딱하지 않게, 서로에 대해 편하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놀이를 통해 몸이 풀리기도 해 수업 시작 전 진행하기에 적절했다.
- 공동체 약속도 써클로 진행했는데,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모두 들을 수 있어 좋았다.
- 작년에 한 달 경험이 있어 그런지 이동학습 일정과 계획을 나누는데 크게 어렵지 않았다. 이 동학습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생활약속과 역할 등을 정하기가 수월했다.
- 올해 9학년 친구들 대부분이 작년 이동학습을 힘들어 했기에 이동학습 시작 전, 걱정되는 점과 기대되는 점에 대해 자세히 나누었다. 혼자만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한 내용을 친구들과 나누고, 서로 도와줄 수 있는 점과 스스로 노력할 수 있는 점을 나누었는데, 서로 공감하기도 하고 지지와 격려도 해줄 수 있어 좋았다.
-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대체로 잘 되었지만, 아이들 개별마다 걱정과 염려의 정도 가 달라 개별 면담이 많이 필요했는데, 일정이 빠듯해 면담을 많이 진행하지 못해 아쉽다. 면담 일정을 사전에 잡아 진행하는 게 필요하겠다.
- 답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총 2회 진행했는데, 적절했던 것 같다. 들살이 준비도 같이 하느라 일정이 빠듯하긴 했지만, 학사 공간 정리와 농사 준비(밭 만들기, 작물 심기)를 하려면 최소 2회는 필요했다. 내년에도 답사는 2회 정도 진행하면 좋겠다.

수업 평가

<u>II.</u> <u>이동학습</u>

- i. 기간과 시기
 - 올해로 이동학습 5년차가 되었다. 한 달부터 세 달까지 이동학습을 진행해 본 결과, 한 달은 무언가를 시작해 매듭짓는데, 자립을 경험하고, 함께 살아보는 경험을 통한 배움을 가져가기에 무리가 있었다. 어려움을 직면하기도 전에 마무리가 되기에 이동학습의 목표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최소 두 달은 진행해야 자립을 경험하고, 공동체와 나에 대한이해와 고민을 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 두 달의 기간이 적절했다. 세 달의 경우, 그 해 구성원에 따라 가능하기도 하고, 불가능하기도 한데, 두 달의 기간은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아이도 해볼 수 있는 기간이었다. 앞으로 이동학습 기간을 두 달로 정해 진행하면 좋겠다.
 - 상반기 봄 들살이를 마치고, 바로 이동학습을 시작하는 것이 일정상 조금 무리가 있기는 하지만, 농사를 제대로 경험하려면 4월 말에 시작하는 게 적당하겠다. 올해 봄 들살이 일 정이 미뤄지면서 5월에 이동학습을 시작했는데, 원래 계획대로 봄 들살이를 진행한다면 내년에는 4월 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겠다.

ii. 하루 일과와 수업

- 몸 깨우기(산책, 몸살림)
- : 산책은 일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 진행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귀찮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매일 하니 후반에는 많이 익숙해졌다. 잠을 깨기에 산책이 가장 효과적 이었고, 하루를 잘 시작할 수 있었다. 아이들도 산책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 : 몸살림은 농사를 새벽에 진행하면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 농사를 하지 않는 월요일과 토요일만 진행했다. 몸살림은 월요일은 상민이, 토요일은 하루지기가 진행했다. 간단한 몸살림 내용을 붙여 놓고, 그 내용을 진행하기도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스트레칭을 하기도했는데, 의외로 아이들 평가가 좋았다. 가볍에 몸을 풀기에 적당했는데, 조금 짧은 감이 있어 내용을 추가해도 좋겠다. 매일 하지 않아 아쉽다는 아이들 평가도 있었다. 내년 일정을 정할 때, 고려해보면 좋겠다.

- 하루 나눔

- : 매일 저녁 하루를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루 이야기 나눔, 안건 논의, 생활약속 점검, 건의사항을 나눴다. 인원이 적어 1시간 안에 마쳤고, 그래서 아이들이 집중해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 : 매주 금요일 하루 나눔 시간에 미디어 약속을 잘 지켰는지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아이들이 약속을 상기할 수 있어 좋았다. 그 외 생활약속은 정기적으로 평가하지 못해 아쉽다. 모든 생활약속과 공동체 약속을 정기적으로 평가하는게 아이들 스스로 생활을 돌아보는데 도움이 되겠다.

- 농사

- : 숲 to you 수업이 있는 월요일을 제외하고, 평일 4일 오전에 3시간씩 진행했다. 처음에는 몸을 써보지 않아서 아이들이 농사 수업을 많이 힘들어하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몸에 익어 일을 잘 해나갔다.
- : 꾸준히 하는 게 필요해 평일 4일 일정으로 활동을 진행했는데, 조금 힘들긴 해도 몸에 익으려면 4일 이상의 일정이 필요하겠다. 아이들은 평가에서 일정을 줄이는 것도 좋겠다고 제안했다.
- : 날씨는 좋았다. 조금 덥긴 했지만, 비가 많이 오지 않아 계획된 일정을 거의 다 진행했다.
- : 올해도 호미와 농사 수업을 함께 했는데, 내년에는 다양한 어른들과 만남을 시도해봐도 좋겠다. 느릅실에 혼자 농사를 지으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많아 그분들과도 연계를 시도해보면 좋겠다.

- : 날이 더워 새벽에 농사 수업을 진행했는데, 적절했다. 5월 중순부터 해가 일찍 떠서 오전 8시만 되면 일을 하기 어려웠다. 30분 이른 기상이 힘들긴 했지만, 새벽 농사에 대한 아이들 평가는 좋았다.
- 협동조합 고랑이랑
- : 코로나로 많이 결합하지는 못하고, 한 명이 한 주씩 이틀을 경험했다. 협동조합에 대해 듣기도 하고, 건강한 식재료와 반찬을 만들고, 꾸러미 배송도 경험했다. 일정이 짧아 체험 정도로 그쳐 아쉽다. 상황을 봐야 하겠지만, 가능하다면 내년에는 이동학습 시작과 동시에 고랑이랑 결합을 하면 좋겠다.

- 숲 to you

- : 숲 to you는 올해로 3년 째, 진행하고 있다. 오전에는 목공, 오후에는 등산을 했다. 날이 더워지면서 아이들이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대체로 숲 to you 수업을 좋아했다.
- : 목공 수업 때, 개인 작품도 만들고, 공동 작업으로 학사에 필요한 물건을 만들었는데, 논 의할 때는 공동 작품을 만드는 것에 큰 이견이 없었는데, 평가에서 개인 작품을 더 만들 지 못해 아쉽다는 아이들 평가가 있었다.
- : 등산은 아이들이 많이 힘들어했다. 높이가 높지는 않았지만, 길이 험해 힘들었다. 나중에 는 아이들 체력을 고려해 난이도를 조절해 진행해 주셨다.
- : 암벽등반은 쉽게 해볼 수 없는 활동이라 아이들에게 좋은 경험이었다.
- 제철음식과 문화
- : 달님이 모든 수업을 다 진행해 주셨다. 밑반찬부터 간식까지 다양한 요리를 해볼 수 있어 아이들의 만족도가 높았다. 직접 만들어 먹으니 아이들이 수업을 재밌어 했다.
- : 단순히 음식을 해먹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후 위기에 대한 공부도 함께 했다. 아이들이 어려워하긴 했지만, 기사나 영상 자료의 내용을 스스로 정리하는 과정을 통해 배움을 확장할 수 있었다.
- : 달님이 두 달간 모든 수업을 다 진행해 주셨는데, 특강 형태로 1~2회 정도 아침햇살이 진행을 해주셔도 좋겠다. 올해 달님이 다른 일정도 있으셔서 체력적으로 무리가 되지 않 는지 확인해보고 내년에도 달님이 비슷한 상황이라면 아침햇살 특강도 논의를 해보면 좋 겠다.

- 성평등

- : 책 『페미니즘의 도전』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와 나누었다. 책 내용이 어려워 처음에는 읽어오는 것도 버거워했는데, 수업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이 자기가 이해한만큼 잘 정리해왔다.
- : 다양한 책을 읽고 싶었는데, 책이 어려워 속도를 조절해 수업을 진행했고, 한 권의 책을 다 읽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해 진행했다. 아이들이 각자 책을 선정해 나눴어도 좋았겠다.
- : 페미니즘의 역사, 젠더, 성매매, 성차별 등 매 시간 꼭지를 정해 다양한 생각을 나누어 좋 았다. 인원이 적어 모든 아이들의 생각을 다 나눌 수 있었다.
- : 마지막 시간에 청소년 성지식 체크리스트를 작성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매년 성평등 수 업을 진행해도 아이들은 성에 대한 호기심과 지식에 대한 욕구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이들이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재미있게,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가치적인 교육도 필요하지만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공유도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 진로

- : 달님이 진행했고, 거의 외부에서 수업을 진행했다. 카페에서 많이 했는데, 외출을 하는 것 만으로도 아이들이 좋아했다.
- : 올해 9학년은 학교와 교육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보다는 자기에 대한 정리, 나눔이 많이 필요했다. 올해 9학년 아이들이 진학이나 진로, 학교생활에 대한 각자의 고민을 친구들과 나눈 경험이 거의 없었는데, 진로 시간에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친구들의 조언을 듣는 시간을 많이 가졌고, 이에 대한 아이들의 평가가 좋았다. 처음으로 진지하게 자신에

대한 이야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다.

: 졸업한 선배들과 서면으로 인터뷰를 진행하고, 줌으로 만나는 시간도 가졌다. 공교육, 특성화 대안학교, 미인가 대안학교, 예고 네 분야로 나누어 진행했고, 아이들이 실질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바쁜 일정 가운데 각자 마음과 시간을 내준 졸업생들에게 고마웠다.

- 개인 프로젝트

: 그림, 검정고시 준비, 관심사 공부 등 각자 이동학습에 오기 전 계획을 세웠다. 초반에는 계획에 맞게 활동을 진행했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계획된 내용을 하기 보다는 그 때, 그 때 하고 싶은 것을 하거나 쉬는 경우가 많았다. 마지막에 전시나 발표회를 진행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아쉽다.

iii. 생활과 역할

- 식사당번

- : 한 모둠 당 2명씩 세 모둠을 구성했다. 인원이 적어 주에 2번씩 식사당번을 해야 했는데, 차례가 자주 돌아와 조금 버거웠다.
- :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정성들여 다양한 요리를 하는 아이도 있었지만, 매번 귀찮아 대충하는 아이도 있었다. 또, 모둠원끼리 소통이 잘 되지 않아 식사 준비가 잘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에 대해서 하루 나눔 시간에 나눴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후반에들었다. 생활약속 뿐 아니라 역할에 대한 평가도 정기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

- 청소

: 평일에는 정기적인 청소를 하고, 일요일에는 대청소를 했다. 인원이 적어 잘 할 수 있을 까 걱정했는데, 오히려 인원이 적어 청소를 더 꼼꼼히, 책임감 있게 할 수 있었다. 명확하게 자기 할 일이 정해져 있으니 아이들이 요령 피우지 않고 열심히 청소했다.

- 하루지기

- : 아침에 아이들 깨우기, 시간 알림, 일정 챙기기, 몸살림 진행 등의 역할을 진행했는데, 역할 수행에서 아이들마다 정도의 차이가 있긴 했지만, 크게 어려움은 없었다.
- : 매일 하루지기 자체 평가를 해 나누었는데, 내년에도 하면 좋겠다.

- 생활약속

- : 아이들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약속은 미디어와 외박 약속이었다. 미디어 약속은 처음에는 완전 자율로 두고, 아이들이 일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약속을 정했는데, 중간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약속을 두 번 정도 수정했다.
- : 미디어 약속은 매 주 금요일 하루 나눔 시간에 평가를 진행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약속을 상기하고, 점검할 수 있어 좋았다.
- : 외박 약속 역시 미디어 약속 만큼 아이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다. 기본 전제는 외박 이후, 이동학습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이었다. 스스로 판단했을 때, 그리고 함께 하는 친구들이 봤을 때, 이동학습에 영향을 준다면 일정을 조절하기로 이야기 나누었는데, 결과적으로 6월에 주말 일정이 많아 외박을 많이 진행하지 못했다.
- : 내년에도 횟수보다는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기준으로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
- : 성평등 약속과 안전 약속은 중간에 한 번 점검을 했는데, 크게 일이 일어나지는 않았다. 그러나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생활약속이나 공동체 약속 내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 가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 역할

- : 올해는 역할이 두 가지 밖에 없었다. 기록과 방역. 회계는 달님이 계속 장을 봐주셔서 역할을 따로 두지 않고, 교사가 관리했다.
- : 기록 역시 아이들이 역할을 맡기는 했지만, 핸드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계속 보관 장소에 둬야 해서 아이들이 상시적으로 핸드폰을 소지 하지 않아 기록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내년에는 기록 역할을 맡은 친구는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챙겨야겠다. 카메라가 있다면 카메라를 가져가는 것도 방법이겠다.

: 방역은 역할을 잘 해주었다. 아침, 저녁으로 체온 체크를 열심히 해 기록했다.

- 주말

- : 토요일은 오전 일정까지는 평일과 동일하게 지내고, 오전 9시부터는 개인시간으로 정해 지냈다. 외출도 가능했는데, 외출을 나가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고, 대부분의 아이들이 학사에서 미디어만 했다. 미디어 외에 다른 활동도 해보도록 권했지만, 잘 되지 않았다. 자유시간도 필요한데, 너무 하나에만 꽂혀 다양한 활동이나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쉬움이 남는다. 내년에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 일요일은 오전에 자율기상이었고, 점심 식사 이후 대청소와 밑반찬 만들기를 했다. 일요일에 한 주를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적절했던 것 같다. 다만, 주말 동안 활동이 거의 없어 무기력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그래서 월요일에 더 힘들어했다.

III. 총평

i. 시기, 기간, 학년

- 시기는 5~6월이 가장 적당하다. 비도 오지 않고, 날이 좋아 농사 뿐 아니라 모든 활동을 하기에 좋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진학 고민과 졸업 준비를 해야 해서 상반기 진행이 적당하다.
- 기간은 두 달 제안. 한 달은 활동을 진행하기에, 또 공동체를 경험하고 자립을 해보기에 기간이 짧다. 집을 떨어져 생활하기 어려운 아이도 세 달은 힘들지만, 두 달은 시도해 볼 수 있겠다. 앞으로는 두 달로 확정해 진행하면 좋겠다.
- 학년은 9학년으로 제안. 789학년 전체가 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공간 상 인원이 많으면 지내기가 어렵고, 이동학습의 목표나 활동의 명확성을 가져가려면 한 학년으로 가져가는 게 더 좋겠다. 처음 만들어졌을 때, 9학년 마무리 과정으로 만들어졌고, 현재 9학년 아이들에게 이동학습이 주는 배움과 영향이 있기에 앞으로는 9학년 과정으로 정해 진행하면 좋겠다.

ii. 아이들 모습

- 작년에 힘들어했던 것과는 달리 올해 잘 지내주었다. 9학년이 되고 마음가짐이 달라진 것 도 있고, 9학년끼리 지내는 것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 한 달이 지나가면서 아이들이 가진 개별의 어려움들과 불편함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이동학습을 하는 이유가 자립의 경험도 있지만, 공동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안에서 나의모습과 각자가 가진 어려움과 불편함을 피하지 않고, 직면해보는 것인데, 한 달이 넘어서니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아이들 모두 각자의 어려움과 마주했고, 이를 피하지 않는 경험을 해보았다. 해결이 되지 않더라도 각자의 어려움을 알게 된것, 이를 마주하게 된 것 만으로도 큰 배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 두 달 동안 생활에 큰 어려움 없이 잘 지낸 아이, 처음부터 걱정과 불안이 많았던 아이, 중반부터 슬럼프를 겪은 아이, 생활에 안정감이 없었던 아이. 각자의 어려움과 모습이 다 다른 아이들과 이동학습을 무사히 마쳤다. 많은 어려움에도 이동학습을 잘, 그리고 의미 있게 마칠 수 있었던 건 각자가 낸 의지였다. 끝까지 마음을 내고, 자기와의 싸움을 해나 간 5명의 친구들에게 고맙다.

iii. 교사 협력

- 인원이 적어도 지원교사는 필요하다. 교사의 휴식, 위급상황에 대한 대처, 아이들 논의 등 교사 협력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때문에 앞으로 이동학습에서 지원교사는 꼭, 필요하다.

- 생활교사가 아이들의 생활과 면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달님께서 살림과 수업을 많이 지원 해주셨다. 달님이 작년 이동학습으로 올해 9학년 아이들과 관계가 어느 정도 맺어져 있어 서 아이들 모습을 관찰하고 지원하는데, 아이들 고민을 나누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협력이 잘 이루어졌다.
- 내년에 큰 일이 없다면 내년에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셔서 달님이 가능하시면 계속 함께 하면 좋겠다.

iv. 제안사항 및 논의사항

- 교사 구성
- : 처음 이동학습이 만들어 질 때는 중등 교사회가 먼저 고민하고, 진행했다. 전체 교사회와 는 동의를 구했다기 보다는 진행에 대한 공유 정도만 했던 것 같다. 그러나 올해로 5년차 가 되었고, 내용에 대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 않았을 까 싶다.
- : 현재는 몇몇의 교사들이 이동학습 교육과정을 맡아 하고 있는데, 이는 분명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교사회에서 로테이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 몇몇 교사만 맡기에는 한계가 있고, 지속 가능성이 없다.
- 내년 9학년
- : 내년에는 9학년이 3명으로 역대 최소 인원이고, 개별성이 강한 그룹이다. 같이 하는 활동 도 필요하지만, 개별적인 교육과정과 활동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다.
- : 공동체와 개별 배움이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4. 하루열기/닫기

1) 1~2학년

| 교과명 | 하루열기 하루닫기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매일 9:10-9:20 매일 3:40-4:00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 목표 | (1) 하루 일과 알리기 (2) 하루 일과 어땠는지 나누기 | | |
| 수업 내용 | 하루열기 분주한 마음을 차분하게 정리하고, 멍해진 머리를 깨웁니다. 오늘이 몇 월 몇 일인지, 학교에 오면서 느낀 날씨는 어떤지 이야기 나누고, 하루 시간표를 나눈다. 하루닫기 청소를 마친 후 정돈 된 교실에서 간식을 먹는다. 오늘 하루 어땠는지 이야기를 나누 기도 하고, 오늘 하루 중 고마웠던 일, 아쉬웠던 일 재미있었던 일을 나눕니다. 숙제와 준비물도 챙긴다. | | |
| 수업 평가 | 하루열기 1학년 생활 목표는 산학교에 편안하게 적응하기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등교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1학년 아이들 등교시간이 제각각이어도 괜찮았다. 4.5월이 되고 1학년 아이들 등교시간이 제각각인 것에 대해 걱정 하시는 부모님들이 있어. 1학년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학교에 오는 것이라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은 점점 학교에 잘 적응하는 모습이었다. 1학년 아이들의 등교 시간이 제각각이라 하루열기를 시작하는 시간도 제각각이었다. 어떤 때는 9시에 했다가. 어떤 때는 9시 30분에 하고 그랬다. 학기 말 작은산회의에서 하루열기 시간이 제각각이라 몸깨우기를 많이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9시 10분에 하루열기를 하자고 결정을 했다. 그뒤로 하루열기를 9시 10분에 했고, 1학년 아이들도 편안히 등교 할 수 있었다. 2학년 아이들은 학교에 적응했고, 조금씩 규칙들을 배우고 익혀야 할 때어서 9시 등교를 할 수 있도록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그래서 학기 초 등교시간이 제각각이었는데, 점점 9시안에 등교 하는 모습이었다. 하루닫기 하루닫기 때 간식을 먹으며 그날 몸, 마음의 컨디션이 어떤지 함께 이야기 나누었다. 컨디션이좋지 않거나 속상한 일이 있던 아이들은 이 시간에 자기 이야기를 털어놓기도 했다. 그날 고마웠던 일과 좋았던 일도 함께 나누며 즐겁게 하루 일과를 마무리 했다. | | |

2) 3~4학년

| 교과명 | 하루열기닫기 | 담당교사 | 기린 |
|---------------|---|------|------|
| 수업시간 | 매일 9:10-9:20 매일 3:40-4:00 | 수업대상 | 34학년 |
| 수업 목표 | (1) 책읽고 노래부르기 (2) 하루 소개 및 소감 나누기 | | |
| 수업 내용 및 평가 | 하루열기는 몸놀이로 거의 대체되었다. 하루닫기 때 아이들과 책을 읽고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차분하게 자리에 앉아 책을 읽으면 분위기가 조용해지고 차분해진다. 아이들이 앉아서 만화책을 읽으면 당연히 집중이 된다. 다같이 읽을만한 좋을 책을 선정해서 같이 읽는 것도 좋을 것 같다. 1학기에는 외부 수업도 있고 말과 글 수업이 끝나면 책읽는 것을 싫어해서 꾸준히 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2학기에는 하루열기 시간에 잠깐 책을 잃고 몸놀이를 진행을 한다거나 하루닫기 시간에는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집에 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 | | |

3) 5~6학년

교사 : 말랑(박은애), 로다(권혜지)

1) 하루열기/ 닫기

■ 수업 목표

-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며 자기 생활을 스스로 계획하고 점검한다.
- 읽고 싶은 책 읽는 시간을 가지면서 책 읽기에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한다.

■ 내용

- 하루열기 : 매일 책읽기를 하고 시간표와 공지 알림을 했다.

- 하루닫기: 하루 생활 나눔, 공지 알림, 알림장 쓰기, 간식 먹기를 했다.

■ 평가

하루 열기 시간에 20분 정도 읽고 싶은 책을 꾸준히 읽었다. 책읽기 시간을 꾸준히 가지면서 책 읽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다양한 책을 자유롭게 읽는 분위기가 좋고 편하다는 친구들이 많았다. 간혹 이야기를 나누거나 개인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경우가 있어서 학급회의를 해서 아침 책읽기 시간 규칙을 정했다. 책읽기와 개인활동을 하기로 했다. 그래서 그림 그리기와 숙제하는 것, 가만히 앉아 있는 것 까진 열어두기로 했다. 소리를 내거나 움직이는 활동은 하지 않기로 했다. 학기말 까지 아침 책읽기 시간이 잘 이루어졌다. 하루 닫기 시간에는 생활나눔을 꾸준히 했고 일정 공지와 알림장 쓰기를 주로 했다. 동아리와 학생회 마치고 오는 아이들이 늦는 경우가 있어서 시간이 조금 빠듯했다. 생활 나눔에서 주로 나온 이야기들은 축구에

대한 갈등이었다. 이런 갈등 사례는 작은산회의로 이어져서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찾는 회의로 연결되었다. 그리고 알림장을 꾸준히 썼다. 처음에 알림장 쓸 땐 불만이 많았다. 외울 수 있다. 귀찮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준비물을 여러번 가져오지 않아서 다같이 알림장 쓰기로 했다. 꾸준히 실천했다.

4) 7~9학년

| 교과명 | 하루열기닫기 | 담당교사 | 자연, 아미 |
|---------------|--|------|--------|
| 수업시간 | 매일 9:40-10:00 매일 4:10-4:30 | 수업대상 | 789학년 |
| 수업 목표 | -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 하며 자기 생활을 스스로 계획하고 평가한다. | | |
| 수업 내용 및 평가 | - 하루열기: 인사 나누기, 하루 일정 안내, 숙제 확인, 세상보기(영상, 기사 읽기) - 하루닫기: 간식 먹기, 공지 알림, 한주 생활 나눔, 하루 생활 배움 정리글 작성하기(과제) 청소가 늦게 끝나 하루 열기는 주로 인사 나누기, 일정 안내를 하고 마쳤다. 숙제를 보고하는 시간이기도 했다. 2학기에는 오전 수업이 여유로운 날을 골라 한주에 한 번씩 교사가 준비한 영상이나 기사를 함께 보고 나누는 활동을 진행했다. 지루해하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학생들과 현안을 나눌 수 있어 좋았다. 하루닫기 시간은 서로에게 안내해야 할 내용을 나누는 시간으로 활용했다. 금요일에는 한주 지낸 이야기를 나누며 마무리했다. 매일 생활과 배움을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활용하여 기록하도록 했다. 배움과 생활에서 목표와 약속을 정하고 이를 꾸준히 기록하고 평가하는 목적이었다. 꼼꼼히 기록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형식적으로 기록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평가 항목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해야겠다. | | |

5. 몸활동

1) 1~2학년 몸깨우기

| 교과명 | 몸깨우기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매일 9:30-10:00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 목표 | (1) 산학교에서 하는 놀이 배우기 (2) 놀이 중 의견이 맞지 않거나 갈등이 있을 때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직접 부딪치며 배우기 (3) 자기 몸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순발력, 민첩성, 상황판단력과 체력 기 르기 | | |
| 수업 내용 | 놀이 정하기 - 3월-4월: 피구, 축구, 진놀이, 팔자놀이, 나이먹기, 한발뛰기, 얼음땡, 샐러드, 오징어 달구지, 육발, 깡통차기 등등 산학교에서 하는 놀이 해보며 규칙 배우고 익히기 - 5월-7월: 월요일 하루열기 때 그 주 아이들이 각자 하고 싶은 놀이를 제안해서 놀이 정하기 | | |

놀이 배우고 익히기

- 2학년이 1학년과 짝이 되어 놀이 알려주기
- 한 가지 놀이를 꾸준히 해보며 연습해보기
- 1학년 아이들이 몸깨우기 놀이를 배울 때 규칙을 배우고 익혀야 해서 학기 초에는 몸깨우기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려워했다.
- 1학년 중 승언이를 제외하고 다른 친구들은 2학년과 체격차이가 커서 같이 몸깨우기를 할때 부딪치거나 겁을 먹는 모습이 있었는데, 학기 말이 되니 겁먹지 않고 적극적으로 몸깨우기를 하는 모습이었다.
- 매일매일 몸깨우기를 하니 다양한 놀이를 경험할 수 있어서 좋다. 아이들마다 자기가 좋아하는 몸깨우기 놀이가 생긴 것 같다.
- 1학년 아이들의 등교시간이 일정하지 않고, 늦게 오는 경우가 많아 하루열기를 9시 20분에 시작해서 몸깨우기를 많이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작은 산회의에서 이 문제를 함께 상의해서 1학년 아이들이 오지 않아도 9시 10분에 하루열기를 하고 몸깨우기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이렇게 결정한 후 1학년 아이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등교할 수 있고, 몸깨우기를 빨리 하고 싶어하는 아이들도 약속한 시간에 하루열기를 하고 바로 몸깨우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다.

아이들 평가

- 율: 2학기 때도 매일매일 몸깨우기를 하면 좋겠어. 재밌고, 몸깨우기를 하면 몸을 많이 써서 더워서 에어컨을 틀 수 있어.
- 유하: 재밌었어. 축구를 원래부터 잘한 건 아니었는데 계속 하니까 잘하게 돼. 공에 맞아서 울기도 했는데, 괜찮았어. 열심히 뛰어다니니까 좋아.
- 하린: 겨울 되면 추워서 밖에서 잘 못 노니까 지금 날씨 좋을 때 많이 놀면 좋겠어.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진놀이가 가장 좋았어. 진놀이 할 때 우리팀이 이겨서 좋았어
- 승언: 몸깨우기 재밌었어. 축구가 가장 재미있었는데, 몸을 잘 쓰는 활동이어서 좋았어. 아빠랑 축구를 좀 해봐서 괜찮아
- 은성: 축구할 때 좋았어. 내가 축구를 좋아해서 우리팀이 자주 이겨서 좋았어. 1학 년이 처음에는 축구를 잘 모르고, 공을 무서워했는데 요즘엔 잘 해줘서 좋았어
- 지헌: 몸깨우기가 좋아. 운동을 하면 키가 커지잖아. 키가 크면 다른 친구들을 돌와 줄 수 있어서 좋았어. 처음에 몸깨우기가 어려웠는데 지금은 점점 재미있어져. 돼지 씨름이랑 축구가 재미있어. 피구는 여전히 싫어 공에 맞는게 싫어.
- 제이: 몸깨우기가 재밌어. 피구랑 경찰과 도둑이 재밌어. 경찰과 도둑 할 때 도망가는 게 재밌어. 처음에는 몸깨우기 배우는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뛰어다니는 게 좋아서좋아.
- 건우: 재밌어. 경찰과 도둑이랑 깡통차기가 재미있었어. 새로운 몸깨우기를 배우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괜찮아
- 산희: 재밌어 축구랑 깡통차기랑 팔자놀이가 재밌었어. 2학기 때는 오징어달구지를 같이 하면 좋겠어. 1학년들이 예전보다 몸깨우기를 잘해.
- 제안: 2학기 때 오징어 달구지, 야구, 발야구 해보면 좋겠어

수업 평가

2) 3~4학년 몸놀이

| 교과명 | 몸놀이 | 담당교사 | 기린 |
|-------|---|------|------|
| 수업시간 | 화요일 수요일 10:00-11:00 | 수업대상 | 34학년 |
| 수업 목표 | (1) 체력 단련하기(2) 여러 가지 놀이에 대해 일(3) 협동심 길러보기 | 알아보기 | |

매일 아침 9:30 에 모여 30분씩 몸놀이를 하고 일주일에 2번은 1시간을 더 추가해 몸놀이를 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알고 있고 원하는 몸놀이를 하기도 하고 내가 원하는 몸놀이를 추가하기도 했다. 운동장에서 팔자놀이와 오달, 진놀이 등의 익숙한 놀이를 하기도 했다. 그러다가 강당에서 실내놀이를 해보고 싶어서 장소를 옮겨 강당에서 놀이를 계속 했다. 아이들이 알고 있는 몸놀이를 계속 해보기도 하고 내가 준비한 몸놀이를 하기도 했다. 그런데 처음부터 쉽지 않았다. 계속 싸우고 다투는 모습이 지속되었다. 그래서 다른 서적을 참고해 판정개입, 비난, 불성실, 재미없어,등의 규칙을 아이들과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했다. 또한 몸놀이 시간에 일어나는 사례들을 가지고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규칙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확실히 규칙이 제시되었을 때 아이들이 그 기준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느꼈다. 나 또한 그 과정 속에서 배움이 있었다.

수업 내용 및 평가

평소에 아이들과 실내놀이로 다양한 놀이를 시도해보고 싶었다. 그러나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방법이 어렵기도 했고 설명을 어떤식으로 해야될 지도 몰랐다. 아이들의 반응이 시큰둥한 것도 어려웠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다가 아이들이 직접 몸놀이를 찾아서 진행해보면 어떨까 싶었다. 컴퓨터실에서 영상으로 하고 싶은 몸놀이를 찾고 진행을 해봤다. 생각보다 괜찮았다. 아이들이 생각보다 아이디어가 좋았고 설명도 잘 해냈다. 그렇게 하나하나씩 하다보니 놀이의 숫자가 30-40개 정도로 꽤나 쌓였다. 대부분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했고 나 또한 재미있었다.

아이들이 제일 즐겁게 하는 것은 뛰고 땀흘리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가만히 서서 하는 것보다는 뛰고 잡고 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래서 술래잡기 놀이를 제일 좋아했다. 바나나, 말미잘, 라인, 너구리, 그물, 마피아, 등등 다양한 술래잡기를 진행했다. 그중에 바나나술래잡기를 제일 좋아했다. 해보면 제일 힘들고 땀도 많이 난다.

학기 마지막에 현우가 본인 생일 때 기린이 없으니까 안싸우고 더 재미있게 했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그럼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보라고 했다. 그래도 싸우길래 아이들에게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더니 누군가 여기는 학교여서 그런 것 같다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다.

학교이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명확한 규칙을 알려주고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1학기 때에는 쉽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더 단호하고 확실히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2학기에는 협동 놀이도 진행을 해보고 구기 운동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축구단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체력측정도 해보면 좋을 것 같다. 그동안 했던 놀이를 영상으로찍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아이들이 땀이 맺히고 약간 상기되고 헉헉거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다. 학교에서 아이들이 다같이 운동하고 땀흘리고 체력을 단련하고 노는 활동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

수경: 재미있다. 다양한 놀이를 해서 좋았다. 남자들이 험하게 해서 싫었다.

다인: 몸놀이 시간을 더 늘리고 싶다. 12학년과 같이 안했으면 좋겠다. 나는 몸놀이가 너무좋다.

초아: 몸놀이가 너무 좋다. 시간을 더 늘렸으면 좋겠다. 재미있다.

예서: 몸놀이 재미있다. 더 했으면 좋겠다. 남자 아이들이 좀 살살 했으면 좋겠다.

하엘: 몸놀이는 너무 재미있다.

주안: 재미있다. 그러나 너무 많이 싸워서 힘들었다. 많이 뛰어서 힘들었다. 피구가 재미있었다. 다양한 놀이를 해서 좋았다.

현우: 많이 많이 재미있다.

겸: 뛰어서 너무 좋다.

지윤: 싸워서 힘들때도 있지만 정말 재밌다.

3) 5~9학년 선택 몸활동

- 농구

| 교과 | 농구 (몸활동) | 담당교사 | 말랑 |
|------|---|------|-------|
| 시간 | 수요일 3,4교시 | 대상 | 5~9학년 |
| 수업목표 | • 농구의 기본 기술을 익힐 수 있다. • 농구 게임을 즐겁게 할 수 있다. | | |
| 수업내용 | - 농구와 친해지기 기본 동작 익히기 (패스, 캐치,드리블, 슛) - 농구 드리블과 패스(파운드 드리블, 크로스드리블, 바운드 패스) - 농구 슛 (원핸드세트슛, 골밑슛, 레이업슛) - 자유투 규칙 익히기 | | |
| 수업평가 | 농구에 열정적인 아이들이 모였다. 농구 코치샘의 설명과 훈련 동작을 잘 듣고 열심히 훈련했다. 경기를 할 때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열기가 뜨거웠다. 아이들이 실력이 쑥쑥향상된다고 하셨다. 경기용 신발을 챙겨오지 않아서 수업에 참여 못하는 아이들이 간혹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준비물을 잘 챙겨오고 시간도 잘 맞췄다. | | |

- 배드민턴

| 교과명 | 배드민턴 | 담당교사 | 자연 |
|-------|--|------|------------------------------|
| 수업시간 | 수 13:30 ~ 15:20 | 수업대상 | 1학기 5-9학년 8명 2학기 5-8학년 5명 |
| 수업 목표 | 배드민턴의 기본 동작을 익히고 기초체력을 키운다. 배드민턴을 하며 친구들과 즐겁게 어울린다. | | |
| 수업 내용 | 배드민턴 수업에서 하고 싶은 것, 약속 정하기 스트레칭, 몸풀기 기본 용어 익히기 라켓 쥐는 법, 서는 자세 익히기 기본 경기 규칙 익히기 서브 연습, 포핸드 연습, 백핸드 연습 단식, 복식 경기 하기 | | |
| 수업 평가 | 코로나 19로 실내 배드민턴장 사용이 제한적이라 소수 인원만 신청을 받아 수업을 했다. 더 많은 아이들이 배드민턴을 하고 싶어했는데, 익숙하고 어렵지 않은 운동이어서 그런 듯 하다. 공놀이를 무서워하는 아이들도 배드민턴은 재미있게 한다. 그런데 막상 학교에서는 잘 안 한다. 좋은 운동이니 동아리나 자유시간에 배드민턴을 해볼 수 있도록 권하면 좋겠다. 수업에 참여한 아이들은 배드민턴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것보다는 자유롭게 시합하는 것을 좋아 했다. 몸풀기, 기본 동작 익히기를 간단하게 하고 주로 시합을 많이 했다. 시합 하면서 자세나 스트로크를 자연스럽게 익혔다. 아이들 모두 실력이 많이 늘었다. 일신배드민턴장 사용이 제한되면서 솔안말배드민턴장으로 옮겨서 수업을 진행했다. 에어컨이 나와서 쾌적하게 운동을 즐길 수 있었다. 인원 제한이 있는데 사람이 많을 때가 있어 모둠을 나누어 수업을 해야했다. 코로나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하반기에도 소수 인원으로 수업을 | | |

할 수밖에 없겠다.

- 홈트레이닝

| 교과명 | 홈트레이닝 | 담당교사 | 로다 |
|-------|---|------|---------------------------------|
| 수업시간 | 수 13:30 ~ 15:20 | 수업대상 | 5-9학년 (참여학생: 혜주, 지인, 해솔, 하람) |
| 수업 목표 | 1. 운동 동작에 집중하며 건강한 몸을 만들 수 있다. 2. 자신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약속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 | | |
| 수업 내용 | 1. 체력 측정(4월 7일, 7월 7일에 측정하여 측정값 비교) 1) 윗몸 말아 올리기 2) 앉아 윗몸 앞으로 굽히기 3) 팔벌려뛰기 4) 철봉에 오래 매달리기 2. 기초체력 증진활동 1) 거마산 등산 2) 달리기(직진코스, 지그재그 코스, 달리기를 활용한 다양한 게임) 3. 요가, 홈트레이닝 영상 시청하며 동작 따라하기 4. 건강약속실천 매주 점검 | | |
| 수업 평가 | - 인원 구성이 적어서 아이들을 한 명 한 명 자세하게 볼 수 있었다. 그 덕분에 개별적으로 잘 안 되는 동작들이나 잘못 이해한 동작들을 다시 알려줄 수 있었다 홈트레이닝 영상을 보며 동작을 따라하는 활동을 많이 했는데 영상 중에 노래를 들으며 춤 동작처럼 운동을 하는 영상이 있었다. 그런데 생각보다 그 영상 반응이 좋았다. 춤을 추는 것 같아 부끄러워 하면 어떡하나 걱정했었는데 동작이 시원시원하고 쉬워서 그런지 잘 따라 하고 재밌어했다. 홈트레이닝 영상은 찾으면 찾을수록 무궁무진한데 다음에는 다양한 형태의 운동 영상을 찾아봐도 좋겠다 아이들과 이 수업을 하며 꾸준히 강조했던 것은 '내 건강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평소에도 하며 지내자!'였다. 그래서 몸활동 시간에 운동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 정한 약속을 잘 이행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약속을 되새겨보는 시간도 중요하게 챙겼다. 다들 자기가 정한 약속을 잘 지키려고 노력했다 수업 첫날과 마지막 날에 체력측정을 해서 비교를 해봤는데 대부분 측정값이 향상했다. | | |

- 파쿠르

| 교과 | 파쿠르 (몸활동) | 담당교사 | 로리(석선정) |
|------|--|------|---------|
| 시간 | 수요일 3,4교시 | 대상 | 5~9학년 |
| 수업목표 | • 파쿠르의 기본 정신 및 기본 동작을 익힐 수 있다. • 파쿠르의 동작을 응용하여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 |
| 수업내용 | - 스텝볼트로 뜀틀 넘기 - 레일 위에서 균형을 잡고 안전한 점프 연습 - 핸디캡 가지고 장애물 넘기 - 파쿠르 낙법 | | |
| 수업평가 |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학생들이 다양한 볼트와 점프 착지 등 파쿠르의 기초 움직임을 이동시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경쟁 반대와 이타주의 등 파쿠르 철학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시간이었다. | | |

6. 성평등

1) 5~6학년

| 교과 | 주제학습 - 성평등 (3월~4월 중순) | 담당교사 | 말랑, 로다 |
|------|---|------|--------|
| 시간 | 화요일1,2교시 목요일 3,4교시 | 대상 | 5,6학년 |
| 수업목표 | •성의 올바른 의미와 청소년의 성적 특성을 이해하기 •건강한 섹슈얼리티 형성방안을 제시하기 | | |
| 수업내용 | - 성교육 수업 규칙 정하기 - 사랑의 의미와 연애,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연애의 조건을 생각해보기 - 성적의사 결정의 의미와 책임에 대해 알아가기 나만의 성적 행동 허용 기준표를 정하고 상대방과 의사소통하는 기술을 배워보기, 성에 대한 주장과 거절방법 - 성욕구와 조절 성행동에 대한 자기 조절, 피임의 원리와 필요성을 이해하기, 피임의 종류와 방법 알기 - 성폭력의 실태와 대처방법 - 부천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 | | |
| 수업평가 | 성평등 교육 내용이 작년보단 더 현실적이고 실감났다. 아이들이 관심 있어 하는 내용들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수업에서 나눌 수 있도록 구성했고 아이들의관심도 높았다. 특히 성적 행동 허용 기준을 생각해보는 것, 성적 표현 상황에서 성적 의사 결정에 대한 역할극, 피임의 종류와 사용법에 대해 수업을 할 땐 참여도와 집중력이높았다. 아이들의 삶에서 한창 고민하는 연애, 성욕구와 조절, 성관계와 피임법은 유익한정보이기도 했다. 다만 반 구성원들 사이에서는 서로 성적 주제에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모둠활동이 어려웠다. 적극적인 아이가 있는 반면 성교육 시간에 시선을어떻게 해야 할지, 대화를 하는데 매우 부끄러워하거나 수줍어했다. 그래서 주로 교사와적극적인 아이들의 질문으로 대화가 이루어졌다. 반구성원에 따라 수업 분위기와 참여도는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다. 모두가 성적 존재로 존중받고 안전함을 느끼면 소극적인아이들의 마음도 밖으로 표현할 수 있겠다. 아이들 문화에서 고민되는 지점은 왜곡되고오염된 성적묘사에 상당히 노출되어 있고 비판 없이 대화의 소재로 삼고 있는 모습이다.미디어 매체에서 성적 표현들에 대한 비판능력과 올바른 관점을 가질 수 있는 교육내용이더 필요하겠다. | | |

2) 7~9학년

담당 교사

자연 nature1212@naver.com

수업 대상

• 7-9학년 14명

수업 시간

• 수요일 1,2교시

수업 목표

- 왜곡된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성평등 감수성을 함양한다.
-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성폭력, 성차별에 대한 예방책, 대응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 산학교 성평등 실천 약속을 함께 만들어보고 제안한다.

수업 내용

1차시 : 성평등 수업 들어가기

- 성평등 수업을 하는 이유, 목표와 내용, 약속
- 수업 목표와 방식 소개하기, 수업 약속 정하기
- 엠마왓슨 UN 연설 영상 보고 이야기 나누기
- 앞으로 수업에서 사용할 단어에 대한 기본 개념 익히기 (성, 성차별, 성평등, 성폭력, 섹스, 젠더, 섹슈얼리티, 페미니즘, 성적자기결정권 등)
- 일상에서 자주 듣는 성차별적 언어에 대해 나의 감정과 욕구 이야기나누기

2차시 : 성평등 문화 돌아보기

- 지난 수업 복습 : 페미니즘 관련 용어 익히기. 약속 상기하기.
- 학교 성폭력 관련 영상 시청하고 이야기 나누기
- 성인식, 성평등 문화 관련 설문조사 하기
- 성차별, 성폭력 사례에 대한 나의 감정과 욕구, 원인과 대응방법 이야기 나누기
- 숙제 : 모둠별로 산학교 학생 대상으로 성평등 실태조사 진행하기

3차시 : 산학교 성평등 문화 돌아보기

- 성평등 수업 내용 돌아보기
- 우리반, 교사 성평등 실태 조사 결과 살펴보기, 이야기 나누기
- 산학교 학생들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정리하기

4차시 : 산학교 성평등 문화 돌아보기

• 산학교 성평등 실태조사 결과 나누기

- 모둠별 토론, 발표 : 산학교 구성원들의 성평등 인식, 문제와 해결방안
- 다른 공동체 성평등 약속 살펴보기
- 모둠별 토론, 발표 : 산학교 공동체를 위한 약속과 실천, 제안

5차시 : 산학교 성평등 약속 만들기

- 산학교 성평등 약속 초안 검토하기. 추가, 바꾸어야 할 내용 의논하기
- 산학교 성폭력 대응 방법 초안 검토하고 추가, 바꾸어야 할 내용 의논하기
- 산회의 발제 자료 만들기, 역할 나눔

평가

- 페미니즘에 대해 잘 모르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어서 교사의 설명이 많이 필요했다. 엠마 왓슨의 연설을 통해 성평등이 왜 페미니즘과 연결되는지 알 수 있었다. 학생들의 관심도에 따라 수업 참여도가 달랐다. 7학년들 보다는 89학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었다.
- 산학교 성평등 약속을 구체화하고 만들어보는 것을 목표로 수업을 진행했는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약속을 만들고, 제안하는 것까지 진행이 되어 만족스럽다. 약속을 꾸준히 점검하고 바꾸어 나가는 앞으로의 과정이 중요하겠다.
- 인원이 많다보니 소그룹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누고 발표하는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했다. 학생들끼리 이야기를 나누면서 서로의 모습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도 했다. 다양한 주제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경험을 많이 하면 좋겠다.
- 실태조사를 하면서 자기 자신의 성에 대한 인식, 산학교 사람들의 인식이 어떤지, 우리 안에서도 성에 대한 감수성이 차이가 많다는 것 등을 구체적으로 알 수 있었다. 우리가 가진 편견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시간이 의미있었고, 더 확보된다면 좋았겠다.
- 성평등 약속 만들기를 목표로 수업이 진행되다 보니 약간 당위적인 내용으로만 성평등 수업이 진행된 점은 아쉽다. 이후에 성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활동들을 해나가면 좋겠다.

7. 영어

1) 5~6학년

| 교과명 | 영어 | 담당교사 | 마카롱 |
|-------|--|------|-------|
| 수업시간 | 매주 화 오후 1:30~2:20 2:30~3:20 | 수업대상 | 5,6학년 |
| 수업 목표 | 수업시간에 배운 영어를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다. | | |
| 수업 내용 | 교과서 1단원 -주요 표현 Hi, what's your name?을 통해 친구와 서로 이름을 묻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며 인사를 나누는 법을 연습한다. 영어 철자로 자신의 이름 표기법을 배우고 쓰는 법을 익힌다연극 대본을 활용하여 동물들의 울음소리를 영어로 배운다. | | |

-알파벳 대문자, 소문자를 4선에 맞게 쓰는 법을 연습한다.

-알파벳 Aa~Dd의 발음과 해당 단어를 배우고 읽기/쓰기를 연습한다.

교과서 2단원

-주요표현 what's this?를 통해 주변의 사물을 묻고 해당하는 사물을 영어로 대답하는 표현을 익힌다.

- -알파벳 Ee~Hh의 발음과 해당 단어를 배우고 읽기/쓰기를 반복 연습한다.
- -영어 감탄사 표현 Wow! Ta-da! Great!을 익히고 활용한다.
- -알파벳 Aa~Hh까지 해당 단어를 확장하여 학습한다.

교과서 3단원

명령표현에 please를 붙여 예의바르게 부탁하는 표현을 익힌다. stand, sit, open, close 등 반대되는 행동을 익히고 게임을 통해 활용한다. 알파벳 Ii~Ll의 발음과 해당 단어를 배우고 읽기/쓰기를 반복 연습한다.

- **영어동화 THE THREE LITTLE PIGS
- **팝송 count on me

영어를 처음 접하는 학생들과 지난학기 영어를 접해본 학생들을 A반과 B반으로 나누어수업했다. 수업시간에 익힌 영어 표현을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하고자 게임이나 추가 워크시트를 활용했는데 아이들의 집중과 관심도가 매우 높았고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어느 정도 영어 학습을 해본 친구들은 난이도가 높은 내용을 접해도 흥미를 잃지 않고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고,옆 친구에게 적극적으로 배워가며 전반적으로 상승효과를 얻었 다. 처음 학습하는 학생들은 기초적인 부분을 반복적으로 짚어주어 일부 학생들은 다소 지루함을 느끼기는 했으나 읽기나 쓰기, 말하기가 전반적으로 자리잡힌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수업 평가

수업 분위기가 매우 달랐는데 전체적으로 매우 높은 집중력과 호기심을 보인 반과 달리수업 내용에 지루함을 느끼는 일부 학생들에 의해 수업 분위기가 지속적으로 분산되어 교사가 집중을 이끌어 내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 이유는 이미 선행학습한 부분을 기초부터 접하여 지루함을 느끼거나 수업 중 반복적으로 복습하는 부분에서 흥미를 잃은 때문으로 보인다.

좋았던 점: 담임 교사가 수업 중에 함께 해 주셔서 진도보다 조금더 시간이 필요한 학생들도 천천히 지도를 받으며 읽기, 쓰기 등을 끝까지 해 낼수 있었고 아이들의 성취감이 눈에 보여 매우 뿌듯했고, 감사했습니다.

마무리하며: 이번 학기를 통해 다음 학기에는 아이들의 과제나 수업 중 활용 자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겠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아울러 수업 중에 필요한 교구를 준비해 보고자 한다.

2) 7~9학년

| 교과명 | 영어1 | 담당교사 | 레이첼 |
|------|-----------|------|--------|
| 수업시간 | 목요일 3,4교시 | 수업대상 | 7학년 6명 |

| | 알파벳을 읽을 수 있고 | 알파벳을 읽을 수 있고 음가와 단어를 말할 수 있다. 또한 단어를 외워 쓰고 말할 수 있다. 영 | | | | | |
|--------|--|---|--------------------------------|--|--|--|--|
| 수업 목표 | 어와 우리말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주어+동사'의 기본 문장을 말할 수 있다. 내주변의 물건 동 | | | | | | |
| | 물 등을 영어로 표현하. | 고 간단한 인사를 할 수 | 있다. | | | | |
| | 차시 | 수업날짜 | 수업내용 | | | | |
| | 1차시 | 4/29 | A~C의 이름,음가,단어 익히기, | | | | |
| | | 4/27 | 인사와 이름 말하기 | | | | |
| | 2차시 | 5/6 | D~F의 이름,음가,단어를 익히기, | | | | |
| | Σηη | 3/0 | This, It 으로 교실에 있는 물건 말하기 | | | | |
| | 3차시 | 5/13 | G~I의 이름,음가,단어를 익히기, | | | | |
| | 2.1.1 | 37 13 | 사진을 보며 물건 말하기 | | | | |
| | 4차시 | 5/20 | J~L의 이름,음가,단어 익히기, | | | | |
| | 3.1.1 | 3720 | 가까이 있는 학용품 묻고 답하기(What's this) | | | | |
| | 5차시 | 5/27 | M~O 의 이름,음가,단어 익히기, | | | | |
| | 9 1 | 3727 | 기분 묻고 답하기(How are you?) | | | | |
| 수업 내용 | 6차시 | 6/3 | P~R의 이름,음가,단어 익히기, | | | | |
| | | 2, 2 | This,That을 구분하고 동물이름 말해 보기 | | | | |
| | 7치시 8차시 | 6/10 | S~U의 이름,음가,단어 익히기, | | | | |
| | | | 다른 사람에게 내 친구 소개하기 | | | | |
| | | | V~X의 이름,음가,단어 익히기, | | | | |
| | | | This,That으로 공원에 있는 물건 묻고 답하기 | | | | |
| | 9차시 | 6/24 | Y,Z의 이름,음가,단어 익히기, | | | | |
| | | | 좋아하는 색이 무엇인지 묻고 답하기 | | | | |
| | 10차시 7/1 | 7/1 | 단모음 a,e의 음가와 단어 익히기, | | | | |
| | | | 동사 'like'로 좋아하는 과일 말하기 | | | | |
| | 11차시 | 7/8 | 단모음 i,o,u의 음가와 단어 익히기 | | | | |
| | | | These로 여러개의 과일(복수명사) 말하기 | | | | |
| | 대부분 영어를 처음 배우는 아이들이라 기대감과 약간의 긴장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수록 익 | | | | | | |
| | 숙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단어를 읽는 것과 외우는 것이 처음이라 어색하고, 스스로 철자 | | | | | | |
| | 를 외우는것도 어려웠지만 점점 자신의 방법을 찾아 외우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 | | | | | |
| 수업 평가 | 마스크를 쓰고 있는 성 | 마스크를 쓰고 있는 상황이라 문장을 읽고 말할 때 입 모양을 볼 수 없어 어려웠지만 반복적 | | | | | |
| TH 011 | 으로 듣고 따라하면서 | 비교적 정확하게 말 할 | 수 있게 되었습니다. 7학년 아이들 대부분이 과 | | | | |
| | 제를 충실히 해왔고 수 | 업 내용도 이해하려고 . | 노력하는 모습이 많이 보인 학기였습니다. 특히 | | | | |
| | 처음 만난 강사와도 조 | "ㄹ ᆼᇀ "ᆻㅡ ㅏᆷ "ᆼㅡ ㅏ"ㅜㅏㅡ ㅡ ㅏㄷ ㅡᆷ ㅏ ᆭ ㅏ ㅡᆫ ㅜ /ᆻᆷ ㅏ ! | | | | | |
| | | 년 수 일근 <u>수</u> 있던 학 연속성이 생길 수 있던 학 | | | | | |
| | | | M | | | | |

| 교과명 | 영어2 | | 담당교사 | | 레이첼 | |
|--------|--|--|------|---------------------------------------|-----------------------------------|--|
| 수업시간 | 목요일 1,2교시 | | 수 | 업대상 | 8학년 3명 | |
| 수업 목표 | | 주제별 단어(중1학년수준)를 외우고 상고 현재형,현재진행형의 문장을 만들 - 습한다. | | | | |
| | 차시 | 수약 | 업날짜 | | 수업내용 | |
| | 1차시 | 2 | 1/29 | 단수,복수를 이 기 | 해하며 내가 입은 옷을 말해 보 | |
| | 2차시 | | 5/6 | 형용사를 이용하 | 배 옷을 설명해 보기 | |
| | 3차시 | Ę | 5/13 | This,These를 기 문고 답하기 | 사용해서 무슨 옷을 입고 있는 | |
| | 4차시 | 5 | 5/20 | 주어에 따른 동 | ·사like의 변형을 이해하며 좋아 음식을 묻고 답하기 | |
| 70 TIO | 5차시 | 5/27 | | | 소유격으로 누구의 학용품인지 | |
| 수업 내용 | 6차시 | | 6/3 | 소유격으로 누구의 물건인지 말해보기 | | |
| | 7차시 | 6 | b/10 |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기 | | |
| | 8차시 | ć | 5/17 | | | |
| | 9차시 | ć | 5/24 | 내방에 있는 물 | 건을 묻고 답하기 | |
| | 10차시 | | | 동물이 몇 마리 | (How many) 있는지 묻고 답하 | |
| | 11차시 | | | 가지고 있는(ha | ve,has) 장난감을 묻고 답하기 | |
| 수업 평가 | 단어와 문장을 익히는데 집중할 수 있었던 학기였습니다. 특히, 문장은 뼈대를 가지고 다양하게 변형시키면서 연습하였는데 반복 연습이라 지루 할 수도 있지만 열심히 따라하고 말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모두 숙제를 잘 해 왔고 학생 수가 적었던 만큼 문장을 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다만 약간은 수동적이고 조용한 분위기여서 활발하게 자신이 하고 싶은 내용을 말 해보는 시도가 조금 아쉽습니다. 이번학기에 배운 내용을 가지고 다음 학기에는 확장된 활동을 하면서 다양한 방법(스토리북읽기, 영어일기쓰기, 팝송 부르기 등) 으로 영어를 접해보기를 기대 합니다. | | | | | |

8. 미술

1) 1~2학년

| 교과명 | 미술 | 담당교사 | 씀바귀 (김 정숙) | | | |
|-------|---|------|------------|--|--|--|
| 수업시간 | 14:00~16:00 | 수업대상 | 1~2학년 | | | |
| 수업 목표 | '자연과 함께 하는 미술활동'은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표현하는 미술활동과 미술재료를 온 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감정을 극대화시키는 미술놀이 그리고 전통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먹 작업을 통하여 창의성과 표현력을 키우고, 정서가 풍부하면서도 사회성 있는 아이로 성장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 | | | | |
| 수업 내용 | 1.'자연과 함께 하는 미술활동'은 각자 선택한 나무에 스스로가 이름을 붙여주고, 1주일 단위로 어떻게 변해가는 지를 관찰하면서 그 결과를 다양한 미술재료로 표현하게 한다. 나무와 함께 주변 환경의 변화도 관찰하고 표현하게 함으로써, 나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시각적인 표현 재료들을 다양하게 경험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재료에 따라 표현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된다. 2'미술놀이'는 변화의 폭이 넓은 '두루마리 휴지'와 '엠보싱 비닐'를 놀이의 도구로 사용하는데, 그 과정에서 아이들의 부정적인 감정은 해소되고 긍정적인 것은 극대화된다. 놀이 후에 이루어지는 미술 작업은 자연스럽게 내면의 욕구를 표출하게 하여 아이들만의 독특한 작업을 하게 하는데,이때 자유로운 분위기가 숨겨져 있던 창의성을 드러내는데 도움을 준다. 팀으로 이뤄지는 미술놀이는 아이들에게 자기주장을 강하게 하여 이해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해결되는 과정에서 아이들은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배우게 된다. 3.'덕작업'은 전통문화를 경험한다는 것과 재료를 다루는 과정에서 아이들의 정서를 보다 안정되게 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 맑은 물을 벼루에 넣고 먹을 갈 때, 산만했던 아이들이 짧은 시간안에 집중할 수 있고 또 먹물을 만들어 내는 생산자가 되게 해준다. 먹물을 100% 흡수하는화선지는 성질 급한 아이들을 차분하게 만들어 주기도 한다. 휘청거리는 커다란 모필 붓은 먹물에 의해 뻣뻣해진다는 것과 붓질의 속도에 따라 다양한 감정들을 쉽게 표현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해준다. 물체를 항상 작게 그리는 아이들에게 모필붓은 표현을 대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격이 변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 | | | | |
| 수업 평가 | 1.'자연과 함께 하는 미술활동'은 관찰을 통하여 자연의 변화를 직접 체험하고 그것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데, 관찰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즉'관념'대로 그리려고 하는 아이들이 꽤 있었다. 시야를 좁혀 나무 전체가 아니라 나뭇가지와 같은 작은 부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게했을 때, 아이들은 편안하게 관찰한 것들을 사실적으로 표현하였다. 가끔 같은 나무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는 것에 싫증내는 아이들도 있었다. 2.'미술놀이'에서 아이들은 도구를 이용하여 놀이하는 것에 처음에는 낯설어 하였으나, 이내 적응하여 즐겁게 놀았다. 팀끼리 작업할 때에는 혼자할 때보다 재미가 덜한 듯 보였으나 함께 할때의 장점을 강조하자 빨리 적응하였다. 다만 재료가 마음에 들면 자기네 편으로 몽땅 가져가려는 경향이 있어 아이들끼리 갈등이 생겼으나, 다른 아이들과 함께 했을 때 더 즐겁다는 것을 경험하였기에 문제가 쉽게 풀어졌다. 3.'먹작업'은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작업이기도 하지만, 재료 자체가 워낙 심리적인 요소가 강해 1~2학년 아이들도 놀이하듯이 작업할 수 있었다. 먹을 갈아야 하는 고통(?)이 처음에는 아이들을 힘들게 하였으나, 먹물과 모필붓과 화선지의 고유한 특성들을 경험하면서 아이들은 먹작업을 즐기게 되었다. 다만 자기가 그린 형태가 고정되지 않고 시간이 지날수록 흐트러지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 2학기에는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 | | | |

2) 3~4학년

| 교과명 | 미술 | 담당교사 | 지우개 | | | |
|-------|--|---|---|--|--|--|
| 수업시간 | 월10~12시 | 수업대상 | 3.4학년 | | | |
| 수업 목표 | 우리 주변에서 늘 볼수 있는 나무를 소재로 다양한 생각을 만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이해한다. 미술이란 교과목의 특성을 살려 주로 그리기작업(드로잉)으로 수업을 진행에 나무그리기에 자신감을 갖는다. | | | | | |
| 수업 내용 | 리기, 나무의 크기를 가늠하면 림으로 표현하고 글쓰기, 나무 을 지닌 흙에 대해서, 200년 된 드라실),한그루와 여러 그루를 협동해서 작업하기, 도서관에서 | 는 것부터 시작해서 나무를 그리 친구들과 운동장에서 협동해서 위에서 사는 사람들, 나무뿌리가 나무를 이사하는 법, 신화속의 그리며 생각하기, 귀엽다, 에쁘다 나무가 등장하는 책을 찾아 이 이야기로 아이들이 수업에 참여했 | 나무 만들기, 나무의 감정을 그 있는 땅 속 공존 생물들, 생명 나무(북유럽신화의 세계수 이그 , 아름답다란 언어에 맞는 나무 야기 나누기, 색종이로 나무 조 | | | |
| 수업 평 | 프로젝트 소재자체에 대해 만족 진지하게 참여하려 했다. 미술이 라고, 신화로 이야기 나누고 글. 기를 나눌 땐 사회과목이냐고 여 정보와 지식에 대한 호기심과 한 와 무아지경으로 종이를 오려 놀이와 탐구가 병행되야하는 점 많이 진행하지 못했다. 무리를 기 방관성향을 지닌 아이와는 모둠 | 한 프로젝트주제가 아니라 교사 목스럽지 못했다. 그러나 수업이 이란 과목이지만 나무의 수생특성 쓰기 하는 시간은 말과 글이냐고 아이들이 우수개소리로 너스레를 탐구가 진지했다. 무엇보다 즐거 입체를 만드는 미술 근원적인 날 성을 다시 인지했다. 교우관계가 지어다니는 몇몇 친구들은 떨어지 이 되는 것을 싫어했다. 작업들(희열을 읽은 교사는 무척 보람을 아쉽고 미안하다. | 시작되면 자기작업에 집중하고 등을 이야기 나눌 땐 과학수업이 , 스콜지역 거주자에 대한 이야 떨었지만 3,4학년이라서 그런지 워한 시간은 물감으로 작업하기 들이였다. 아직 초등 중학년이라 원활하지 못해 협동 작업을 더 이길 싫어하고, 자기중심적이거나 이 매 차시 힘겨운 만큼 성취감 | | | |

3) 5~9학년

| 교과명 | 미술 | 담당교사 | 지우개 |
|-------|---|---|---|
| 수업시간 | 월 1시30분~3시30분 | 수업대상 | 초5,6학년, 중등 |
| 수업 목표 | 우리 주변에서 늘 볼 수 있는 나다양한 생각을 만나 우리가 살고고학년이라 실제 물감사용과 나 | | 을 익힌다. |
| 수업 내용 | 했다. 그리고 나무의 생태를 파부는 개인프로젝트로 진행했다. 었다. 재원이는 실제 대상 관찰 추상작업으로, 소율인 물감사용 | 잎이 무성해지는 과정을 내내 악한 드로잉과 색종이 조형작업, 미술수업에 참여한 한 학생이 4 라과 재현, 탐구놀이(찰흙,색종이) 을 통해 그림그리는 것 자체에 이 그림내용이 풍부해지게 했다. | 나무의 감정을 표현하기, 후반 명이라 개별수업이 많이 진행되 로, 예령인 자신 고유의 생각을 |
| 수업 평가 | 다양성과 즐거움이 적은 것이 여지 못한 주제를 선정 한 것에 원하는 것을 제공했어야 했다. 내용을 제안하기도 하고 적극 재원이는 미술을 어른이 되어서 수업보다 긴장감이 낮아 그림 그 | 적극 소통하는 이로움과 친구들: 아쉬움이 함께 남는 학기였다. 미 대해 교사 본인은 많은 성찰을 한 참여한 학생들은 선호에 의해 신 참여했다. 후반부에 자기 작업이 1도 하고 싶다고 힘들지만 그만 1리는 동안 마음이 편안하다고, 작되었고, 하람이는 습관적으로 1 점들이 가장 보람이 된다. | 술이 학생들 과목중에서 선택되 했다. 시대가 달라졌고 학생들이 청한지라 긍정적인 태도로 수업 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 좋았다. 큼 보람이 있다고, 예령인 다른 소율이는 잘 그리는 그림에 대 |

9. 음악

1) 1~2학년 합창

| 교과명 | 합창 | 담당교사 | 나래 | | | |
|-------|---|------|-------|--|--|--|
| 수업시간 | 화 10:00 | 수업대상 | 1,2학년 | | | |
| 수업 목표 | 1) 노래하는 바른자세와 기본 호흡 2) 보고, 듣고, 그리며 배우는 음악 기초이론 3) 노래하는 즐거움 나누기 | | | | | |
| 수업 내용 | - 발성과 호흡의 기초를 노래를 통해 배워본다 소리를 내는 성대의 위치와, 호흡을 사용하는 횡경막의 위치를 나의 몸을 통해 찾아본다 '아에이오우'로 소리를 내는 공간을 만든다 악보에 숨겨진 기본 악상 기호들 '높은음자리표', '낮은음자리표', '조표', '임시표', '숨표' 등 직접 찾고, 그려본다 음악적인 기본 음표들의 박자를 배운다 음악의 빠르기를 몸으로 직접 움직여가며 표현해본다 스타카토/레가토/붓점 리듬을 익히며 노래로 표현한다. *배운 노래들 <노래가만든세상><달팽이의하루><빗방울의노래><놀라운솜씨><봄이오는소리><나의방><날수있다면><세상에서가장빛나는노래> *음악감상 | | | | | |
| 수업 평가 |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 / 성악가들의 목소리 (소프라노, 테너, 베이스) 새로 들어온 1학년들이 노래를 쉽게 잘 따라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학년들이 작년 1년동안 배운 노래들과 복습하며 함께 부르니 큰 어려움 없이 잘 따라올 수 있었다. 1,2학년이 함께 음악수업을 해온 지난 2년을 봤을 때 1학년이 훨씬 수월해진 것 같다. 어려운 노래들도 금방 익히고 수업에 대한 참여도 긍정적이다. 확실히 마스크를 사용하며 노래를 부르기에 입모양이나 더 활동적으로 노래를 부를수가 없기에 힘든 부분들이 있었다. 소리로 에너지를 더운 표출하고 표현하는 부분에서 소극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이론적인 부분을 좀 더 집중했던 수업이었다. 2학년 친구들은 전반적으로 여느 2학년 학생들 보다 더 수업 집중도도 좋고, 참여도 높고, 이론적인 이해나 박자의 구성 같은 면에 있어서 흥미로워 하고 잘 이해하는 편이다. 2학년들이 분위기를 잘 잡아주기 때문에 1학년 친구들이 비교적 수월하게 잘 따라와줬다. 1학년들의 경우 참여하고 싶은 부분만 참여하고 흥미가 떨어지는 수업에서는 쉽게 수업 참여를 꺼리는데 민준 학생이 처음부터 참여가 어려웠기에, 아무래도 같은 학년 친구들이 영향을받지 않나 싶다. 산학교 고학년들의 수업을 진행했을 때 가장 어려웠던 부분들이 악보를 보는 것을 어려워한다는 것이었는데, 저학년들의 수업부터 음악에 대해, 악보를 보는 것에 대해 노래를 통해 쉽게 | | | | | |

2) 3~4학년 합창

| 교과명 | 합창 | 담당교사 | 나래 | | | |
|-------|--|------|-------|--|--|--|
| 수업시간 | 화 11:00 | 수업대상 | 3,4학년 | | | |
| 수업 목표 | (1) 나를 표현하는 나의 노래 (2) 이야기가 있는 노래/나의 이야기/ 함께하는 우리의 이야기 (3) 서로 경청하고 존중하는 음악의 시간을 갖는다. (4) 다양한 노래들을 많이 접할 수 있도록 한다. | | | | | |
| 수업 내용 | - 다양한 노래를 접하고 배우고 노래한다 화성의 기본 3화음을 통해 어울리는 음과 어울리지 않는 음을 구별하고(청음), 화음을 넣어 하모니를 맞춰본다 고음은 높이있는 음이 아닌 멀리 있는 음으로 이해하고, 그렇게 표현하기 위한 생각과 몸을 준비하며 소리를 낸다 우리가 좋아하는 노래의 분위기를 찾아본다. (예, 부드러운 노래/ 밝고 경쾌한 노래) - 악보를 읽어나가는 순서를 찾아나가본다. (도돌이표, coda, D,S, Fine 등) *배운 노래들 <함께걸어요><함께><바람의 노래><오락실><산골소년의사랑이야기><꿈으로가는계단> <butter fly=""> 등</butter> | | | | | |
| 수업 평가 | 3년, 4년차 합창 수업을 듣고 있는 가장 고학년들로, 놀이로 접하는 음악에서 벗어나 다양함을 시도하고 접하고자 노력한다. 기본적인 이론들은 모두 알고 있기에 악보를 읽어나갈 때 가장 어려운 '순서를 잡아나가는' 시간들을 가졌다. 전반적으로 수업에 참여하는 친구들과 비협조적인 학생들이 명확히 나뉘어지는 반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하나의 무언가를 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워낙에 알고 있는 곡들이 많기 때문에 노래를 할 때에 저마다 원하는 곡, 좋아하는 곡이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곡들을 자주, 함께 불러가며 최대한 함께 어우러 질 수 있도록 한다. 이번 학기에는 어우러지는 화성에 대해서 그룹을 나누어 (도,미,솔)(도,파,라,)(솔,시,레) 기본 3화음의 화음을 만들어 봤는데, 앞으로 기대한다면 2성부로 나뉘어 중창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다. 함께 어우러지는 하모니가 필요한 학년이기 때문에 소리를 함께 내고 노래 하면서 서로 배려하고 돕고 어우러지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 | | | | |

3) 3~4학년 마을 음악 창작단

| 교과명 | 아프리카음악 | 교사 | 기린, 토리 | | | |
|-------|--|--|---|--|--|--|
| 수업시간 | 화요일 | 수업대상 | 34학년 | | | |
| 수업 목표 | 14:00-16:00 (1) 아프리카 문화 배우기 (2) 아프리카 노래 및 악기 배워보기 | | | | | |
| 수업 내용 | 아프리카 음악은 처음에는 다같이 워밍업으로 체조 등을 한다. 아미두 선생님께서 이 런저런 체조와 몸놀이를 진행해주신다. 그리고 각자 악기를 준비해서 연주를 한다. 악기는 발라폰이라는 피아노같은 악기, 젬베, 바가지, 마라커스, 등의 악기로 나뉜다. 지윤이와 초아는 발라폰, 수경이 하엘이 예서는 마라카스, 젬베는 주안이 겸이 현우가친다. 다인이는 아프리카 북을 친다. 아미두 선생님이 작사 작곡하신 아프리카 곡을 가지고 다같이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친다. 대략 다같이 잘지내고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자라는 의미이다. 1학기가 끝날때즈음에 2곡정도의 곡의 연주를 완성했다. 계속 반복하고 부르고 하니 아이들이 이제 반복숙달이 되었다. 평화음악제에도 나갈 예정이라서 선생님께서 통일과 평화에 대한 강의를 잠깐 진행해주셨다. | | | | | |
| | 나 이 수업은 참 애매하다. 일단 수업 자체가 계속 같은 시끄럽다. 타악기 특성이 그 흥미가 있다. 중간중간 아이 서 수업을 조정하기도 했다. | 배운다는 것은 참으로 흥미롭아이들이 엄청 싫어하지도 않 것을 반복해야 한다. 곡을 왼 렇다. 그런데 외부로 나가고 들이 힘들어하는 몇 명이 있으 가끔은 좀 일찍가서 도서관에 는 선생님들과 좀 더 심도있게 응을 것 같다. | 고 엄청 좋아하지도 않는다. 안성하려면 그렇다. 그리고 좀 새로운 사람도 만나니 나름 어서 선생님들과 논의도 하면 너 책도 읽으면 아이들이 좋 | | | |
| 수업 평가 | 다인: 너무재밌다. 아미두가 악을 잘해서 부럽다. 겸: 재밌기도 하고 재미없기로 무 힘들다. 몸이 쑤시다 .드른 주안: 잼배가 재밌다. 잼배는 하엘: 손이 아프다. 쉬는시간 예서: 팔목이 아프다. 새로운 하다. 초아: 재밌다. 팔이 아프다. | 진동이 온다. 그래서 손이 아은 좋다. 아프리카 말이 좀 어느 보래는 박자를 놓칠때가 많다. 귀가 아프다. 머리가 띵하다 | 지만 기분 좋다. 아미두가 음 손이 아프다. 시작할때가 너 프다. 발라폰은 힘들다. I렵다. 다. 음악한곡 치면 귀가 멍멍 | | | |

10. 마음놀이

1) 1~2학년

| 교과명 | 마음놀이 | | 담당교사 | 잠자리(윤영주) |
|-------|--|------------------------|---|---|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2시~3시 |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 목표 | 친구들과의 친밀감· 놀이를 통해 청각적 셀프터치를 통해 인 | d, 시각적 주의 | 의 집중력 향상하기 | |
| | 차시 | 수업날짜 | | 수업내용 |
| | 1차시 | 3월10일 | | - · · · - |
| | 2차시 | 3월15일 | Go & STop : 젬베를 치며 악기: 며 자기조절 익히기 | 소리에 귀기울여 몸을 움직이고, 멈추 |
| | 3차시 | 3월22일 | 1.2.3 놀이 : '1'은 걷기, '2'는 조절과 정각적 주의 | 뛰기, '3'은 멈추기 놀이를통해 신체 집중하기 |
| | 4차시 | 3월31일 | 악기소리 따라하기 : 다양한 악기를 이용 소리에 귀기울여 자 | 용하여, 걷기,뛰기,돌기를 정하고 악기 기 조절을 익히기 |
| 수업 내용 | 5차시 | 4월7일 | 한다. 술래에게 잡히 이름이 불린 동물이 | 고, 동물의 특징(소리,몸짓 등)을 표현 기 전, 친구의 동물 이름을 부르면, 술래가 된다. 불리는 동물이름을 주 을 가며 자기조절하기 |
| | 6차시 4월14일 7차시 4월21일 | 4월14일 | 들리면 자유롭게 움 가면 안된다. 음악이 점점 훌라후프의 숫 | 는에 맞게 바닥에 놓는다. 음악소리가 직이되. 훌라후프를 건드리거나 들어 멈추면 훌라후프에 두 발을 넣는다. 자를 줄여,마지막 한 개의 훌라후프 는다. 보이지 않는 훌라후프에 두발을 |
| | | 지에 힘을 가하면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 감, 무게, 모양 등)을 관찰하고, 신문 변화하는 특징을 살펴보기. 특징이 변 번을 알고, 스트레스와 영향을 몸으로 를 찢고, 던지고, 뿌리며 신나게 놀고, 책임감 배우기 | |
| | 8차시 | 5월12일 | | r기'이라는 말을 붙이면 행동을 따라 ∥는 따라하지 않으며 청각적 주의집 |

| 9치시 | | 가위바위보 업어주기 |
|---|--|--|
| | 5월26일 | : 가위바위보를 해서 이긴사람이 진사람을 업어주는 놀이. 업힌 사람끼리 가위바위보를 하고 이긴 팀이 진 팀 |
| | | 을 업어주며, 친밀감 향상하기 |
| 10차시 6월2일 | | 몸짓인사 : 손끝, 손바닥, 어깨, 발, 등을 이용하여 인사하기. 여러 나라의 인사법으로 인사하기를 통해 친밀감 향상하기 |
| | | 악기소리로 짝찾기 : 다양한 악기의 소리를 들어보고, 짝을 정한 후, 둘만의 악기를 정한다. 한명은 눈을 감고, 짝은 악기를 가지고 열발 떨어져서 악기소리를 낸다. 눈을 감은 친구는 소리 만으로 친구를 찾기 |
| 12차시 | 6월21일 | 시각찾기 : 두명씩 짝을 정해서 한명은 짝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스캔한 후 뒤돌아서 눈을 감는다. 짝은 변화(소매 접기, 양말 바꿔신기 등)을 만들고 눈을 뜨고 관찰한 것을 찾게 한다. 익숙해지면 한명이 친구들을 관찰한 후 반에 가서 자기 책상을 터치하고 돌아오는 동안, 모든 아동이 위치, 물건, 옷 등의 변화를 주어 관찰한 것을 맞춘다. 구체적으로 말하기 연습과 시각적 주의집중력 향상하기 |
| 13차시 6월23 | | 물풍선. 물총놀이 : 물풍선을 한손으로 들어 올리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 불안도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일부이며, 물풍선의 감촉을 피부에 접촉하여 느낀다. 물풍선 던지기와 물총놀이로 피부감각에 주의집중하기 |
| 14차시 | 6월28일 | 날아라 슝. 막대기 오래들기 : 종이막대기를 손바닥에 올려 오래들기를 통해 집중력 향상하기 쌀주머니가 달린 끈을 멀리 던져 자유롭게 신체표현하기 |
| 15차시 | 7월7일 | 파라슈트 놀이 : 커다란 파라슈트를 잡고 밑에 들어가기, 위에 올라타기 등을 통해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즐거움을 느낀다 |
| 기 동안 즐겁고 행성 청각적. 시각적 주의 진하여 책임감과 성 매개로 하여 학생들 학생들은 즐겁게 침 중반이후 수업시간에 체크하며 다음시간에 니다. 2학년 학생들은 에 용한 놀이, 자유롭게 가 있어서 주의집중 1학년 학생들은 이어 | 복한 시간이었는 의집중을 통해 성실함을 내면화 음의 즐거움과 문 아이 늦게 오는 에는 스스로 수 너지가 넘치고 게 표현하는 놀 등 놀이를 통해 야기하는 것을 | 학년들의 자유로움과 1학년의 호기심과 성실함으로 한 학 |
| | 11차시 12차시 12차시 13차시 13차시 15차시 15차시 | 11차시 6월16일 12차시 6월21일 13차시 6월23일 14차시 6월28일 15차시 7월7일 1 2학년이 함께하는 수업에서 23기 동안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었는 청각적. 시각적 주의집중을 통해 진하여 책임감과 성실함을 내면함 매개로 하여 학생들의 즐거움과 학생들은 즐겁게 참여하였고, 매중반이후 수업시간에 늦게 오는 체크하며 다음시간에는 스스로 선니다. 2학년 학생들은 에너지가 넘치고 용한 놀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놀가 있어서 주의집중 놀이를 통해 1학년 학생들은 이야기하는 것을 |

2) 3~4학년

| 교과명 | 마음챙김놀이 | | 담당교사 | 잠자리(윤영주) |
|-------|---|--|---|---|
| 수업시간 | 매주 수요일 3시~4시 | | 수업대상 | 3.4학년 |
| 수업 목표 | 주의집중을 통해 ² 놀이를 통한 자기 호흡을 통한 내적 | 이해와 타인 이해 증진 | | |
| | 차시 | 수업날찌 | ŀ | 수업내용 |
| | 1차시 | 3월 10일 | | |
| | 2차시 | 3월 199 | _ ' ' ' ' ' ' ' ' ' ' ' ' ' ' | 유롭게 움직이고 소리가 멈추면 동작 듣고 행동하고 멈추며 자기조절하기 |
| | 3차시 | 3월 26억 | | 다양한 방법으로 발지압하기 안짱다리걷기. 11자걷기. 모델워킹 등) |
| | 4차시 | 바람맞기 3월 31일 : 텃밭으로 나가 천을 막대기에 묶어서 바람 느끼 달리기 | | 을 막대기에 묶어서 바람 느끼며 걷고 |
| | 5차시 | 4월 7일 | 꼬리잡기 : 천으로 바지뒷춤에 꼬리를 만들어 잡기놀이를 통해 홀 높이기 | |
| 수업 내용 | 6차시 | 4월 149 | 리면 자유롭게 움직이 일 안된다. 음악이 멈추 출라후프의 숫자를 즐 | 에 맞게 바닥에 놓는다. 음악소리가 들 기되. 훌라후프를 건드리거나 들어가면 면 훌라후프에 두 발을 넣는다. 점점 줄여,마지막 한 개의 훌라후프에 모두 지 않는 훌라후프에 두발을 넣어 하나 |
| | 7차시 | 5월 12일 | 종이막대기 만들어 놀 : 전단지를 활용하여 | |
| | 8차시 | 존재의 구성 1.(좌뇌.우뇌 활동) 무드라 1. : 나의 존재를 구성하는 다양한 몸 중 좌뇌(산= (상상으로 수박먹기) 경험하기. | | 우뇌 활동) 무드라 1. 는 다양한 몸 중 좌뇌(산수문제). 우뇌 |
| | 9차시 | 6월 2일 | 갈등중재. 무드라 2. | |
| | 10차시 | 6월 15일 | 달아나기는 정말 힘들 : 술래에게 터치를 받 | 을 때마다 점점 달아나기 어려워진다 (기) 터치2(두손 주머니넣기) 터치3(깽 |

| | | | 달아나기는 정말 힘들어 2. | |
|-------|--|----------------|---|--|
| | 11차시 6월 | 6월 16일 | : 활동적인 놀이를 통해 달아나는 재미와 잡는 즐거움을 | |
| | | 0 <u>2</u> 102 | 통해 에너지 발산하기 | |
| | | | 쉼과 이완으로 몸과 마음의 평화로움 경험하기 | |
| | 12차시 | 6월 22일 | 줄공놀이 | |
| | 12:4:4 | 02 222 | : 줄이 달린 공으로 자기조절력 향상하기 | |
| | | | 물풍선. 물총놀이 | |
| | | | : 물풍선을 한손으로 들어 올리면 조마조마하고 불안한 마 | |
| | 13차시 | 6월 23일 | 음이 든다. 불안도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감정 중 일 | |
| | | | 부이며, 물풍선의 감촉을 피부에 접촉하여 느낀다. | |
| | | | 물풍선 던지기와 물총놀이로 피부감각에 주의집중하기 | |
| | | | 존재의 구성 2(눈감고 짝찿기) | |
| | | | : 안대를 하고 걸으며 다른 사람, 사물과 부딪히지 않기. | |
| | 14차시 | | 다양한 벽을 느낌으로 알고 가리켜보기 | |
| | | 7월 7일 | 눈을 가린 채 사람이 있는 곳을 가리킨 후, 눈을 떠서 확 | |
| | | | 인하기 | |
| | | | 눈을 가리고 짝 정한 후, 촉감으로 짝의 이미지 기억한 후 | |
| | | | 걷다가 짝을 찾은 후 안대를 풀러 확인하기 | |
| | | | 다양한 방식으로 몸의 에너지를 느끼기 | |
| | | | | |
| | 3.4학년이 함께하 | 는 마음챙김놀 | 이는 자신에게 집중하며, 친구들과 함께하는 소중한 추억이 | |
| | 되어 한학기동안 | | | |
| | | | · 청각적 주의집중으로 자기조절력 향상을 위한 놀이를 진행 | |
| | | | 생들은 발산하는 에너지가 필요하여 활동적이며 몸을 많이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용하는 놀이와 마무리 이완을 통해 몸과 마음의 자기조절을 경험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또래간의 다툼과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중재하였고, 각자 자신의 대안적 방법을 코치받고서 안심하며 편안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신과 또래의 모습에 대해 관찰을 바탕으로 한 직접적인 이야기와 각자의 역할과 할 일이 구체적으로 제시되 | | | |
| 수업 평가 | | | | |
| 구합 경기 | | | | |
| | | | | |
| | 었을 때 안심. 안정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갈등이 드러나지 않고 수업에 좀 | | | |
| | 더 집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 | |
| | | | 냈다는 자신감, 성취가 중요해보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할 | |
| | 수 있다는 경험과 해보겠다는 도전, 그리고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효능감을 향상하기 위해 안전하고 안심되는 분위기를 만들고, 코치하는 것이 중요해보입니다. | | | |
| | | | | |
| | | | | |

11. 노동인권

1) 7~9학년

수업 대상

• 7,8학년 10명

수업 진행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노랑& 강사 기나린, 주현서

수업 목표

• 소비자본주의를 주제로 노동과 연계된 행복 · 돈 · 쓸모 · 가치에 대한 열린 질문을 통해 나의 삶 속에 스며든 노동을 생각한다.

수업 내용

1차시 : 나의 하루와 노동의 만남

- 노동자는 누구일까? 직업과 노동자의 이해
- 나의 하루에서 만나는 노동자 찿기
- 노동의 결과물이 나의 일상과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
- 돈을 받지 않는 노동에 대해 생각해 보기

2차시 : 일과 돈 그리고 행복

- &더 룸& 영화 일부 장면 보기
- 물질적인 풍요가 가져다 준 우리 삶의 변화
- &리틀 포레스트& 영화 일부 장면 보기
- 내 노동은 쓸모 있는 노동일까? 무엇이 &쓸모&를 결정할까?

3차시 : 행복한 나의 삶과 노동

- 나의 일과 중 행복한 시간, 노동하는 시간
- 나의 꿈 타임머신
- &소공녀& 영화 일부 장면 보기
- 나는 어떤 일을 하고 싶을까?
- 노동과 행복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기
- 행복한 삶을 위한 나의 삶은?

4차시 : 소비를 위한 노동, 삶을 위한 노동

- 돈과 시간, 노동과 여가 중 나는 무엇을 선택할까?
- 우리가 누리는 편의는 보이지 않는 노동으로부터 나온다.
- 영화 &잠은행& 보고 야간노동에 대한 이야기 나누기
- 플랫폼 노동과 소비자의 관계 생각해 보기
- 어떤 삶, 어떤 노동을 꿈꾸는가?

5차시 : 맑은 수족관 만들기

- 나는 존중받고 있을까? 나의 주변사람들은 존중받고 있을까? 존중한다는 것은?
- 산업재해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사회, 야간노동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 서로가 존중하지 못하는 원인 찿아보기
- 서로를 존중하기 위해 필요한 항목 찿아보기
- 함께할 때 변화가 이루어진다
- 수업 소감 나누기

평가

- &청소년노동인권교육단체 노랑&과 연계하여 수업을 진행하였다. 노동인권에 대한 당위적인 이야기 나,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전달하는 수업이 아니라 생각하고 질문하는 수업이었다. 총 5차시 수업을 강사 두분이 번갈아가면서 진행해주셨다. 생활교사가 수업에 참여하여 학생들을 관찰, 수 업 내용을 기록하고 개별 지원을 하였다.
- 노동과 행복, 내가 바라는 삶에 대해 여러가지 질문을 던지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영화와 영상 등의 자료로 질문을 던지니 흥미있어 했다. 청소년 시기 뿐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질문이고, 이를 지금부터 고민해보는 기회가 되어 좋았다. 학생들의 대답이 굉장히 다양해서 인상적이었다.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과도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봐도 좋겠다.
- 질문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답변하는 학생도 있었지만, 단편적인 답을 적거나 답변을 적기 어려워하는 학생들도 있었다. 답변을 적고 몇몇 친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으로 진행했는데, 모든 아이들의 대답을 충분히 듣고, 생각을 좀 더 확장할 수 있도록 진행자가 이끌어 가면 더욱 깊이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었겠다.
-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산업재해 등 노동에 대한 여러가지 언어와 개념을 생소해했다. 한국의 노동 현실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보니 내가 꿈꾸는 삶, 바람직한 노동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상상 하는 것도 다소 막연하거나 제한적이었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수업은 좋은데, 자기 생각을 확장하 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정보 제공도 필요하겠다.
- 돈에 대한 개념도 구체적이지 않아서 막연히 십억을 벌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모습이 있었다. 최저임금, 평균 월급, 연봉, 한달 생활비 등을 실제로 계산해보는 경제 교육을 병행하면 좋겠다.
- 11월 청소년 노동인권주간 활동을 같이 하면 좋겠다는 제안을 해주셨다. 내년에는 노동인권 수업에 더해 노동과 관련된 여러 활동을 &노랑&과 함께 기획해서 진행해보면 좋겠다.

12. 나너우리

1) 1~2학년

| 교과명 | 나너우리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월요일 10:00-11:00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 목표 | (1) 감정이 보내는 신호 알기 (2) 원하는 것이 되었을 때와 되지 않았을 때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알아보기 (3) 자신의 감정 알아차리고 표현하기 | | | | | |
|-------|--|--------------------------------------|------------------------|--|--|--|
| | 차시 수업날짜 수업내용 | | | | | |
| | 1치사-4차사 | 3월 8일-22일 | 나너우리 수업 뜻 배우기, 감정 알아보기 | | | |
| | 5차시-7차시 | 5차시-7차시 4월 5일-19일 감정 표현하기 (색깔, 그림) | | | | |
| | 8차시-11차시 | 8차시-11차시 5월 3일-31일 욕구, 내가 원하는 것 알아보기 | | | | |
| | 12차시-15차시 | 2차시-15차시 6월 7일-28일 책 읽고 인물의 감정 추측해보기 | | | | |
| | | | | | | |

감정 알아보기



산희 "나는 지금 편안해"



제이 "내 마음은 파란색이야"

수업 내용



하린
"내 마음은 무지개 색이야 기대가 돼"



"아까는 기분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괜찮아 좀 귀찮기도 하고"



건우

"나는 오늘 기대가 돼
빨간색이 조금 묻긴 했지만
내 마음은 주황색이야"



승언 "내 마음은 두 개야. 무지개 색깔이야"



은성 "나는 옷도 똑같이 그렸어 나는 지금 편안해 마음은 무지개 색이야"



민준
"내 마음은 사랑스러워야
이제 곧 동생이 태어나는데
동생이 사랑스러울 것 같아"



지헌
"제가 수박을 좋아해서
수박을 들고 가고 있어요. 제
마음의 색은 무지개색이에요.
빨리 여름이 오면 좋겠어요.
여름을 기다리고 있어요."



유하
"나는 지금 편안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해 밖에서 놀고 싶은데 교실에 들어와서 답답해"

욕구, 내가 원하는 것 알고 표현하기 <꿈 향기를 맡고 따라 온 달 토끼>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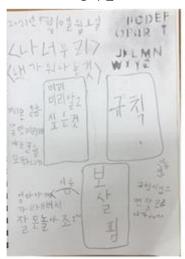
꿈을 이뤄주는 달토끼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과 원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 아이들은 제각각 "아이폰", "야구"를 말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 '바람 카드'에 나와 있는 바람을 하나씩 말해주었다. 필요한 것이 있으면 손을 들라고 했다.





내가 원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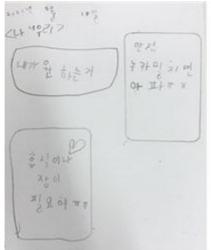
정하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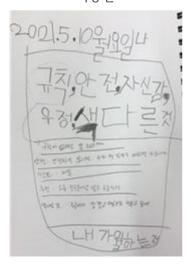


박유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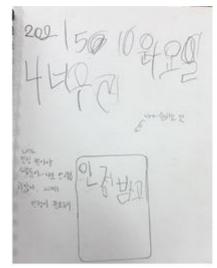




최승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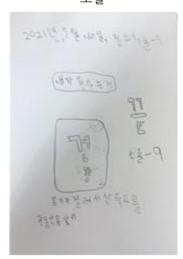
전민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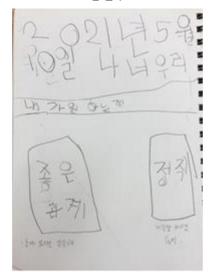
고지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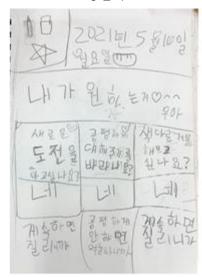
조율



김건우



장산희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까?

지난시간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생각해보고, 지금은 그것이 채워졌는지 나누기 하린: 미리 알고 싶은 것과 규칙은 채워졌는데, 보살핌은 아직 채워지지 않았어. 엄마 아빠가 바빠서 내가 심심할 때가 많거든. 어떻게 하면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이야기 중이야

제이: 나도 보살핌은 아직 안 채워졌어. 엄마 아빠가 안 놀아줘서 심심해

유하: 나는 안전과 휴식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다 채워졌어.

은성: 나는 새로운 것이 안 채워졌어. 오늘 천만샘이랑 같이 요거트 간식을 준비해서 새로운 게 조금 채워진 것 같아 좋아.

지헌: 나는 다 채워졌는데, 규칙은 조금 더 필요해. 축구할 때 축구공에 맞았거든.

승언: 나는 우정이 아직 안 채워졌어. 친구들이랑 더 많이 놀고 싶어

율: 나는 건강이 필요했는데, 지금 건강해졌어.

건우: 정직은 채워졌는데, 좋은 관계는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아. 친구들이랑 식당 놀이할 때 재 밌게 노는데 오늘은 비가 와서 못하잖아.

산희: 나는 도전이랑 새로운 것이 아직 안 채워진 것 같아.

책 읽고 인물의 감정 추측하기

<만복이네 떡집> 속 만복이의 마음은 어떨까?

만복이네 떡집 이야기 듣고 만복이의 감정이 어떨지 생각해 보고 가지고 있는 감정 카드에서 고르기

질문1. 선생님에게 혼이 난 만복이는 어떤 마음일까요?

은성: 억울하다. 만복이가 의도한게 아니라 말이 잘못 튀어나온 거라서 억울할 것 같다.

산희: 짜증난다. 만복이가 한 것도 아니어서 짜증날 것 같다.

민준: 힘들다. 만복이도 잘하고 싶었을 것 같다.

제이: 긴장되다. 엄마 아빠가 혼낼까봐 긴장됐을 것 같다.

유하: 놀라다. 만복이도 그럴려고 한 게 아니라서.

하린: 조마조마하다. 선생님한테 말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실수로 다른 말이 나와서.

건우: 불안하다

지헌: 섭섭하다. 선생님이 만복이 마음을 몰라줘서 섭섭했을 것 같다.

승언: 깜짝 놀랐을 것 같다.

율: 막막하다. 무섭다. 선생님이 부모님을 데리고 오라고 해서 무서웠을 것 같다.

| | 질문2. 친구들이 만복이를 피할 때 만복이의 마음은 어땠을까? |
|-------|---|
| | 은성: 속상하다. 어쩔 수 없이 나온 말이라 속상할 것 같다. |
| | 산희: 허전하다. 같이 놀 친구가 없어서 허전할 것 같다. |
| | 민준: 속상하다. 친구들이 도망쳐서 속상했을 것 같다. |
| | 제이: 얄밉다. 친구들이 만복이를 피해서 |
| | 유하: 속상하다. 친구들이 피해서 속상할 것 같다. |
| | 하린: 쓸쓸하다. 같이 놀려고 가는데 친구들이 피하니까 |
| | 건우: 지겹다. 자꾸 친구들이 피하니까 |
| | 지헌: 외롭다. 친구들이 없으니까 |
| | 승언: 쓸쓸 했을 것 같다. |
| | 율: 속상하다. 친구들이 피하니까. |
| | |
| | 감정이 보내는 신호 알기 |
| |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감정이 있는지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생활 속에서 그때그때 자기 |
| | 의 감정을 아는 것은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잠시 멈춰 호흡을 가다듬고 지금 마음이 어떤지 |
| | 천천히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나중에는 자기의 마음을 잘 알아차리고 표현할 거라 생각이 든 |
| | 다. 아이들은 생활 속에 깊이 빠져 있어 잠시 멈추는 것이 어렵다. 때문에 잠시 멈춰 마음을 |
| | 들여다보는 연습이 계속 필요하다. |
| 수업 평가 | 1학기에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제 제법 다양한 감정에 대해 |
| 1601 | 이해하고 있는 모습이다. 가끔 생활 속에서 그 감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2학기에도 이어서 자 |
| | 기 마음과 감정에 대해 마주하고 표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 |
| | |
| | 욕구, 내가 원하는 것 |

고 필요한지 이해할 수 있어 좋았다.

욕구카드를 활용해 "지금 나한테 필요한 게 뭐야?"라고 질문한 후 각자 자기에게 필요한 욕구 카드를 가지고 가게 했다. 아이들이 고른 욕구카드를 통해 교사도 아이에게 어떤 것이 중요하

13. 선택활동

1) 사진

| 교과명 | 사진 | 담당교사 | 로다 | | | |
|-------|---|------|---------------------|--|--|--|
| | | | 5-8학년 | | | |
| 수업시간 | 월 13:30 ~ 15:20 | 수업대상 | (참여학생: 미주, 호건, 지인, | | | |
| | | | 희주, 은강, 해니, 정윤, 은준) | | | |
| 수업 목표 | 1. 사진을 찍기 위해 알아야 하는 기초적인 상식을 알 수 있다. 2. 여러 구도로 사진을 찍어보며 다양한 구도 활용법을 알 수 있다. 3. 주제에 맞는 사진을 찍고 내 작품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표할 수 있다. | | | | | |
| 수업 내용 | 1. 사진촬영 기초 알기 1) 카메라 조작법 익히기(기능 알기, 렌즈가 깨끗한지 확인) 2) 구도 3) 초점 4) 빛과 그림자 | | | | | |

| | 5) 인물 포즈 |
|-----------|---|
| | |
| | 2. 사진촬영과 품평회 |
| | 1) 내 기억에 오래 남을 것 같은 학교 공간 |
| | 2) 인물 |
| | · |
| | 3) 자연+가까이 들여다 보기 |
| | 4) '나의 여름'을 주제로 자유 촬영 |
| | |
| | 3. 사진과 관련한 영화 감상과 감상문 쓰기 (다큐멘터리 영화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
| | |
| | 4. 개인 사진전 준비 |
| | - 아이들이 다 각자 수업에 들어온 목표가 명확해서(사진을 잘 찍고 싶다. 흔들리지 않고 구도 |
| | 가 잘 잡힌 사진을 찍고 싶다.) 수업에 아이들이 집중을 잘 했다. 흥미와 의욕도 높았다. 사 |
| | 진 수업에서 많이 찍어보고 각자 자신이 마음에 드는 사진을 고르는 작업을 하며 자신의 실 |
| | |
| | 력 향상과 목표를 달성하며 얻는 기쁨을 만끽한 것 같다. |
| | - 내가 이번 수업에서 중점을 둔 또 하나의 활동은 '자기 작품 설명하기'였다. 단순히 사진을 |
| | 찍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걸 촬영했는지, 촬영하면서 신경 쓴 부분은 어떤 부분인 |
| | 지 등의 설명을 하게끔 했다. 이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찍고 싶은 것들을 마구잡이로 찍지 |
| 4 OJ 1753 | 않고 배운 내용들을 확인해가며 촬영에 임할 수 있었다. |
| 수업 평가 | - 아이들이 제일 좋아했던 활동은 자연물을 찍는 활동이었다. 학교 옆에 공원이 있어서 그 공 |
| | 원에서 많이 촬영을 했는데 그 공간에서 아이들이 마음에 드는 자연물을 찾아 배운 구도대 |
| | 로 찍어보고 결과물에 많이 흡족해했다. 다음 사진 수업 때도 야외 촬영을 많이 하면 좋겠 |
| | 고 그의으로 클릭클해 많이 합극해졌다. 그는 사건 무밥 해오 의식 글이글 많이 이건 좋겠 |
| | |
| | - 다행히 개인 카메라를 갖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서(핸드폰 카메라도 사용하게 함) 카메라를 |
| | 다 빌려줘도 모자르는 일이 없었다. |
| | -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 일정이 조정되어 사진전을 제대로 열지 못했다. 개학 |
| | 때 사진전 마무리를 해야 한다. |

2) 코딩

| | | | T _, _, | | |
|------|---|---------|---------|--|--|
| 교과 | 코딩 (선택수업) | 담당교사 | 말랑 | | |
| 시간 | 월요일 3,4교시 | 대상 | 5~9학년 | | |
| 수업목표 | • 코딩을 통해 즐거운 활동을 | 할 수 있다. | | | |
| 수업내용 | - 스크래치 기본 메뉴와 기능 익히기 - 캐릭터의 움직임 - 배경과 캐릭터 활동 활용하기 - 다양한 게임 활동 조작하기 (미로게임, 퍼즐게임, 낚시게임) - 스스로 게임 만들기 | | | | |
| 수업평가 |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다. 코딩 기술이 점점 늘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재미나게 활동했다. 교사 지원이 많아서 아이들의 궁금증이나 도움이 필요할 때 지원이 빨랐다. 아이패드를 개별로 받아 수업에 사용하니 활동이 더 원활하고 편했다. 작년에 배운 내용을 또 배우니 너무 시웠고 좀더 복잡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다는 의견들이 있었다. | | | | |

3) 관계의 달인

| 교과명 | 관계의 달인 | 1 | 담당교사 | | 잠자리(윤영주) | |
|----------------------|-------------|--|---|---|--|--|
| 수업시간 | 매주 월요일 1:3(|)~3:20 | 3:20 수업대상 | | 5.6.7.8학년 | |
| 수업 목표 | 놀이와 실습으로 | 이야기함으로써 자기표현 향상 관계의 어려움 극복방법 익히기 험을 통해 편안함과 자신감 증진 | | | | |
| | 차시 | 수업님 | 날짜 | | 수업내용 | |
| 1차시 3월 8일 사람이 카드를 따는 | | : 욕구. 의식카드로 지 | ⊦신이 선택한 카드를 설명하고 맞추는 놀이로 적절하게 단어 설명하여 어휘 | | | |
| | 2차시 | 2차시 3월 15 | | | l이 그려진 카드로 이야기 만들기 놀 수 있게 설명하고, 타인의 이야기에 경 | |
| | 3차시 | 3월 2 | 22일 | 들은대로 말해주세요 : 갈등상황에서 연결의 대화 익히기 | | |
| | 4차시 | 3월 2 | 29일 | 시각찾기. 대화실습. 관찰과 평가 | | |
| 수업 내용 | 5차시 | 4월 | 5일 | Yes맨. 강도연습 : 자기 안의 긍정 발견하고, Yes의 에너지 느끼기 자극의 원인은 말의 내용보다 태도임을 배우고, 타인의 현에서 나를 자극하는 단서 찾아 안정으로 되돌아오기 | | |
| | 6차시 | 4월 1 | 12일 | 마인드노크 | 이용하여 서로를 알아가고 친해지는 | |
| | 7ネト人 | 5월 | 3일 | 기. 놀이로 협력과 협 | 기를 통해 전체속의 자기 역할 이해하 | |
| | 8추시 | 5월 1 | 0일 | 귀잡아당기기 : 갈등상황에서 상대의 대화 익히기 | 기 말을 존중하는 기술을 통해 연결의 | |
| | 9차시 | 5월 1 | 5월 17일 : 의자쌓기놀이로 창의적이고 유연한 사고력 향상 | | 니적이고 유연한 사고력 향상하기 | |
| | 10차시 | 5월 2 | 24일 | : 스트레스를 받을 때 | 성프카드로 이야기만들기 마음을 안정시키는 자기돌봄 프로세 -로 이야기 지어내어 자기표현 향상하 | |
| | 11차시 | 5월 3 | 31일 | | 선물을 주고받을 때의 기쁨과 원치않 고, 줄수 있음을 인식하기 | |

| | 12차시 | 6월 7일 | 스트림스 | | |
|--------|--|-------------|----------------------------------|--|--|
| | 12/1/1 | | : 숫자배열로 좌뇌 자극하고 유연함과 창조력 향상하기 | | |
| | | | 원숭이 떨어트리기 | | |
| | 13차시 6월 14일 | | : 원숭이 떨어트리기로 집중력을 향상하고, 긴장과 이완. | | |
| | | | 일어난 일을 수용하며 다시 새롭게 도전해보기 | | |
| | | | 딕싯. 초콜릿 | | |
| | 14차시 | 6월 28일 | : 이야기를 만들고 추측하고 맞추는 놀이를 통해 다양한 | | |
| | | | 언어표현 능력 향상하기 소통의 다양한 방법 익히기 | | |
| | 놀이를 활용하여 | 갈등을 중재하 | 는 다양한 방법을 익힘으로써 관계에서 편안함을 갖는 목표 | | |
| | 로 시작하였습니다 | 다. 참여 학생들 | 들은 중재기술과 연결의 대화를 익히기에는 동기가 부족하여 | | |
| | 흥미가 떨어지고 배움이 삶에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보였습니다. 하여 보드게임 등을 | | | | |
| | 활용하여 놀이에 중점을 두고 마무리로 오늘 충족된 욕구를 찾아봄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 | | | | |
| | 이 어떤 상황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인식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 | | | |
| | 특히 놀이를 하다보니 '우정'을 충족했다는 학생의 소감에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쩌면 학 | | | | |
| | 생들에게는 함께 모여 놀고 웃고 즐거운 경험으로도 충분하고, 수업이 아니라면 함께 모이 | | | | |
| 10 mai | 기 어려운 학생들이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며. 이를 통해 새로운 관계를 시작할 수 | | | | |
| 수업 평가 | 있었습니다. 다만 갈등시 중재의 다양한 기술을 익히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특 | | | | |
| | 히 자기 사례를 통해 배우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기술과 실습에 접근하지 못한 것이 많이 아 | | | | |
| | 쉽습니다. 다행히 수업중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동안 배운 중재기술을 연습할 기회가 | | | | |
| | 있었고, 당사자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하게 되었고, 다른 학생들은 중재기술이 실생활에서 | | | | |
| | 사용되는 현장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갈등이 다음 수업에도 계속 이어져, 있는 그대로의 | | | | |
| | 모습과 강사의 느 | 낌을 이야기힘 | 으로써 당사자들이 새로운 제안을 할 수 있었고, 이후 모든 | | |
| | 학생들이 갈등을 | 미연에 방지하 | 도록 서로 협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 | |
| | 학생들에게 관계의 달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 되는 첫발이었기를 바래봅니다. | | | | |

4) 밴드

| 교과명 | 밴드 | 밴드 교사 | | | | |
|-------|--|----------------------------------|-----------------|--|--|--|
| 수업시간 | 월요일 | 수업대상 | 5~9학년 | | | |
| 수업 목표 | (1) 밴드 이해하기 (2) 밴드 악기 배워보기 (3) 공연하기 | | | | | |
| 수업 내용 | 아이들과 벚꽃엔딩, 사랑은 은하수 다방에서, 모든 날 모든 순간, 아로하 등의 노래로 합주를 하고 연습을 했다. 개인별로 악기를 알려주고 다같이 모여서 합주를 하기도 했 고 마지막날 영상으로 공연을 하기도 했다. | | | | | |
| 수업 평가 | | 편하고 좋았다. 아이들이 밴드이 있다보니 계속 들락날락 ㅎ | _ , • , , , , , | | | |

처음에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고민되었다. 자연이 함께 있으니 좋았다. 밴드는 2명의 교사가 지도하는 것이 맞는 것 같다. 혼자했으면 못했을 것 같다.

신우가 드럼을 어느정도 칠 수 있어서 수월했다. 영상을 곁들이며 이래저래 알려줬는데 습득이 빨랐다. 어렵다고 말은 계속 하지만 해낼 수 있다. 하원이도 기타를 좋아하고 관심도 많아서 참 반갑고 좋았다. 이런저런 과제를 내주면 본인이 알아서 연습해왔다. 해솔이는 노래를 잘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다.

처음에 조합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막막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연습해가고 나중에는 함께 연주도 하고 공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음악과 예술이 주는 힘인 것 같 다. 못하는 사람도 너나 나나 모여 함께 한 곡을 위해 하나의 목표를 위해 노력하고 그것들을 표현해낸다. 음악이라는 것은 내가 연주하고 그 자리에서 직접 보여주는 것 이기 때문에 더 화려하다. 할 수만 있다면 음악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더욱 더 어필 이 되고 매력이 있고 메시지를 담을 수 있다.

2학기에는 다같이 공연도 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 더 다양한 노래와 조금 더 락킹한 노래들을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양한 아이들이 더 많은 기회에서 참여해봤으면 좋겠다.

14. 통합교육

1) 1~4학년

| 교과명 | 통 | 통합교육(저학년) | 담당교사 | 소금인형(강은영) | | |
|-------|--|-----------------|------------------------------|------------------|--|--|
| 수업시간 | - | | 수업대상 | 1~4학년 | | |
| 40 55 | (1) 학생 : 개인의 특성을 인정 이해하며 그에 맞는 개별화 지원계획 마련 (2) 가정 : 가정의 지원을 일원화 하며 개별의 차이를 인정하고 가족간의 긍정적 | | | | | |
| 수업 목표 | 자원을 찾는다. (3) 공동체 : 차이가 아닌 다름을 인정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지원을 할 수 있체계 마련 | | | | | |
| | 월 | 주제 | 내용 | | | |
| 수업 내용 | 가족 세우 4,5월 성격유형 (2Cas | | 라보고 있는지 서로 확인 - 성격유형 검사하기 | 유형을 서로 알고 유형에 맞는 | | |
| | - 4월~5월에 만난 가족들과 관계성을 높이고 아이들을 가족들간의 관계 키우면서 보람되는 일과 힘든 점들을 서로 나누며 광장하기 공감하기 - 등산, 나들이등 활동으로 가족들 연대하기 | | 힘든 점들을 서로 나누며 | | | |
| 수업 평가 | -자녀들 | 의 IEP를 하기 전에 가- | 족구성원들의 가계도를 통해 가 | 족간의 역동을 이해하고 성격유 | | |

형 검사로 부부간의 의사소통 방법의 차이를 알고 이를 잘 이뤄내기 위한 서로의 노력들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짐.

-이 시간들을 통해 부부가 중심이 되어 아이의 지원방법을 서로 소통하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초석이 되었다고 하였음. 그리고 가계도 안에서 아이의 역동을 확인하며 좀더 믿고 지원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는 피드백을 주었음.

-두 가족들이 만나서 긍정적인 관계를 확장하는 목표는 한가정의 출산과 코로나로 학교에 모이는 것에 대한 제한적인 사항들이 있어서 이후 진행여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저학년 대상으로 가족을 세우고 부부간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기 위한 활동이 긍정적이며 이후 외·내부 자원으로 다양하게 접근하며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2) 5~6학년

| 교과명 | 통합교육(중학년) | | 담당교사 | 소금인형(강은영) | | |
|-------|---|--------------------------------|--|--|--|--|
| 수업시간 | - | | 수업대상 | 5~6학년 | | |
| 수업 목표 | (1) 생활교사, 전담교사들과의 학생의 특성과 지원방법 공유 (2) 전환의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함께 찾을 수 있는 기회 마련 (3) 학교 또는 마을 공동체의 지원체계 마련하여 긍정적인 역할 수행하도록 안내 | | | | | |
| | 월 | 주제 | L | 세용 | | |
| | 3월 | 장애 학생 기능평기 및 개별면담(욕구 확인) | 사 질적인 성향이나 장애 특성 - 개별면담으로 본인들의 수 | - 생활교사, 전담교사, 통합교사들의 기능평가로 아이의 기 질적인 성향이나 장애 특성 이해하고 지원방향 세우기 - 개별면담으로 본인들의 수업에서 성취되고 싶은 것과 하 고 싶은 것, 지원을 받았으면 하는 요소 확인하여 교사 등과 공유하기 | | |
| 수업 내용 | 4,5,6월 | 개별활동 지원하기 | - 관계형성하기 - 사회시설이용하기(약국, 문구점, 커피숍 등) - 집마실가기 - 알맹상점 아르바이트 하기 | | | |
| | 7월 | 평가하기 | - 3개월 개별활동을 점검하다 부분 자기평가히기 - 새롭게 하고 싶은 활동 제 | | | |
| 수업 평가 | -개별활동을 지원하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영역들이 많아지고 이것이 선순환이 되어 자기 효능감이 높아짐. 그리고 지원자와 본인의 불편한 사항이나 이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힘도 가지게 된 것 같아 긍정적으로 보임가족들에게 활동의 진행사항을 알려주고 이를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가족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이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을 하지 못한 것이 아쉬움으로 남음3,4학기에는 구체적인 역할안내로 본인의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가족들과도 월 1회라도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져 가정내에서도 이부분에 대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자함. | | | | | |

3) 7~9학년

| 교과명 | 통합교육(고학년) | | 담당교사 | 소금인형(강은영) | |
|-------|--|-----------|--|-----------|--|
| 수업시간 | - | | 수업대상 | 7~9학년 | |
| 수업 목표 | (1) 평생과정설계(Permanency Process Planning; PPP)는 인간중심계획(Person Centered Planning; PCP)의 관점을 공유하고 평생계획(Permanency Planning)의 영역을 확장하여 모든 사람이 전 생애에 걸쳐 삶의 포괄적 영역을 지속적으로 설계 (2) 교육, 보건의료, 문화여가, 직업, 결혼, 주거, 법, 소득재정 등을 포함하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반적인 영역 안내 (3) 중등에서 고등으로 넘어가는 전환교육 실시 | | | | |
| | 월 | 주제 | L | 네용 | |
| 수업 내용 | 5,6월 | 개별활동 지원하기 | - 개인프로젝트 수업 정하기 - 언어(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읽기와 쓰기, 금전개념, 기지시 - 대인관계, 책임감, 자존감 높이기, 규칙 이해하고 지키? - 일상생활 도구적 활동 및 기능 익히기, 작업기술 및 구활용 - 사회적 기술 익히기, 안전한 경계 만들기 - 긍적적인 역할 수행으로 자기 효능감 높이기 | | |
| | 7월 | 월 평가하기 | - 개별활동을 점검하며 긍정 자기평가히기 - 새롭게 하고 싶은 활동 제 | | |
| 수업 평가 | -평생과정설계 교육을 실시하고자 하였으나 잘 이뤄지지 않았음. 하반기에 통합교육 전체교육으로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음개별활동이기 보다 그룹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지원을 하였으나 프로젝트 목표와 개별목표의 차이가 있어 개별활동 지원하는데 한계가 있었음중등과정 이후의 전환을 어떻게 준비 할 것인지에 대한 교육이나 장애를 등록하는데 대한 안내가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임. | | | | |

15. 작은산회의

1) 1~2학년

| 교과명 | 작은산회의 | 담당교사 | 노을 (윤천만) |
|-------|---|------|----------|
| 수업시간 | 수요일 | 수업대상 | 12학년 |
| 수업 목표 | (1) 학교생활 중 불편했던 것과 제안할 것 나누기 (2) 산학교 규칙과 약속 배우기 (3) 어려움과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약속 정하기 | | |
| 수업 내용 | 1. 산회의가 뭔지 배우기 "회의는 겪고 있는 문제를 함께 이야기 하고 같이 해결하는 거야" 2. 학교생활 중 불편했던 것 나누기 | | |

3. 함께 해결할 방법 찾아보기

<6월 16일 작은산회의> 내용

진행: 유하, 율

산학교에서 불편한 것

-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 너무 더워
- 폭력이 싫어. 숲속놀이터에서 놀 때 사람들이 밀쳐
- 색종이가 미술실에 있어서 불편해
- 사람들이 비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
- 우리 교실 시계가 안 맞아서 불편해
- 건의함이 너무 높이 있어서 불편해
- 거울이 너무 높이 있어서 볼 수가 없어
- 이찬이 형이 우리를 때리고 목을 졸라 놀려
- 이찬이 형이 나를 깔고 뭉갰어
- 텃밭 위에 못 올라가서 불편해
- 화장실 칸 안에 휴지가 있으면 좋겠어. 밖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다시 밖으로 나와야 해서 불편해
- 2층 남자 화장실 변기가 너무 막혀
- 우리반 반장이 있으면 좋겠어
- 반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규칙 위원회를 만들자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방법

- 아이스크림을 먹고 싶어 -> 간식 제안하기 -> 해결 완료
- 너무 더워 -> 에어컨 켜자 -> 해결 완료
- 사람들이 밀쳐 ->전체 산회의에 제안
- 색종이가 미술실에 있어서 불편해 -> 종이를 잘 정리되는지 오늘 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기
- 물건을 뺐어 -> 전체 산회의에 제안
- 비난을 많이 하는 것 같아 -> 전체 산회의에 제안
- 시계가 안 맞아서 불편해 -> 해결 완료
- 건의함이 너무 높이 있어서 불편해 -> 위치 바꿨음 해결 완료
- 거울이 너무 높이 있어서 볼 수가 없어 -> 위치 바꿨음 해결 완료
- 텃밭 위에 못 올라가서 불편해 -> 노을과 시간 약속을 정하면 텃밭 위에 갈 수 있도록 규칙 정했음
- 화장실 칸 안에 휴지가 있으면 좋겠어. 밖에 있으니까 필요할 때 다시 밖으로 나와야 해서 불편해 -> 학교에 제안
- 변기가 너무 막혀 -> 학교에 제안
- 우리반 반장이 있으면 좋겠어 -> 다음주 작은산회의 안건
- 반 규칙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까 규칙 위원회를 만들자 -> 다음주 작은 산회의 안건

수업 평가 건의함





3월 말 1학년 아이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데,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하면서 힘들었던 것을 꺼내 놓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어렵고 힘든 걸 노을에게 말하고 싶은데,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서 말을 못하기도 하고, 까먹어서 말을 못하기도 한다고 했다. 그때부터 교실에 건의함이 생겼다. 작은산회의 때 아이들과 건의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 어렵고 힘든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적어서 넣어놓으면 작은산회의 때 함께 이야기 나누자고 했다.

7월, 작은산회의 평가를 할 때 건의함이 있어서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을 털어놓을 수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1학년 아이들뿐만 아니라 2학년 아이들도 잘 활용한다.

산학교 규칙 배우고 지키기





학교 규칙과 약속을 1,2학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아이들이 잘 기억할 수 있도록 포스터로 만들어 곳곳에 붙여 놓았다. 학교 규칙이 많아 1,2학년 아이들이 조금씩 배워가고 있다. 학기 말에는 전체산회의에도 참여했는데, 물건위원회의의 설명을 듣고 학교 물건이 잘 정리되지 않는 것을 발견하면 사진을 찍어제보하기도 했다.



작은산회의 진행하기

학기 말부터는 2학년 아이들이 진행과 서기를 하고 있다. 아이들이 진행하고, 교사가 뒤로 슬쩍 피해 있으니 작은산회의에 참여하는 아이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불편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모습이다. 2학기 때도 아이들이 작은산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겠다.

아이들 평가

- 작은산회의 때 불편할 걸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 사람들이 옆에 있는데 노을이 랑 불편할걸 얘기 하는 게 힘들잖아. 건의함은 편하게 내가 불편할 걸 얘기할 수 있어서 좋아.
- 비난이나 폭력, 놀리는 문제에가 작은산회의에서 잘 해결된 것 같아
- 우리가 만든 사인도 잘 지켜지고 있는 것 같아.

2) 3~4학년

| 교과명 | 작은산회의 | 담당교사 | 기린 | |
|-------|--|--|--|--|
| 수업시간 | 수요일 | 수업대상 | 34학년 | |
| 수업 목표 | (1) 학교생활 중 불편했던 것과 제안할 것 나누기 (2) 산학교 규칙과 약속 배우기 (3) 어려움과 고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약속 정하기 | | | |
| 수업 내용 | 처음에는 아이들과 회의 방식이 아닌 의견청취정도의 회의를 진행했다. 그러다가 전체 산회의가 진행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아이들과 작은 산회의 또한 전체산회의와 같은 방식을 도입해야 겠다 싶었다. 그래서 작은산회의도 전체산회의와 똑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했다. 의장과 부의장을 정하고 경고표를 작성하고, 안건지를 만들어 기록을 했다. 의장이 회의를 진행했다. 여러 가지 안건들이 있었다. 특별히 중요한 안건은 없었다. 그 중 기란이 아이스크림을 사주면좋겠다는 안건도 있었다. 그것에 대해 찬반으로 회의를 하기도 하며 결론은 기란이 알아서 하자는 결론이 나오기도 했다. 그 외에 수업시간에 떠들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등에 대한이야기를 하기도 했다. | | | |
| | 전체산회의 문화가 교실에도 똑같이 도입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학교 전체의 분위기가 만들어지니 학급에서도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이 매우 수월했다. 필사라는 것이 아이들에게는 확실한 기준점이 된 것이다. 그리고 아이들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을 느낀 것 같다. 그러나 부의장의 경고 때문에 불만들어 있었다. 나는 안했는데, 부의장은 지적한다는 불만이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한 가이드라인이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같다. 아이들이 손을 들고 이야기하고 다른 아이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분위기가 정말 좋았다. 이런 분위기가 계속되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봤다. 의장 또한 회의를 진행하고 본인의 이야기를 다른 아이들이 경청해준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뿌듯하다고 했다. 다른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을 아이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일 수도 있다. 2학기에는 안건과 건의사항에 대해 좀 더 준비하면 좋을 것 같다. | | | |
| 수업 평가 | 다인: 싫다. 지루하고 경고를 초아: 앞으로 안했으면 좋겠다. 하엘: 힘들다. 그러나 의장이 예서: 의장일 때 재밌었다. 필주안: 떨리고 경고받을까봐 좋았다. 현우: 필사하는 게 싫다. 지투겸: 회의내용이 나랑 관련되 벌칙을 다른걸로 했으면 좋겠 | 되면 좋다. 내 말에 집중을 하 일사할까봐 긴장된다. 힘들었다. 경고를 처음에 받고 루하다. 부의장이 재밌었다. 지 않았는데 앉아있으면 힘들 | 사항이 잘 안지켜진다. 해서 재미있다. 그 나중에는 안받아서 기분여 다. 부의장을 더 하고 싶다 | |

3) 5~6학년

| 교과 | 작은산회의 | 담당교사 | 로다, 말랑 | |
|----|---|------|--------|--|
| 시간 | 월요일 3,4교시 | 대상 | 5,6학년 | |
| 목표 | 통합반 생활에서 필요한 규칙을 제안하고 결정할 수 있다. 통합반에서 일어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한다. 자치활동(동아리, 학생회)에서 맡은 역할을 통해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 | | | |
| 내용 | 안건 • 욕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 규칙: 가장 많이 쓰는 씨발, 존나,뻐큐 세 가지 욕을 사용하지 않도록하자. 욕을 들은 사람은 욕 게시판에 기록하고 세 번이상 욕을 할 경우 벌칙으로 배식 당번을 했다> 욕의 단계를 나누어 성적관련 욕과 비난 비하 관련 욕까지 체크를 하고 있다. 언어문화를 바꿀 수 있길 기대하고 있다. • 스포츠 할 때 비난 비하 같은 언어폭력이 심해서 경고를 주기로 했다. 심판을 세워 안전한 스포 츠 경기를 하도록 했다. | | | |
| 평가 | 의장단 주희, 이찬, 예령이가 주체적으로 진행하고 이끌었다. 회의 분위기를 안정스럽게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서로의 의견에 귀 기울이기 위해 떠드는 것에 대해 벌칙을 세웠다. 그리고 자리 배치 도 간격을 띄워서 앉았다. 회의 분위기가 안정스럽고 차분해졌다. 갈등이 있을 때 주희가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갈등 중재를 해주었다. 상황을 파악하고 서로의 감정을 나누는 과정에서 주희역할이 돋보였다. 언어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 왜곡된 성적표현과 욕에 대한 민감도가 전체적으로 높아 졌다. 아이들 스스로 욕을 사용하지 않도록 조심하는 모습이 보였다. 주변인들이 관찰자가 되어 서 로의 언행에 대해 피드백도 이루어졌다. 그러나 욕을 평소에 자주 쓰는 아이들 중에서는 욕을 줄 이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무의식적으로 욕이 나오고 습관이 된 것 같다. | | | |

4) 7~9학년

| 교과 | 한주 열기 | 담당교사 | 자연, 아미 | |
|----|---|------|---------|--|
| 시간 | 월요일 1,2교시 | 대상 | 7,8,9학년 | |
| 목표 | - 개인, 공동체의 문제를 회의를 통해 함께 해결하는 경험을 한다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학생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자치 문화를 활성화한다 회복적 써클 방식으로 진행하여 모두가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도록 한다. | | | |
| 내용 | - 학기 초 학생회를 구성하여 한주열기 진행 방법을 정함. 1시간 써클, 1시간 학급회의 - 학급 회의 : 학생, 교사가 모여 학교생활과 배움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한다. 학생회가 안건을 받아 회의를 준비, 진행한다 써클 : 학생, 교사가 모여 공동체 약속을 점검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이야기를 나눈다. 학생회가 주제를 정해 써클을 진행한다. | | | |
| 평가 | 우울한 월요일 아침을 써클로 시작하는 것이 한주 흐름상 좋았다. 다만 써클 진행을 학생회가 하기에는 교육이 부족하긴 했다. 그래도 매주 교사와 같이 써클을 준비하면서 자연스럽게 써클의 의미와 진행 방법을 조금씩 익히는 모습이었다. 학기초 써클을 통해 불편한 점들이 수면위로 드러나기도 했다. 초반에는 교사가 제안한 주제와 안건이 주가 되었는데 2학기 중반부터는 학생회끼리회의와 써클을 준비해보도록 했다. 써클 책을 보고 체크인 활동과 우리에게 필요한 질문들을 준비하여 진행하고 있다. 진행이 미숙한 부분들이 있고 아직 우리 안의 문제를 직면하여 풀어내는 '갈 등회복써클'까지는 어렵지만 꾸준히 써클을 진행하는 것만으로도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회의는 주로 학급에 필요한 일에 대한 논의, 약속을 정했다. 생활에서 불편한 점에 대해서는 학생들이 안건을 내기 보다는 주로 교사가 잔소리 하고 싶은 부분을 안건으로 낸 경우가 많았다. 카톡약속, 수업 약속, 숙제 약속, 배식 약속 등등이 정해졌다. 회의를 통해 문제가 다루어지면 훨씬 더갈 받아들이는 모습이다. 다만 학생들 스스로가 문제를 느끼고 회의를 통해 해결하려는 모습은 적어서 아쉽다. | | | |